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전공

고 민 희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양 호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전공

고 민 희

고민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12년 12월 일

감사의 글

어렸을 적, 어느 책에서 보았던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저의 삶에 있어 커다란 물음표를 던져 주었다면, 이 논문의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하나의 느낌표를 찍는 순간일 것입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수도 없이 느꼈던 많은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처럼 ‘이 글의 논문된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 논문을 지도해주신 이양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부족한 글이 이렇듯 작은 결과로나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연상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제가 이 학교에 정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은 교수님의 애정 어린 관심 덕분이었으며, 항상 격려해 주신 덕분에 힘을 얻고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게 있어 훌륭한 ‘선생님’이신 한인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해주신 많은 조언들은 제가 앞으로 살아나감에 있어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민 선생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첫 학기 교수님의 수업에서 느꼈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으며,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큰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자이지만 품어주시는 선생님의 마음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음을 이 글을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문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기 어려운 자료들을 직접 구해 주시고, 멀리 있는 서울까지 보내 주셨던 제주 봉성교회 김인주 목사님, 한문으로 된 설교문을 해석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을 때 큰 도움을 주신 장신대 김석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는 동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집중하여 쓸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신 류금주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세 교회사 여러 선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같은 곳에서 학문의 길을 걸어

가는 동료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주신 점 절대 잊지 않으며, 항상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염려하고 고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연세에서 만난 많은 분들 덕분에 저에게 주어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욱 값지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더 큰 애정과 격한 응원으로 보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을 친구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힘이 되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는 친구들로 인해 어떠한 상황이든 견뎌낼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팔 할이 너희들’이라고 웃으면서 건넨 말이 사실 진심이였음을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또한 고촌중앙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도님, 특히 유아유치부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배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마음, 안겨오는 아이들의 따뜻함 덕분에 매일 매일이 풍성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참 부족한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르고 응원해주는 착한 두 동생 호영이, 호준이에게 한없는 미안함과 사랑, 그리운 심정을 전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느라 변변한 효도 한 번 못해드린 죄스러운 딸이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부모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존경, 감사를 표현하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

2012년 12월 일
고 민 희

차 례

표차례	iii
국문요약	iv
제1장.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2. 선행연구사	3
1.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0
1.4. 용어설명	13
제2장. 제주 초기 교회 형성 배경과 과정	16
2.1. 제주 초기교회 형성의 역사 문화적 배경	17
2.1.1. 지리적 특징과 역사	17
2.1.2. 문화와 전통신앙	19
2.1.3. 제주도 주민들의 정서와 의식구조의 특성	24
2.2. 제주 초기교회 형성 과정	27
2.2.1.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선교적 관심	27
2.2.2. 천주교 전래	29
2.2.3. 개신교 전래	36
제3장. 제주 초기 교회 형성 전기: 이도종의 성장기와 전기 목회활동(1927-1938).. 53	
3.1. 이도종의 성장기와 학창시절	54
3.1.1. 이도종의 출생과 성장 배경	54
3.1.2. 평양 숭실학교 유학과 협재리 전도인 파송 시절	56
3.2. 목회자 준비과정과 김제에서의 목회 활동	58
3.2.1. 조선장로회신학교 시절	58
3.2.2. 목사 안수와 김제 목회시작	59
3.3. 제주 전도목회 시작과 제주 교회 발전을 위한 노력	60
제4장. 제주 초기 교회 형성 후기: 이도종의 후기 목회활동과 죽음(1938-1949) .. 68	
4.1. 신사참배 결정과 목회 사임	69
4.2. 해방과 교회 재건 활동	72

4.3. 제주 4·3사건과 이도종의 죽음	75
4.3.1. 제주 4·3사건 당시의 상황	75
4.3.2. 이도종의 죽음	82
제5장. 제주 초기 교회 형성기: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의 특징	85
5.1. 이도종의 목회 사상	86
5.1.1. 이도종의 참된 그리스도인 양육을 위한 가르침	86
5.1.2. 이도종의 제주라는 배경과 관련한 가르침	89
5.2. 이도종의 목회활동이 미치는 영향력	92
5.2.1. 제주 출신 지역민 목회자	92
5.2.2. 평생을 제주에서 사역한 목회자	94
5.2.3. 제주 4·3사건 당시 희생당한 목회자	97
제6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8
부록	115
ABSTRACT	117

표 차 례

[표 1]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제주 선교 현황	43
[표 2] 당시 성경학원 교과과정(1934년 2월 27일 - 3월 21일)	46
[표 3]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제주교회의 희생자 목록	50
[표 4] 1931년부터 1939년까지의 제주교회 교세표	63
[표 5] 이도중 목사의 부임 이후 고산교회의 성장세	69
[표 6] 제주 전교 초기(1908-1917년)의 교세 총계표	115
[표 7] 제주노회 설립 이후(1931-1942년까지)의 교세 총계표	116

국문요약

제주도 초기 교회 형성과정 연구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제주 초기 교회 형성과정을 제주 교회역사 안에서 나타난 인물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제주 지역민의 입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제주 교회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주 초기 교회가 형성 되었던 제주 지역의 배경을 볼 때 본토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로부터 형성된 문화와 전통신앙, 공동체성과 배타성은 제주도가 선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게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성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관심과 시도가 있어왔으며, 그 결과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제주 선교사 파송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08년 제주도에 도착한 이기풍은 그가 도내하기 이전에 이미 육지부에서 개신교를 접하고 기독교에 귀의하였던 김재원, 조봉호 등과 협력하여 전도활동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제주 교회는 점차 성장하여 나간다.

이처럼 제주 초기 교회의 형성과정을 언급하면서 특히나 제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 이도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제주 출신 1호 목사로 일컬어지는 이도종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목회활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은 제주 초기 교회 형성사를 이도종이라는 개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맞물려 있다.

본 논문이 이도종의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제주 초기교회의 형성과정을 다루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다음의 두 가지 강조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제주민 목회자 이도종의 삶과 목회활동의 의미이다. 제주민이라는 정체성을 지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며, 목사가 된 후 제주노회창립과 성경학교 건립

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이도종의 사역은 그 당시 제주와 제주교회의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제주 신앙인들의 힘으로 해결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윽고 발생한 4·3사건으로 인해 희생당한 그의 삶은 당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나갔던 제주교회 교인들의 삶의 자세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기에 이도종의 제주민 목회자로서의 삶과 사역은 제주 초기교회 형성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도종의 삶과 목회활동이 제주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이도종이 생각하기에 제주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천국민’이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건설해야 할 제주 교회와 교인들이 가진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를 향한 잘못된 인식일 것이다. 제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과 풍습,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문화에 대해 제주 교회는 아집, 폐쇄적인 지역성, 미개한 문화성으로 오인하여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였다. 반대로 제주민들은 제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지워내지 못한 탓으로 제주교회를 제주의 풍습을 없애고, 외부의 것을 강압적으로 제주에 유입하려 했으며, 4·3이라는 제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입힌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민과 제주교회는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위기에 대처해 나갔던 공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제주민과 제주 교회의 대상을 향한 이해에서 제주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활동하던 이도종이라는 인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핵심 되는 말 : 제주초기교회, 제주민, 공동체성, 배타성, 제주 4·3사건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삼재해’의 섬(三災島),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 제주. 이처럼 척박한 지형과 무속 신앙의 본거지격인 제주섬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 들어간 지 어언 100년이 지났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고난과 시험에 맞서야 했던 역경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교회는 제주에 올바른 기독교상을 정립하고자 힘써왔다. 이러한 제주 교회의 역사와 더불어 한국 최초 해외 선교사 파송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제주도의 복음사역에 물꼬를 튼 사역자들의 헌신과 열매에 더욱 더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바이나, 현재 제주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타 지역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볼 때 극히 미비하다.

교회의 역사와 연관하여 ‘제주’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았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국 최초 해외 선교지’, ‘이기풍’, ‘4·3사건’ ‘무속 신앙이 팽배한 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제주 교회를 설명하고자 하면 ‘우상 숭배가 많은 척박한 섬 지역 제주에 이기풍 목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4·3사건 등 많은 박해와 수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성장이란 열매를 맺어가는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지’라고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제주교회사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제주도 연구는 주체적이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주 교회에 대한 연구도 제주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을 표현하여 이르는 ‘육지인’들의 이해와 시각을 바탕으로 서술되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한 지역의 교회 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제주 교회사는 제주도에 대한 선입견이 그대로 적용된 채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이는 제주도 교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주도와 관련하여 과연 ‘제주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 교회가 제주 지역에 미친 영향이나, 제주교회로 인해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듯하다. 이는 제주 교회가 제주사회에 끼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것이며, 제주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러한 시각이 어떨 땐 제주 교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를 제주도 역사 서술과, 증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봉호는 상해 임정의 자금모금 단체인 ‘독립희생회’ 활동을 하다가 체포된 후 옥사한 항일투사이다. 본래 조봉호는 독립운동보다 제주도 최초의 개신교 교회 설립자로서 더 유명하다. 흔히 제주의 개신교 전파는 1908년 이기풍 목사가 제주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사실은 이기풍 이전에 조봉호가 외부 지원 없이 먼저 교회를 세웠다. … 사실 조봉호 이상으로 항일운동을 펼친 사람들도 많았다. 거듭 말하지만 조봉호의 항일투쟁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그 이외의 항일투사들은 왜 찬밥 신세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제기일 뿐이다. 왜 조봉호만 유난히 일찍부터 조명을 받은 걸까?

혹시 개신교의 위세 때문이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 제법 큰 권력 중 하나는 개신교다. 역사 조형물이 현실 세력관계의 충실한 반영이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그런 의문을 품어봄직도 하다”¹⁾

“‘자수운동’은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자수한 사람들을 처음에는 풀어줬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수자 명단에 이름들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야.

조○○ 목사가 쓴 글에 보니까 자수운동으로 주민을 살렸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 … 조○○, 그 사람 ‘진상조사회’에 나왔던데 나온 사람 전부가 올바른 뜻이 없었어. 내가, 43을 ‘폭동’이라고 규정했으면 그대로 매질하면 될 일인데 왜 또 규명은 할려고 하느냐고 말했어. 그 모임이 끝나고 누가 옆으로 오더니만은, “제가 조남수입니다. 아까 얘기 잘 들었습니다”하고 말해서 조○○가 그 자리에 온 것을 알았지. 난 “혹시나 좋은 소식이 있을까봐서 와봤습니다만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하고 일어서버렸어.”²⁾

1)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서울: 한겨레신문사, 1991), 238-239.

이와 같은 제주 교회의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제주 교회의 역사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기풍으로부터의 선교역사, 기독교의 배경을 가지고 애국적 삶을 살았던 조봉호, 그리고 4·3사건이라는 제주도 최대 비극의 역사에서 큰 활약을 했다고 서술되던 조남수 목사에 대한 평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제주민이 인식하는 제주교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그 거리감에서 발생하는 배타성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교회의 ‘제주의 교회’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그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제주민들이 스스로를 구별해내는 ‘제주 토박이’가 교회에 입교하여 신앙을 실천하여 나간 역사에 대해 조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교회의 초기 역사, 그 중에서도 교회 초기 정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 ‘이도종’의 삶과 그의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도종 목사는 제주 출신 1호 목사이면서, 또한 1호 순교자로 인정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사 이도종의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과 그의 사역을 짚어 나가다 보면, 제주 개신교 전파 초기의 열악했던 상황과 당시 국제·국내적인 정세의 흐름에서 흔들리는 제주 역사와 같이 내딛는 제주 교회의 걸음을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당시 이도종과 같은 신앙인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 제주 교회가 점차 성장해 나갔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 해외선교지로 대표되고 부각되던 제주 교회가 제주도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내림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사

제주도 교회에 관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연구를 본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제주 지역 교회에 대한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했으며, 제주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교회가 한국의 ‘해외선교’로써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인식 때문일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주 교회의

2) 제주 4·3 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89), 149-150.

경우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뤄진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제주 교회를 다루는 통사와 인물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이전의 제주 지역 교회 연구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관점을 두고 진행해 온 부분이 많으므로, 방향과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구분을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주 교회의 연구를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³⁾ 상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교회에 관한 연구 성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될 정도인데, 1966년 제주노회의 초대 이사장이 된 강문호와 문태선이 지역교회를 다루는 통사 또는 개론서로서의 입장으로 서술한 ‘濟州宣敎 70年史’가 제주 교회 연구의 처음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제주노회의 연혁을 엮고자 했던 시도가 확장된 것으로 제주 교회 70년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부는 제주 선교 과정과 노회의 역사, 2부는 제주노회의 지교회를 정리한 지교회 편, 총 2부로 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 교회의 역사 현장을 찾으려는 관심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였던 몇몇 연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시도를 기행문의 형식으로 서술한 연구가 몇 편이 있어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영환은 한 달여 가량 제주지역에 선교여행의 차원으로 방문하여 순회하였던 경험을 선교 여행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 남기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제주지역의 언어와 풍습이 내륙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해 고립될 수 있는 외국과도 같은 이 지역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그를 위한 방법으로 교역자의 헌신과 봉사, 교역자의 생활대책, 육지교회에서의 정보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고 있다.⁴⁾

김형식은 남강문화재단측의 요청으로 남강 이승훈의 족적을 찾코자 1990년 제주

3)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영환, “제주도 교회를 다녀와서,” 『활천』 399 (1982), 69-74; 김형식, “제주교 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241-258; 김형식, “초기(1901-1919) 제주도 교회사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식』 4 (1991), 9-11;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도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등이 있다.

4) 박영환, “제주도 교회를 다녀와서,” 『활천』 399 (1982), 69-74.

도를 방문하였다가 얻은 제주 교회사에 대한 고찰을 그의 글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는 제주도와 본토의 역사인식과 시각 차이에 대해 당혹했음을 말하며, 특히나 제주 교회사가 제주지역의 도사(道史)에서 유리되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그는 제주 지역 교회사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신축교난에 대한 입장, 이기풍 목사의 제주 입도, 금성리 교회의 자생적 교인들, 4·3사건에서의 교회의 수난과 같은 교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얻은 생각과 발견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 그는 제주 교회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종래에 가지고 있던 ‘미개한 주민들에 대한 복음전파’라는 인식과, 그와 관련된 이기풍 목사의 선교 행적에만 주안점을 두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형석은 또한 이 연구에서 한국 교회사의 특징인 ‘자생적 교인’이 제주지역에도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는 금성교회에서 발견한 금성리교회 당회록(1950), 주일회록(1924)이 제주교회사의 새로운 단서가 될 귀중한 두 사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남강 이승훈과 관련하여, 제주도 교회의 당시 독립운동과 교육운동에 대한 입장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⁵⁾

그리고 많지는 않으나 인물에 중점을 두어 다룬 연구논문이 이 시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에 입도하여 선교사역을 펼쳐나간 이기풍에 대한 중점연구이다.

박장래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입도하여 선교해 나간 초기의 역사를 그의 석사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이를 위해 천주교의 전래 과정에서 일어난 ‘신축성교난’이 제주 개신교 선교에 미친 영향을 이기풍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이기풍의 선교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기풍의 선교 방법에 대해 농사를 돕는 일, 수해구제 행동, 구도적인 젊은이들과의 교제를 통한 인격적인 감화와 지도, 유배와 있던 관료층과 지성인들과의 만남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현지인들과 많은 전도자들, 가족들이 협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풍 목사의 이러한 노력과 주변인들의 협력으로 인해 제주 초기 교회가 성장해 나갔음을

5)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241-258; 김형석, “초기 (1901-1919) 제주도 교회사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식』 4 (1991), 9-11.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서술해 나가고 있다.⁶⁾

제주도 교회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2008년을 근간으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주교회가 제주 기독교 역사의 100년째 되는 해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며, 이처럼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 기독교 통사가 발간되기에 이른다. 또한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제주 기독교 선교가 제주에 미쳤던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하려는 시도가 생겨났으며, 제주도의 특징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다룬 선교적 관점의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물 관련 연구에서도 이기풍 외에 다른 제주기독교 인물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⁷⁾

박용규⁸⁾는 제주기독교 100년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제주기독교회사를 기술한다. 제주선교 100주년은 곧 한국해외선교 100주년을 의미한다는 측면으로 보아, 이러한 시도가 한국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 교회의 역사를 그가 생각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나누어, 나타나는 특징들을 서술해 나간다. 총 5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제주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주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주제로 고찰하고 있으며, ‘제주기독교의 개척과 확장’ 과정을 1908년부터 1930년으로 시기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노회가 조직된 1930년과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1945년까지를 ‘영광과 고난의 제주기독교’라고 명칭하며 이 당시의 교회의 자립과 고난, 변화를 서술하고 있고,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해방 후 제주기독교’라는 주제로, 당시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립상황에서

6)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도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7) 이 시기에 진행된 연구로는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한인수, 『濟州宣敎百年史』 (서울: 경건, 2009); 한국일, “제주퀘당문화와 제주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30 (2007), 375-413;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던고』 (서울: 콤파출판사, 2010); 김종희, “제주도 1호목사-순교자 이도중,” 「새가정사」 56 (2009), 68-71;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73-191;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이도중목사 기념사업회 편,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중의 생애와 순교』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2001);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아브라함병욱, “선교문화방법론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평가,”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등이 있다.

8)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제주교회와 한국전쟁, 제주기독교 부흥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1960년부터 현재로 구분하여 근대와 현대 시기 제주기독교의 변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서술된 이 책은 결국 이 제주선교가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실로, 한국교회의 최초 선교지이면서 선교하는 한국 교회의 모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시작하고 있으며, 제주라는 척박한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싸워야 했던 전도자들과, 그들을 후원했던 한국교회와 교인들로 주체와 대상을 구분 지어 제주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제 선교 100년을 맞아 이때를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장기적인 선교적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제주가 앞으로 한국교회 100년 선교역사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한인수⁹⁾는 제주 교회의 개척과 성장 과정에 호남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관점으로 제주 기독교사를 집필하였다. 그도 천주교회사의 전래과정을 첫 장으로 놓고 제주 기독교의 역사를 열 두 시기로 구분, 총 13장으로 구성하여 선교 100년사를 서술하고 있다. 다른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주 지역 기독교 역사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여 나갔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특징이 있다면 전라노회의 제주선교라는 측면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전라노회의 제주선교 역사를 서술하는 데 세 장을 할당하여, 당시 전라남도 행정구역 안에 있던 제주도 지역 선교를 위해 전라노회가 큰 관심을 두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그의 책에서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의 특징적인 문화에 관심을 두고, 이를 선교적 관점에서 다른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일¹⁰⁾은 제주의 켄당 문화를 살펴보면서, 그와 관련된 제주 선교를 에큐메니칼의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선교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선교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려는 시도에서 그의 글이 출발했음을 이야기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사회의 선교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 현장

9)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서울: 경건, 2009).

10) 한국일, “제주켄당문화와 제주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30 (2007), 375-413.

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켄당문화를 언급하면서, 이 켄당문화가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이 크나 외부에 대해 배타성을 가진 강한 집단 공동체로서 선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과, 결국은 이러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개인을 향한 선교적 접근 보다는 지역사회라는 보다 큰 단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이야기한다. 그러한 대안과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연대적 관계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사회 개발형식을 갖추고 함께 살아가는 선교활동의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 시기에 이르러 인물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글들을 살펴볼 것인데, 이를 통해 점차 제주도 초기 교회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이도종’이라는 인물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요나¹¹⁾는 제주도 지역을 방문한 후, 제주 출신 1호 목사이며 동시에 제주 교회 첫 순교자인 이도종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을 알고 전기를 작성한다. 이도종의 생애와 관련하여 그의 출생 배경, 유학과정, 목회활동, 특히 순교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저자가 이도종이 한국 교회의 ‘순교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해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중희¹²⁾는 이도종을 순교자 이야기에 기재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덕련의 신앙과 금성교회 설립 과정에서의 역할, 이도종의 학업과 항일사상, 순교과정에 대해 짧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도 한국 교회에 이도종이라는 순교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1세기를 맞아 제주 기독교 선교가 제주에 미쳤던 영향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있어 그 중 몇 편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정민¹³⁾은 기독교 선교가 제주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선교적 입장으로 서술하는데, 이기풍이라는 인물이 제주 지역에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제주지역이 육지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섬 지방이라는 일반적인 특성과, 이와 더불어 당시 가톨릭과 관련된 신축교난으로 인해 발생한

11)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서울: 쿤란출판사, 2010).

12) 김중희, “제주도 1호목사-순교자 이도종,” 『새가정사』 56 (2009), 68-71.

13)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73-191.

부정적인 여파와 민심의 작용으로, 제주 지역이 개척전도가 아니라 ‘해외 선교’로서 결행되기에 이르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 기독교사를 가톨릭, 이기풍의 선교, 기독교 민족운동, 해방 이후 제주 기독교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서술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에는 제주 기독교의 영향력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한계를 가지고 있음과, ‘제주 복음화’의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의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제주 복음화’에 대한 방안을 기독교회의 제주에 대한 과제, 지역 사회가 기독교와 관련하여 지닌 과제로 부여함으로써 제주 기독교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서성환¹⁴⁾은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그의 책에서 제주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그는 ‘왜 제주에는 낮은 복음화율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 교회의 역사와 선교활동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나가고 있다. 특히나 제주에서 현재 성장하고 있는 불교와 가톨릭, 창가학회에 대해 타산지석의 입장으로 서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제주 교회가 역사적으로 제주 사람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하여 나갔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정 능력과 자기 개혁 과정이 있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개교회의 성장과 개척교회 운동, 사회봉사와 연대, 문화선교, 학술활동, 성도를 주체로 세우는 것과 같은 선교정책을 세우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이기풍 목사가 제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당시,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써 제주를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음과, 그러한 비전을 지금 제주 교회가 공유해야 한다고 그의 글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제주도 교회 연구는 이처럼 제주 지역 교회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려는 입장보다는 한국 교회 선교라는 큰 줄기에서 흘러나온 하나의 선교사라는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교회를 그 지역 주민들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려는 시도 보다는 한국 선교라는 큰 틀로만 바라보았으며, 이를

14)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바탕으로 제주 교회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지역 교회사라는 이해에서도 벗어나 선교 역사와 그 대상이라는 대상성만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주 교회사의 올바른 이해와 서술을 위해 제주가 주체가 되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절감되고 요구된다.

1.3.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 교회의 초기 형성과정, 그 중에서도 제주 교회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목사 이도종의 삶과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도종이 초기 제주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그의 생애와 사역이 제주 교회의 형성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도종 목사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함께 다루면서, 제주도에 개신교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던 과정을 함께 고찰해 볼 것이다.

연구 범위는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배경과 형성과정을 다루고, 이차적으로는 이도종 목사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우선 교회의 복음 전파라는 것이 그 지역의 사회·환경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들어가므로, 제주 지역사를 제주 교회의 형성 배경으로써 언급하여 지나가고자 한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부터 제주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던 외부인들의 시선과 함께, 개신교의 전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제주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제주 가톨릭 형성과정을 전사의 개념으로서 다룰 것이다.

또한 제주에 처음 교회가 설립되었던 1908년을 시작으로 두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4·3사건 종결시점인 1957년까지를 제주교회 형성과정의 전기와 후기(1908-1938/1938-1957)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또한 인물 이도종에 대한 연구에 특히 중점을 둘 것이므로, 이도종이 태어났던 1892년 근간을 시작으로 하고 이도종 목사가 사역 중 실종되었다가 발견된 1949년 까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이나 이도종의 삶에 대해 더욱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고자 한다.

서술 방식을 언급하기에 앞서, 제주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대표 문화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안에서 하위로 이해되는 지역 문화로써 설명해야 하는 동시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실로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루어진 지역 연구 동향을 놓고 본다면, 지역적, 환경적, 역사적인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제주지역과 육지부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하여, 마치 ‘제주국 중심주의’처럼 보이게끔 한 경향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하여 제주지역 교회 연구를 본다면 위에서 기술하였다시피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부 구조로만 이해되는 제주 지역 교회의 연구였다. 그야말로 한국 개신교의 선교역사를 서술하는 듯한 제주 교회 연구 경향성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치우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라는 지역은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속해있으면서도,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특히나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이전의 기간 동안 본토와 떨어져 쉽게 왕래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이라는 조건 안에 있었으므로, 본토의 다른 지방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는 종교의 부분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의 서술 방향은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의 제주교회라는 관계성에 대해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의 첫 장인 두 번째 장에서는 그 당시 제주도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과, 당시 제주도 개신교의 전래와 형성 과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제주 지역은 개신교를 전파하는 측에서 인식할 때, 그들이 가진 지역성,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제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신앙의 부분과, 그들의 의식구조 안에 박혀 있는 독특한 정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제주민의 지역성이 방해요소로 보여진다면, 이러한 특성이 형성되었던 배경에서 어떻게 제주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이 장을 구성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제주 교회의 형성 전기, 그 중에서도 제주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도종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도종이 당시의 정황에서 어떻게 개신교를 접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도종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동시에 그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목사가 된 후 점차 자리를 잡아나갔던 김제읍과 초기 제주 사역을 그의 전기 목회활동(1927-1938)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 시기를 거쳐 생성된 이도종의 목회관과 방향성은 그가 제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특히 제주 노회 창립을 주도해 나갔던 과정과, 성경학원 신축을 위해 전국 교회 모금 운동을 했던 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한다. 이도종의 이러한 성장과 목회과정을 통해 제주 전교 초기의 교회 형성과 발전사도 함께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네 번째 장에서는 제주초기교회의 형성 후기, 그 과정 안에서 펼쳐지는 이도종의 사역을 이도종의 후기 목회활동(1938-1949)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그가 노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제주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했음을 자책하고, 목회를 사임한 정황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라는 당시의 배경에서 제주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해 나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서 이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닦쳐온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드러났던 4·3사건 중, 이도종 목사가 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공비에게 붙잡혀 희생되었던 이도종 목사를 다루면서, 4·3사건 당시 제주도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이도종이라는 인물이 제주 교회의 형성과정에서 행했던 역할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도종의 사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목회사상, 즉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담지 하였고 제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상이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며, 다음으로는 이도종의 목회사역이 주는 영향력으로 그가 가진 제주민이라는 정체성이 줄 수 있는 장점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이도종이 행했던 제주지역 목회가 그의 전 생애에 걸친 활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희생의 모습을 특징으로 말하고자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이도종이라는 인물이 제주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목회활동이 제주 전교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이도종이라는 인물을 연구함으로써 제주도로 흘러 온 이 복음의 씨앗을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그 씨앗을 움트게 하는 과정에서 제주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꺾박과 갈등의 상황,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지금의 제주 개신교 100년 역사라는 크나큰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려한 결실 뒤에 숨어있는 즉, 제주 교회가 전교 과정에서 항상 제주민을 중심으로 이해하여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이 역사의 흐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하겠다. 그렇기에 이도종은 지금의 제주교회에 시사점을 줌과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해 준다.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다루면서 제주 교회가 수용하여 나아갈 점을 깨달으며, 이와 더불어 제주민들도 제주도가 선교지라는 의식의 중심에서 벗어나 복음을 수용하여 꽃 피웠던 당시 교인들의 역사를 앎으로써, 제주 교회가 더 이상 ‘외래종교’로 자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

1.4. 용어설명

1. 제주 초기 교회

제주 초기 교회는 1908년 이기풍이 제주 선교사로 입도하면서부터 시작된 제주도 초기의 교회를 말하며, 본 논문에서는 제주에 유입되어 형성의 단계에 이른 개신교를 제주 초기 교회와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의거한 선교적 차원에서 시작된 제주 초기 교회는 점차 자리를 잡아나가는 듯 했으나, 제주 지역에 닥쳐온 위기 상황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체하기에는 그 능력이 매우 미흡하였다. 선교 초기에는 총회 전도부에 의해 추진되던 제주 선교 사업이 전남, 전북, 황해노회로 위임되었으나, 각 노회에서 제주 선교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당시 제주에 있던 목회자들도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외지 출신 목회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교회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민 목회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주교회는 수용의 단계에서 자립의 단계로 한층 다가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외부에 의한 교회에서 내부를 향한 교회로 나아가는 당시의 상황을 보며 제주 교회의 형성과정을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기에 이르러 제주민을 위한 100년 제주교회 역사의 전초 단계가 확립되었음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민

제주민은 제주사람을 이르는 용어로, 보통 제주 지역의 토박이와 도래인으로 구성된 지역민들을 일컫는다. 여기서 토박이란 삼성신화에 등장하는 ‘三姓’을 말하며, 이들이 형성한 탐라국이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들어온 사람들을 도래인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 제주민을 토박이와 도래인이라 구분 짓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의 삶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지역권 안에서 동일한 문화를 습득하며 역사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들 모두 제주 토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래인일지라도 “제주에 입도해서 족벌을 이룬 이들은 이미 토박이가 되었다는 증거”¹⁵⁾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민들의 특징을 본 논문에서는 양자성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생겨난 개방성과 폐쇄성을 이르는 것이다. 주변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개방성을 보이는 동시에, 자신들이 가진 문화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양자성은 제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과 외부의 억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에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현상 자체는 또한 상황적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15) 현길인, 『제주문화론』 (제주: 탐라목석원, 2001), 127.

이는 제주민들의 언어표현에서도 나타난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표현은, 그들이 어느 정도 제주 문화에 접합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제주민의 언어 사용 자체가 표준어와 생활 언어로 구분되어 있어, 그들이 사람들과 대화 할 때 상대방을 같은 문화를 영위하는 공동체라 여길 시에는 방언을 사용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심리를 볼 때도 제주민들의 이 같은 상황적 이중성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민의 관점은 어떠한 사람이 생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잠시 머무는 사람을 외부인으로 구분하며, 이렇듯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주민이 아닌 ‘외래인’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이들에 대한 제주민들의 거리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를 본 논문에서는 제주민과 제주에서 목회활동을 하고자 입도하였다가 본토로 돌아간 목회자들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제주 초기교회 형성 배경과 과정

현재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 가고 싶은 섬, 관광의 섬, 국제자유도시 등 다양하고 이채로운 수식어로 일컬어지나, 이전의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수난의 섬’이라는 표현이 제주를 나타내는 말 중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만이 지배하던 섬이었다.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이 섬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를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기에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사회문화를 형성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들의 정체성과 의식구조 역시 이처럼 특수한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변방의 섬이라는 제주 지역이 가진 특성을 중요성으로 이해하여, 관심을 갖고 선교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에 온 외국인들의 시각에 특히나 그러하였다. 이 지역의 가능성을 인식한 결과, 제주도에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왕래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도가 형성이라는 단계로 먼저 자리 잡은 것은 천주교였다. 전래 초기의 박해를 이겨내고 세력을 갖게 된 천주교는 제주도 전교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2개의 본당을 설립하는 등 성장하여 나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윽고 일어난 신축년의 난으로 인해 배척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곧바로 이어질 개신교 선교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 복음화를 시도한 제주 교회가 이 지역에서 형성되는 과정이 본 장에서 펼쳐질 내용이다.

2.1. 제주 초기교회 형성의 역사 문화적 배경

2.1.1. 지리적 특징과 역사

여러 옛 문헌에서 탁라(毛羅), 탐라(耽羅), 영주(瀛洲)등 다양한 이름¹⁶⁾으로 일컬어졌던 제주(濟州)는 그 이름의 뜻처럼 깊고 먼 바다에 위치해 있어, 물을 건너서 가야 하는 척박한 환경의 땅이자 동시에 신선이 사는 신비로운 땅으로 생각되었다. 바다에 둘러싸여 고립된 폐쇄적인 섬이지만, 제주를 이르는 여러 이름들을 놓고 역으로 유추해보면 정해진 명칭이 없이 다양한 이름으로 일컬었던 것으로 보아, 제주 사람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라기보다는 제주와 관계를 맺어나간 여러 나라들에서 나름대로 불리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수재(水災), 한재(旱災), 풍재(風災)가 많아 ‘세 가지 재해의 섬(三災島)’이라 하였다.¹⁷⁾ 이러한 악조건은 제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민들은 많은 사회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었고, 결국 이러한 측면은 제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삼성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는 보통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 하강하는 신화구조와는 달리 땅에서 솟아난 것으로 표현되는 “고·양·부 삼성의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나중에는 삼씨족의 공동체인 원시국가가 성립”¹⁸⁾되었다. 이는 우리가 제주도 최초의 국가라고 말하는 탐라국으로, 그 건국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략 기원전 500년 전후로 추정한다.¹⁹⁾ 이렇게 형성된 탐라국은 백제·신라·고구려 삼국과 당, 왜 나라와도 뱃길로 왕래하며 독자적인 역사를 형성해 나간다.

16) 이 외에도 문헌에 따라 탐모라(耽侖羅), 탐몰라(探沒羅), 섭모라(涉牟羅), 섭라(涉羅), 담라(澹羅), 둔라(屯羅), 모라(毛羅)등의 이름도 나타난다. 가장 많이 쓰인 이름이 탁라·탐라·제주이다. 김봉옥, 『제주통사』(서울: 도서출판 세림, 2000), 25.

17) 같은 책, 15.

18)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 『제주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정립』(제주: 한국방송공사제주방송총국, 1996), 25.

19)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연표 II』(제주: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2005), 14.

이후 탐라국은 부속 도서인 우도(牛島)등과 함께 고려 초까지 속국으로 복속되어 내려오다가, 고려 숙종 10년(1105)년에 탐라군이라는 지방 행정 단위로 편성되었으며, 고려 고종(1214~1259)때부터는 현재의 지명인 '제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 후 원종 11년,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군과 여·몽 연합군의 항전에서 삼별초가 평정되면서부터 100년간 원(元)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²⁰⁾

1294년(충렬왕 30)년,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난 제주도에 본토에서 파견한 목사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는 조선시대로까지 이어져 태조 6년(1397)년에는 목사 겸 첨절제사, 1401은 목사 겸 안무사로 임명된 지방 관리들이 파견된다. 1416에는(태종 16년) 한라산을 경계로 산북 지역은 제주목, 산남 지방은 양분하여 동쪽에는 정의현(旌義縣), 서쪽에는 대정현(大靜縣)을 두고 목사와 현감을 임명하였다. 이후 몇 차례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제주도의 지역구분은 대체로 제주·대정·정의 3현 체제로 유지되었다. 1864년(고종 원년)에는 제주 3현이 군(郡)으로 승격되면서 전라도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된다. 1906년(광무 19년)에는 정의·대정 군이 제주군으로 통합되었다.

제주민들의 생활권은 제주·정의·대정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나 지식계층들은 이 세 지역에 향교를 두어 세력권을 형성하였다. 식수가 분출되는 해안의 용천 부락과 중산간 지대의 용천대(湧泉帶)에도 집성촌이 형성되었으므로, 크게 구분을 두자면 제주·정의·대정 세 권역과 해안 지대, 중산간 지대 두 권역이라 말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1915년, 총독부가 제주에 도제(島制)를 실시함에 따라 도사(島司)가 파견되다가, 이후 1931년 전라남도 제주면에서 제주읍으로 승격되어 1읍 12면 체제를 이루게 된다. 해방 후 1946년에는 도(道)로 승격되었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분리되었다. 1948년 4·3사건으로 인해 중산간 지역에 있던 부락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임해(臨海) 취락으로 인구가 밀집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어서 발생한 6·25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가 가중되었으나, 전국 각지의 피난민이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사회·문화적인 발달의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전쟁이 마무리 된 이후 1955년에는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었고, 점차 감귤재배와 관광

20) 원나라는 이곳에 탐라총관부를 두어 직할지로 삼고, 목마장을 설치하여 말, 소, 약대, 나귀 등을 방목하기 시작하였다. 제주에 목축의 전통, 돌담, 몽고풍 언어, 풍속 등이 생겨나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산업이 발달하기에 이르러 도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1981년에는 서귀포읍도 ‘서귀포시’로 승격되었다. 현재에 이르러 남제주군과 북제주군도 이 두 시로 통합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따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2.1.2. 문화와 전통신앙

제주는 섬 지역으로 지역민들이 외부와 쉽게 왕래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특히나 조선 인조 이후 200년 간 유지된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으로 인해 육지 출입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 자체적인 특성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특성으로 생긴 문화와 종교적인 요소가 현재까지도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양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우선 본 논문이 제주 초기 교회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이므로, 제주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마찰과 어려움을 야기했던 민간신앙과, 그와 관련된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일 년 내내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던 제주민의 척박한 생활환경은 제주민들에게 삼무(三無)의 정신을 형성하도록 했으며, 동시에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초자연적 힘에라도 의존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를 이끌어 내어 무속적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하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성을 지칭하는 ‘신들의 고향’, ‘신들의 섬’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으며, 조선조에는 당 오백 절 오백이 있었다고 전해질 만큼 무속신앙이 팽배한 고장이 바로 이 곳 제주였다.

그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어떠한 절대적인 신 존재를 정하여 숭상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숲, 내와 못,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 물가와 평지, 나무와 돌 따위를 모두 신으로 섬겨”²¹⁾ 제사를 지냈다. 제주도의 건국신화인 ‘삼성신화’도 당곳에서 유래하였고, “무당이 계속해서 건국신화를 구전시켜”²²⁾오다가 즉, 당곳에서 서사무가로 쓰이다가 문자로 정착하게 된 경우라고 한다. 제주도의 창세설화에 나오는 설문대 할망도 여신으로 추앙되고 있으며, 음력 2월 초하루와 열나흘날 사이에는 영등 할망이 제주에

21) 이원진, 『역주 탐라지』(서울: 푸른역사, 2002), 24.

22)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41.

다녀간다 하여, 이 달을 영등달이라 하고 영등굿²³⁾을 벌인다.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건입동, 조천읍 북촌리·함덕리, 구좌읍 김녕리·하도리·세화리,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수산리·신양리·온평리, 안덕면 사계리 등 해안가 마을에서 영등굿을 하는데, 이는 영등 할망이 제주도 동쪽 끝인 우도로부터 시작하여 섬 전체를 돌면서, 바다에 미역·전복·소라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뿌려 번식시켜주고, 어업이나 농업에도 풍요를 준 뒤 다시 소섬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에는 “500여의 많은 자연부락에 300여 군데나 되는 크고 작은 신당(神堂)이 있고, 그 신격(神格)은 18,000 신이나 된다”²⁴⁾고 전해진다. 이처럼 마을마다 신당이 있는데, 이 “신당(神堂: 당 할망)이 마을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호신”²⁵⁾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져 왔다. 신당도 내용, 기능, 기원에 따라 “본향당, 일뤼당(7일당), 여드레당(8일당), 해신당으로 분류”²⁶⁾되는데, 이러한 신당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수가 약 350여개가 된다는 사실을 볼 때, 제주민들의 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꽤나 큰 것으로 여겨진다. 그야말로 이러한 신앙 자체가 계속 이어져 내려와 제주민의 정

23) 영등굿은 봄을 맞는 문턱에서 행해지는 계절제로서의 의미가 있다. 영등신은 내방신으로서 풍우신·풍농신·어업신·해신·해산물증식신 등으로 관념된다.

24) 진성기,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17 (1985), 179.

25) 김봉옥, 『제주통사』, 27.

26) 먼저 본향당은 마을 공동체의 신을 모시는 성소이다. 이곳에서는 마을곳이 이뤄진다. 본향당 당신은 마을 공동체의 신인 만큼 마을 사람 전체의 생명과 건강, 산업 번창 등 모든 부분을 관장한다. 본래는 모든 자연마을마다 설촌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통합되거나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전체 신당 중 약 44퍼센트가 이 본향당이다. 반면 나머지 셋은 개별 신앙의 성소이다. 즉 본향당이 중심 신앙 장소라면, 나머지 셋은 주변 신앙 성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본향당 이면서 다른 당의 기능을 겸한 경우도 있다. 개별 신앙 성소 중 많은 것은 전체의 약 33퍼센트를 차지하는 일뤼당(7일당)이다. ‘일뤼당’이라는 이름은 매월 7일, 17일, 27일에 제를 올리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일뤼당신은 어린애를 낳고 기르는 일,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관장한다. 산육(産育), 치병(治病)의 역할이다. 일뤼당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산육과 치병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은 전체의 약 13퍼센트를 차지하는 해신당이다. 해신당은 당연히 해촌 마을에 있다. 포구 전체의 수호신인 ‘개당’, 배를 매는 선창에 모시는 ‘돈지당’ 등이 모두 같은 계열이다. 본향을 겸하는 신당도 있고, 본향과 별도로 개별 신당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해녀와 어부가 공통으로 모시는 신당이 있는가 하면, 해녀들의 신당과 뱃사람의 신당이 별개로 나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이곳에 모셔진 신들은 기본적으로 풍어와 해상안전을 관장한다. 다음으로 전체의 약 10 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여드레당(8일당)이다. 여드레당의 이름은 매월 8일, 18일, 28일에 제를 지낸다 해서 붙은 것으로 이는 일뤼당의 원리와 같다. 이 당의 가장 큰 특징은 뱃신을 숭배한다는 점이다.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183.

신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과 관련하여, 제주에 유배되었던 충암 김정은 그의 글에서 “제주민들은 삶과 죽음 등 그 모든 것을 신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교에 의한 제주도민의 교화는 전혀 불가능하다.”²⁷⁾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18세기 초에 제주에 부임했던 이형상 목사가 권력을 앞세워 제주도에 있는 신당들을 없애고자 했으나, 제주민들은 “이형상 목사가 떠나자마자, 곳곳의 신당들을 복구”²⁸⁾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형상 목사에 관한 전설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무속신앙이 깊이 내재화되어 있던 제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신앙과 연관된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낸다.

제주도의 무속신앙과 관련하여 다룰 또 한 가지는 뱀을 섬기는 풍습이다.

“곡물을 저장하는 고팡에는 안칠성이라는 신이 있다 하여 고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고, 집 뒤꼍에 주쟁이를 덮어 밧칠성이라는 신을 모시는 집안이 있는데, 이 신들을 모두 뱀이라고 관념하고 있다. 또 표선면 토산리의 수호신인 여드렛당신을 본래 뱀이라고 하고, 이 신은 딸에서 딸로 따라와 모시지 않으면 재앙을 준다고 일반이 관념하고 있으며, 간혹 집안에 따라서는 일가 내지 일족의 수호신이 본래 뱀이라고 하여 지금도 모시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데가 있다.”²⁹⁾

이처럼 뱀을 사신(蛇神)으로 여기는 풍습은 원래 육지부에서도 존재하였던 “농경 사회의 龍蛇信仰에서 연유된 豊農神信仰이 분화”³⁰⁾된 것으로 보이나, 제주도에서 그 범위가 조상신, 당신, 일반신으로서, 또한 민간신앙 뿐만 아니라 통치권자인 官의 신앙으로까지 확대되어 전승된 것으로 여겨진다.

신앙과 관련된 또 다른 전통으로, 제주도에 ‘신구간’에 이사를 하는 독특한 풍습이 있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 지역 “전체의 생활, 경제, 의식 등을 좌우하는 무형의 가치관을 형성”³¹⁾하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폐습으로 보고

27) 충암 김정은 제주민들의 신당에 대한 뿌리 깊은 의존도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당과 불교를 혼합시킨 상태로 제주도민들을 회유하다가 유교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沖庵 金淨,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 『제주사자료총서 I』 (제주: 제주도, 1998).

28) 조성윤, 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 (1998), 19.

29) 현용준, 현승환, “제주도 뱀 신화와 신앙연구,” 『탐라문화』 15 (1995), 2.

30) 현용준, 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연구,” 59.

없애려 하였으나, 여전히 유지되어 제주도민의 주거이동을 지배하는 문화로 자리매김 하였다. ‘신구간’은 대한 후 5일 입춘 전 2일의 7일간으로, 지상을 관장하던 모든 신들이 교대를 명받는 시기, 즉 ‘그동안 지상을 다스리던 옛 신과 새로 다스리러 내려 오는 새 신이 교대를 명받은 때’이다. 제주도에서는 신이 없는 이때에 어떤 일을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집을 고치거나, 큰 나무를 베거나, 이장, 이사를 한다. 즉, 신구간은 “평소에 신들의 구속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신이 없는 틈을 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간”³²⁾이다.³³⁾

다음으로는 제사와 관련된 의식으로, 제주에는 유교문화의 형식적인 면이 잘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장제례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 장제례가 조상을 숭배하여 잘 모시는 ‘효’의 관행으로서, 특히 부계의 가계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조상을 “자손의 길흉화복을 주재할 수 있는 절대자로 신격화”³⁴⁾한다. 그렇게 때문에 제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을 낳는 것을 중요시 하여 축첩, 양자, 사혼 등이 성행하였고, 만약 이러한 “봉사손을 획득하지 못했을 때는 ‘외손봉사’, ‘까마귀 모른 식개’를 통해서라도 제사를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³⁵⁾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물(제사) 얻어먹을 수 없는 조상이 “일월조상이 되어 딸 자손들의 무속적 봉사를 받”³⁶⁾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구실할망본풀이’와 같은 조상본풀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제사의식에도 신적인 존재에 의존하려는 제주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를 전교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척박한 환경과 더불어 육지인이 내도하였을 때 걸릴 수 있는 풍토병을 견디어 내는 것도 힘든 일이었으나, 위와 같은 문화풍습과 전통신앙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다. 제주도 전교 초기에 내도하

31) 김동진, 방경식, 장희순,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의식구조 분석,” 『주거환경』 6 (2008), 26.

32) 같은 글, 28.

33) 현재 ‘신구간’은 이사하는 기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이사할 때는 ‘신구간’전에 계획을 잡고 계약을 하였다가, ‘신구간’이 되면 바로 잔금을 치루고 일제히 이사하고, 곧 이어 전입과 등기, 전화 이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므로 약 1주간은 혼란스럽고 바쁘다. 같은 글.

34) 신행철,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1993), 65.

35) 같은 책, 65.

36)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과주: 집문당, 2005), 233.

였던 이기풍은 제주도의 이러한 풍습과 신앙에 대해 지역민의 시각으로 읽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개신교의 교리를 전해야 하는 이기풍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나, 제주민이 그러한 이기풍의 대응방식을 곧장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기풍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였고 특히 조상숭배를 이와 같이 여겨 금하였는데, 당시의 김기평 장로처럼 이를 실천하였던 자도 있었으나, 그의 가족들이 김기평 장로에게 극심한 핍박을 가하고 내친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즉 지역주민들의 박해를 견디기만 하면 가능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제사 문제는 해결되었고 나중에 김기평은 교회장로가 되었다”³⁷⁾와 같은 식의 평가를 쉽사리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진다.

또한 이기풍은 뱀을 섬기는 문화를 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뱀을 제거해 나가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에도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이기풍을 죽이려 하였다. 위에서 다룬 신구간 절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문화에 대해 이기풍이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³⁸⁾ 신구간 풍습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행해지며, “평소에 동티가 날까 하지 못했던 일들, 즉, 집수리, 변소개축, 이사 등”³⁹⁾을 하므로 이 기간을 눈여겨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외부인의 시각에 드러나기가 쉽지는 않다.

결국 이러한 전교 형식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도민들이 “현재까지 제주도내에서 종교적 이유로 신당을 훼손하거나 마을에서 무속식 제의에 대한 제제가 가해지는 경우는 대부분 기독교도에 의한 것이다.”⁴⁰⁾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개신교가 제주도에 형성되고 전파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37) 이아브라함병욱, “선교문화방법론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평가,”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14.

38) 이아브라함병욱은 이러한 신구간에 대한 이기풍의 태도에 대해 “이기풍은 뱀에 대해서는 생활 현장에서 날마다 보고 심지어 집안과 부엌과 여인들이 치마로 감싸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성과 불결함 등의 이유로 교인집의 것만이라도 박멸하고자 하였지만 생활 자체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실제로 이 절기는 사단의 세력이 생활에 크게 작용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대항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같은 글, 109.

39)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 (2006), 184.

40)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濟州道研究』 20 (2001), 159.

2.1.3. 제주도 주민들의 정서와 의식구조의 특성

제주도 주민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몇 가지 특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적 유대감이 그들의 정서와 의식구조상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하여 다루어 볼 것이다.

제주민들은 제주라는 섬 안에서 누대에 걸쳐 자족적인 삶을 살아왔다. 외부와 왕래하기 어려웠던 생활환경은 그들의 삶의 범위를 제주라는 섬 지역으로 한정시켰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제주 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혈연적으로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고, “친족의 호칭이나 생활모습에 있어서도 부계친(父系親), 모계친(母系親), 삼족(三族)이 모두 친족적 유대를 갖는 경향”⁴¹⁾을 나타내도록 만들었다. 그에 따라 부계친을 바탕으로 한 문중의 개념은 자연스레 약화되었으며, 이윽고 혈연보다 지연을 더 중시하게 되었고,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서는 자연스레 친족관념이 적용되어, 혈연으로 얽히지 않더라도 ‘삼촌’, ‘조카’로 호칭하는 양상을 보이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주민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거를 차단하지 않는 문화적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지닌 친족관념 속에서 “이웃 간의 협동적 생활원리를 터득하여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분위기 속에서 주거공간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⁴²⁾기 때문에, 제주민들은 집에 대문을 만들어 자신들의 공간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조건이 빚어낸 삼무(三無)정신⁴³⁾ 중 하나인 大門無이다. 이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많은 지역자원들을 지역공유제로 유지하여 관리하였으며, 점차적으로 공동생활권 안에서 협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체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이처럼 강조되고 확대되어 나간 공동체성은 제주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41) 신행철, 『제주사회론』, 8.

42) 같은 책, 9.

43) 제주사회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자원이 제약되어 있고 열악한 생산조건 때문에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남을 줄 만큼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못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빌어먹을 필요가 없었다.(걸무, 乞無) 그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남들이 탐낼 만큼 가치물을 두드러지게 갖지 못했으며,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도둑질할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도무, 盜無). 또한 친족관념 속에서 이웃 간의 협동적 생활원리를 터득하여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와주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지켜주는 분위기 속에서는 주거 공간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대문무, 大門無). 같은 책.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으면서 공동의 정신세계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⁴⁴⁾하도록 만들었다.

이들이 지닌 공동체성에서 나오는 결속력은 특히 외부의 침입이나,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의 수탈 시에 더욱 발휘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통해 공동체적인 저항의식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섬이 “11세기 이후 고려와 조선과 같은 중앙 정치체제의 강력한 구심력에 이끌리면서”⁴⁵⁾ 한편으로는 순응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 탐라국으로서 독자적인 국가를 이끌어 나갔던 경험은 더욱 깊이 내면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화된 저항정신이 자주 민란으로 표출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정체성 형성 과정은 또한 제주민들이 제주 이외에 다른 지역을 모두 ‘육지’⁴⁶⁾라고 지칭하도록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결국 이는 육지부와 자신들에게 구별을 두어 자신들이 그들과 다른 존재임을 스스로 암시하고, 사고하게끔 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육지부를 선망하는 의식과, 동시에 강한 배타적인 성격을 갖도록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제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해의식⁴⁸⁾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여기서 오는 피해의식과 배타성은 제주로 내도해 들어온 육지인들이 제주민들에게 항상 외부인으로 인식되도록 하였고,

44) 최병길, 권귀숙, 강상덕, 김현돈, 한석지, 박찬식,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15 (1998), 119-120.

45) 같은 글, 125.

46) 제주사회에서 중요한 외부세계는 바로 ‘육지부’로 표현되는데, 육지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사회를 가리킨다. 이처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적절한 일상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카테고리화 매우 중요한 의식적인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육지’라는 말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통속적인 개념을 보면, 학교에서는 ‘바다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고, 집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 사용되어, ‘문명지’, ‘제주도에서 먼 거리’, ‘보다 더 넓은 세계’와 같이 인식된다. 그리고 이에는 육지부를 향한 ‘배타적인 태도’도 숨겨져 있다. 따라서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 선망을 하면서도 내집단 의식을 바탕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신행철, 『제주사회론』, 378.

47) 제주사람들의 육지에 대한 의식은 양면적이라 하겠다. 즉 “제주도 특유의 내집단 의식이 외지인 및 그 문물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나면서도 외부에 대한 선망 역시 그에 못지않게 잠재되어 있다” 박재환,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9 (1977), 633.

48) 제주사람들이 과연 외부사람들에 대해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과거에 육지부 사람들은 제주도민을 마치 미개인으로 생각하고 관광지의 부속물처럼 보아서 제주도민을 천시하고 신기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던 사례를 보아 제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식 안에는 이처럼 자신들이 천대받는다라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행철, 『제주사회론』, 385.

거부감을 일으키게끔 하였다. 제주 출신 현기영의 소설에서도 이러한 예가 나타나는데, 이 소설에 등장한 인물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제주민들의 의식을 볼 때, 육지인들을 향한 배타적 정서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디 ... 장두 하르방이 육지사람이라, 정의골 백성들이 수이 모다들지 어떨지 모를로고...”⁴⁹⁾

“저 화전것들, 노망한 육지 늙은이한테 장두를 맡기더니 꼴 좋다! 육지놈을 믿느니, 썩은 도끼자루를 믿쥬, 원”⁵⁰⁾

특히나 제주민들이 반감을 느끼는 요소는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닌,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활양식을 지역 내에 퍼뜨리고 있다고 느낄 때에 더욱 심화된다. 특히나 이는 그들이 “이 지역에서 잠시 머물다 갈 생각으로 제주도에 오기 때문에 떠난 지역의 생활양식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는”⁵¹⁾것이라 생각하도록 만들며, 공식적인 역할로 오는 사람에 관하여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지역 엘리트계층 내에서도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결국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나, 문화와 전통 신앙으로 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정서상으로 보나 제주도는 전교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겨지며, 그러한 생각은 당시의 한국 교회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뛰어 넘어 관심을 표출하고 중요성을 인지하였던 인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을 향한 복음화의 노력은 점차 확대되기에 이른다.

49)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69.

50) 같은 책, 135.

51) 신행철, 『제주사회론』, 391.

2.2. 제주 초기 교회 형성 과정

2.2.1. 제주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선교적 관심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지역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여 조선까지 왔던 선교사들은, 제주와 본토 사이의 거리를 거리감으로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외진 변방의 땅을 여러 문화의 접촉점으로 이해하고 중요성을 간파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은둔의 왕국’이었던 한반도가 점차 서구인들에게 ‘금과 은의 섬(Goud-en Zilvereilanded)’, 일명 보물섬으로써 관심을 끌면서부터,⁵²⁾ 제한적이었던 제주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장되기 시작한다.

제주도는 ‘섬들의 체인’⁵³⁾의 안쪽에 위치한 ‘海中島’이며 고대 교역이 상당했던 쿠로시오 해류가 관통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⁵⁴⁾ 즉,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서양을 오고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제주에는 영국과 화란 등의 서양 선박들이 일본을 향해 가다 난파되어 표착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1653년 제주에 표착한 하멜 일행도 이와 같은 경우였다. 헨드릭 하멜(Handrik Hamel)이 작성한 여행기에 의해 'Quelpart'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제주도는 곧 서양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점차 해역도에 꾸준히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반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위를 관통하여 지나가야 할 관문이었던 만큼, 꾸준히 서양인들의 방문을 받게 된다.

이처럼 서양인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던 제주는 지정학적인 관심과 더불어 매력적인 선교지로 비춰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심은 특히 귀츨라프의 기록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52) 지명숙, B. C. A. 알라벤, 『보물섬은 어디에 :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85.

53) 섬들의 체인은 중국의 푸젠성에서 평후열도를 지나 포모사(대만)를 거친 후, 포모사에서 다시 류큐를 거쳐서 류슈의 가고시마까지 가는 섬들의 네트워크이다. 주장현, “16~19세기의 동아시아 해양세계와 서구인의 제주도 인식,” (제2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타자가 본 제주도’ 국제심포지엄: 제1부, 주변국가에서 본 제주도,” 2010년 09월 17일(금)~19일(일). 15.

54) 같은 글, 15-16.

“우리는 상상할 있는 모든 형태의 많은 섬들을 통과했다. 가장 남쪽에 있는 Quelpoert(lat, 32' 51', long. 126' 23')는 매력적인 곳이다. 이곳은 잘 개간되었고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 한 공장을 세울 수 있었다면 우리는 가장 쉽게 일본, 한국, 만주, 그리고 중국과 무역거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이 섬을 선교기지로 삼을 수 없을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선교기지를 설립함으로써 저들의 배타적인 체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조선 정부가 멀리 떨어진 이 섬에 어떤 통제를 해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곳에 거주하는 선교사는 뉴질랜드에 있는 선교사들, 라브라도르(Labrador)와 그린랜드(Greenland)의 최초의 복음 전파자들보다 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한다. 한 가지 진실은, 이들 섬들이 기독교를 접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⁵⁵⁾

귀츨라프의 위와 같은 언급은 제주도의 지리적인 위치가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연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며, 이러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과급될 수 있는 효과가 상당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적 관심의 등장으로 인해, 제주에도 조금씩 복음화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개신교 선교사인 윌리엄 베어드가 행한 순회선교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해리 로즈는 <북장로교 50년사>에서 베어드씨가 길가와 항구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부산항과 바다 건너 제주도(Quelpart)간의 연락을 통한 복음이 전해졌음을 언급한다.⁵⁶⁾ 이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인 1890년대에 베어드를 통해 제주에도 복음이 전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직접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인물도 있었다. 1898년 경, 알렉산더 피터스와 켄뮤어가 제주 선교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자 시도하였다.⁵⁷⁾ 여기서 피터스는 ‘제주도 방문(A Visit to Quelpart)’이라는 기행문을 남겨

55) Charles Gutzlaff, *Journal of the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with Notice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臺北: 成文出版社, 1968), 355-356.

56) Harry A.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ol. I 1884-1934* (Seoul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129.

57) Alexander A. Pieters, “Early Experiences of Korea,” *Korea Mission Field*, vol.25 (Aug.

그가 경험한 제주를 소개하며, 이 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일찍부터 시작된 제주를 향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후 1908년까지 개신교의 선교 시도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2.2.2. 천주교 전래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알려진 것은 1801년에 발생한 신유박해 때였다. 신유박해 때 체포된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마리아)⁵⁸⁾는 당시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먼 지역이었던 제주도로 유배를 오게 된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제주 본당 제 2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던 라크루(M. Lacroux) 신부에 의해서이다. 그는 추자도를 방문했다가 황사영의 아들인 황경한의 손자를 만나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샤르즈보프(E. Chargeboeuf) 신부에게 순교자 황사영과 황경한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을 서한으로 보낸다.

“내게 미래에 대한 좋은 희망을 주는 것은, 내가 지난해 6월에 추자도에서 황 알렉산델의 손자들과 증손자들을 방문하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는 사실이다. 황 알렉산델은 1802년에 순교한 신자로, 샤를르 달레의 교회사에 그의 전기가 다소 길게 언급되어 있다. ... 바로 나는 순교자의 후손들, 즉 세 살 때 추자도로 유배된 아이의 아들과 손자를 다시 찾는 무한한 기쁨을 누린 것이다. 신앙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참아 받은 한 집안을 불행하게 그대로 놔둘 수 있을 것인가?”⁵⁹⁾

1930), 176.

58) 정난주(마리아)는 정약현과 이씨부인의(丁若鉉)의 장녀로, 그의 부친 정약현은 정약중(아우구스티노)와 정약용(요한)의 이복형이며, 그의 모친 이씨부인은 이벽(요한)의 손위 누이이다. 또한 그는 1790년 무렵에 백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황사영과 혼인하였으며, 1801년 체포된 황사영이 11월 5일 대역 부도죄로 능지처사의 판결을 받은 후, 11월 7일 연좌제가 적용되어 그의 가족 모두 유배형을 받게 된다. 모친 이윤혜는 경상도 거제로, 부인 마리아는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의 노비로 유배되었으며 그의 아들 경한은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에 노비로 가게 된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2001), 44.

59) 위에서 이르는 황 알렉산델은 황사영의 세례명인 알렉시오를 이르는 것이며, 1802년도 1801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크루 신부의 1910년 7월 17일자 연말보고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1)

이러한 유배의 형태 말고도 배가 항해 중 표류하여 제주도에 표착했던 경우도 있었다. 김대건 신부도 그러한 경우이다. 김대건 신부 일행의 귀국을 위해 상해에서 마포 나루로 향하던 라파엘호는 바람에 의한 해류의 역류로 인해 곧 항해에 차질을 일으킨다. 그 결과 라파엘호는 표류하다 제주도의 부속 도서인 차귀도에 표착한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9월경에 (중국) 강남을 출발하였습니다. 큰 바다로 밀려나와 여러 차례 폭풍우에 시달렸습니다. 다음에 바람이 거세지고 키가 부러지게 되어 난파하지 않도록 돛대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항해를 계속했는데, 강한 역풍으로 제주도까지 밀려갔습니다.

우리는 조선 군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조금 후에 안드레아 신부는 그 섬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으며, 오래지 않아 서울로 가는 강 어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부님,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에 닿았고 고생도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엾은 안드레아 신부가 큰 오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1845년 9월 28일) 첫 번째 작은 섬에 닿아서 주민들에게서 우리가 도착한 곳이 우리가 상륙하고자 하던 곳에서 천 리 이상이나 떨어진 제주도로서 조선 반도의 남쪽 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놀라움과 고통이 어떠하였겠습니까?”⁶⁰⁾

표착에 의해 떠밀려온 여정이긴 하나, 이들이 표착했던 제주도의 서쪽 해안은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 뿐만 아니라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주교와 성 다블뤼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면서 처음 발견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결국 이 해안은 이들이 처음으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한 역사가 있는 천주교의 사적지(史蹟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⁶¹⁾

제주도로 천주교 신자가 탄 배가 표착했던 경우와는 반대로, 제주도민이 항해 중 다른 지역으로 표착하여 입교했던 사례도 있다. 바로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의 경우로, 제주목 함덕리 출신인 김기량은 1857년 1월 24일(양력 2월 18일) 그의 나이 42세 때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3집』(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253.

60) 페레올주교의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238.

61)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57.

문영환(文英煥), 박윤근(朴潤根), 한행문(韓行文), 문광철(文光哲) 등 4명과 함께 무역차 배를 타고 나가 서귀진에서 모슬포로 돌아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⁶²⁾ 거의 40일간을 표류하다 발견되었는데, 일행 중 김기량 혼자만 구출되어 영국 총독부를 거쳐 파리 외방 전교회 극동 대표부로 가게 되었다.⁶³⁾

김기량은 그 당시 홍콩 대표부에 있던 루세이유 신부와 조선에서 온 신학생 이만돌⁶⁴⁾을 만나 교리를 배우게 된다. 그 후 김기량은 ‘펠릭스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제주도 출신 첫 번째 신자가 된다.

김기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교리를 전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860년경에 자신의 집안 식구 20여 명 가량을 천주교에 입교 시켰으며, 자신의 배에서 일하던 선원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를 예비신자로 만들었다.⁶⁵⁾ 그 후 일본 해안에서 난파하여 표류했을 때에도 일본 나가사키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 프티장(B. Petitjean) 신부를 만나고 돌아왔으며, 병인박해 직후 예비신자 2명을 데리고 다시 한 번 육지로 나온 적이 있었다.⁶⁶⁾

이후 제주 초대 본당 주임으로 임명된 페네(C. Peynet)신부는 1899년 6월, 김(金)이라는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 아마 그가 김기량의 전교 활동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한다. 페네 신부가 1899년 10월 30일에 보낸 서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김이라고 불리는 이 착실한 사람은 1866년 박해 전에 공부를 했고, 베르뇌 주교에 관해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자로 쓰인 공과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해 대에 그는 조용히 있었고, 몇 년 후에 다시 종교를 공부하려고 했지만 목사가 그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 곤장을 때리고 책들을 압수한 뒤 귀양을 보냈습니다.

62) 함풍 7년 5월 14일조 기록, 『제주계록』(제주: 서귀포시, 1995), 276.

63)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63.

64) 1854년 3월, 최양업 신부는 파리 외방전교회에서 극동의 신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페낭(Penang) 신학교로 김(金)요한과, 이(李)만돌 바울리노, 임(任) 빈첸시오(任神生)을 보낸다. 여기서 이 바울리노는 건강상의 문제로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가 있는 지역인 홍콩으로 보내졌으며 그 곳에 있던 루세이유(J.J. Rousseille)신부의 지도를 받는다. 김기량은 이 바울리노에게 교리를 배운 뒤 루세이유 신부에게 세례를 받게 된다.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59.

65) 샤를르 달레/安應烈·崔奭祐 譯註, 『韓國天主教會史 下』(왜관읍: 분도出版社, 1980), 280.

66) 같은 책, 280-281.

그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참고 견딘 고통들을 회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거의 종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고, 유일한 참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종교를 따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⁶⁷⁾

이처럼 김기량은 자신이 알게 된 교리를 전하고 실천하는데 매우 열심이였다. 예비 신자들을 데리고 육지로 나가 성사를 받게 하였으며, 신앙에 관한 글을 지어 신앙을 권면하고, 자신의 신앙심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1866년에 발생한 병인박해로 인해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게 된다. 그의 죽음 이후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는 잠시 단절되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천주교의 복음이 제주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프랑스 선교사들의 계속되는 입국과 전교 활동, 그리고 1886년 6월 4일에 체결된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이듬해 5월 31일부터 비준되어 효력이 발생하자, 전국 각 처에는 도(道)와 군(郡)단위로 본당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한불조약의 체결로 인해 천주교회에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었고, 외국인 선교사들도 치외 법권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신앙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현실이 가져온 결과였다. 성직자의 수도 점차 많아졌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교세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되어 가고, 성직자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되자 뫼텔주교는 1899년 연례 피정 직전에 제주도에도 성직자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페네(Jean-Charles Peynet)신부와, 김원영(金元永)신부를 제주로 보낸다.⁶⁸⁾ 이들은 5월 26일 산지향에 입항한 후 28일 첫 미사를 드린다.⁶⁹⁾ 그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제주인들은 “거칠고 다분히 미개하며, 타향인들을 불신하고, 무엇보다도 미신행위에 매우

67) 페네신부의 1899년 10월 30일자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 39-41.

68) 이들이 임명된 1899년 4월 22일을 ‘제주 본당의 설립일’이라 보고 있다. 이처럼 본당이 설립되기 앞서 제주도에 이미 양용창과 이(李)라우렌시오가 육지를 오고가며 신앙을 받아들인 후, 그의 고향인 중문면 색달리 인근에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柳洪烈, 『(增補) 한국 천주교회사 下』(서울: 가톨릭출판사, 1981), 364.

69) 페네신부의 1899년 7월 27일자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 17-21.

열중하는”⁷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이 섬에서 전교를 하고 사목활동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페네신부는 전임을 요청하여 1900년 전북의 수류(水流)본당으로 옮겨갔으며, 그 곳에서 재임하던 라크루(M. Lacroux, 具瑪瑟 마르첼 리노) 신부가 제주 본당으로 옮겨와 제 2대 주임이 된다.

라크루 신부가 부임하고, 곧 김원영 신부가 한논지역(현, 서귀포시 호근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제주에는 제주 본당의 첫 번째 자본당인 ‘한논 본당’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에서 전교활동은 활발히 진행되어, “예비 신자들이 근 400명이 되고 영세자는 50명입니다. 그 동안 칸 집과 마당까지 주일과 침례(축일) 때는 사람들로 가득 찰 정도로 크게 변했습니다.”⁷¹⁾라는 내용의 서한을 뫼텔주교에게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교세가 성장하였다. 입교한 신자들 층은 제주로 와있던 유배죄인들, 입도한 관리들, 제주지역의 향리나 하급관리, 무관들, 그리고 상민, 빈민층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유력가들이나 중간계층 인물들은 천주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 천주교회는 “본당이 설립된 지 1년 만에 두 개의 본당으로 분할될 정도로 전망이 아주 밝았”⁷²⁾으나, 분할된 지 1년 만에 신축교안이 발생하면서 전교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 신축교안은 ‘제주교안’, ‘신축교안’으로 불리기도 하나, 제주에서는 ‘이재수의 난’, ‘제주민란’으로 불리며 이 사건에 대한 시각이 갈리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⁷³⁾

사건이 발생한 1901년 당시, 천주교를 바라보는 제주민의 시각과 제주민을 바라보는 천주교 신부들의 인식이 서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천주교 신자가 된 자들

70) 1899년도 보고서, 『서울교구 연보 I』(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259.

71) 김원영 신부의 1901년 1월 28일자 서한,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69.

72)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89.

73) ‘이재수의 난, 제주 민란’이라 부르는 까닭은 이 사건이 세금 징수와 관련된 학정, 천주교회의 폐단에 대해 반발하여 일으킨 민란이라 보기 때문이며, ‘교안’이라 부르는 까닭은 결국 이 사건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므로 박해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천주교에서는 이 사건이 1) 공식적인 박해가 끝난 뒤에 일어났고, 2)박해나 민란의 요소가 함께 있으며, 셋째, 그 여파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고, 4) 사건의 배경과 과정에는 교회와 일반 민중과의 갈등, 제주사회의 특성, 교회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주의 신축년 교안” 혹은 “신축교안”이라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주장한다. 같은 책.

가운데에는 열심히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당시 라크루(Lacrou), 즉, 구마슬(具瑪瑟) 신부를 비롯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치외 법권적인 특수권력⁷⁴⁾에 의탁하기 위해 교회에 입교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권력을 이용하여 도민들의 원성을 산 봉세관 강봉헌과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천주교 측은 제주도의 지방관, 토착세력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신감이 신자들에게도 연결되어 결국 신자들도 지역의 관이나 토착민들과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천주교 신부들에게 의지하여 해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화되어 직접적인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교회는 월권을 가지고 지방민들을 억압하였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입교하였던 신자들이 그 지역민들을 탈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던 신목을 베어 버리고 신당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김원영 신부가 당시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오신락 자살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제주민들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점차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결국 신축교안(또는 ‘이재수의 난’)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당시 천주교 측에서는 이 교안의 원인으로 교세의 확대에 따른 비신자들과 무당들의 모함과 질시, 세금 징수의 폐단과 조정에서 파견된 봉세관의 착취로 인한 지방관들의 선동과 민란, 1901년 2월 9일에 발생한 오신락 사건의 책임을 교회에 돌린 것, 상무사의 폭동, 이 네 가지의 사항을 지적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당시 제주민들이 천주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증상모략이 가장 컸다고 여겼으나, 결국은 위에서 서술한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건이었다.⁷⁵⁾ 결국 1901년 5월 6일 봉세관의 세폐와 교회의 폐단을 문제시하여 오대현, 이재수, 강우백, 명사원, 강백이 등이 참석한 민회가 열렸으며, 앞서 언급한 이 인물들의 지휘 아래 난(難)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제주 군수였던 김창수는 민군 측을 해산시킬 수 없을 것이라 믿었으며, 또한 조선 당국이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온적이라 여겼던 프랑스 신부들은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포티에(Pottier)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⁷⁶⁾하였다.

74)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01년 신축교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30-34.

75)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90.

결국 프랑스 전함 알루에트호와 쉬르프리즈호(또는 서프라이스호)가 5월 30일 제주에 입항하였으며, 이 난은 차차 진압되었다.

당시 천주교 신자 수인 1,000명 중 300~350명 정도가 피살되었으므로, 그 희생 정도는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런데 이 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봉헌과, 유배자 중 천주교도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용호, 이범주, 장운선, 그리고 대정상무사 대표로서 교도와 민중의 분규에 관여되었던 채구석 등이 구속되었고, 민란을 주도했던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등 삼장두도 구금⁷⁷⁾되었으나, 재판 과정은 삼장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⁷⁸⁾ 이재수, 오대현, 강우백, 이 삼장두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으나 김남혁, 조사성, 고영수 등 11인은 외역형(外役形)의 가벼운 형벌이 내려졌고, 채구석과 강봉헌도 결국은 풀려나게 된다. 또한 프랑스 공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배상금 5천1백60원을 청구하는데, 결국 이 배상금도 논란이 거듭되다가 “3년 후인 1904년(광무 8) 6월에 6천 3백 15원을 제주도민이 부담”⁷⁹⁾하게 됨으로써 제주민들의 불만은 한층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 측의 해석처럼 이 사건이 봉세관의 세폐, 제사와 우상을 금하는 등 관습을 개혁함으로 생겨난 제주민과의 갈등, 생활의 위협을 느낀 무당들이 천주교에 가진 반감이 작용되었으며⁸⁰⁾, 결국 이로 인해 “향촌사회 내부의 기득권 싸움 과정에서 교회가 희생당한”⁸¹⁾사건일지도 모르나, 제주민들에게는 제주도에 들어온 지 채 2년이 안 되는 천주교가 신당을 파괴하고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로 몰아 부치는 등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유림 세력과 민중들이 힘을 합쳐 천주교도들을 몰아내려 했”⁸²⁾던, 즉 결국 외래 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적극적인 반항이었으며, 이러한 행동이 “외국 신부와 관련하여 국제문제로까지 발전하는 후유증”⁸³⁾으로 나타났던

76) 뫼텔 주교가 파리에 보낸 1901년 6월 13일자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213.

77)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저, 『濟州道誌 第2卷』 (제주: 제주도, 2006), 551.

78) 심리관에 법부 관계자 외에 라크루(구마실), 무세(문제만) 등 신부와 불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삼장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79)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저, 『濟州道誌 第2卷』, 552.

80) 柳洪烈, 『(增補) 한국 천주교회사 下』, 366-367.

81) 朴贊植, “한말 천주교회의 제주교안 인식-뫼텔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207.

82)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제주도연구』 22 (2002), 21.

사건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제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로 인해 제주민들은 한국 정부의 미력함과 동시에 이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를 “압제당하는 백성들의 보호자가 아닌 군림하여 지배하는 권력집단”⁸⁴⁾으로 이해하여 그들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부정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곧 이들이 서양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했으며, 그 여파가 이윽고 전개된 제주 개신교 포교에도 영향을 끼쳐, 이들이 전도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도록 한다.⁸⁵⁾

2.2.3. 개신교 전래

“원산 대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교회의 대부흥 운동은 한국교회의 외형적인 틀을 다져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선교 열을 가속화”⁸⁶⁾시킨다. 이러한 시도는 곧 제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제주 개신교의 역사는 선교사 이기풍이 제주에 입도한 1908년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⁸⁷⁾ 그러나 제주에는 이미 육지부에서 개신교를 접하고 받아들였던 인물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또한 그 이전에도 제주도 지역에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들어가 전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899년부터 제주도에 들어가 있었던 몇몇 가톨릭 신부들의 서한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인들(프로테스탄트 목사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은 엽전만으로 제주도 사람

83)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저, 『濟州道誌 第2卷』, 544.

84)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122.

85) 강문호와 문태선은 “이재수난으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본도인의 오해는 더욱 커졌고, 이 때의 감정이 크게 작용되어 후일 천주교뿐만 아니라 신교의 복음전도 사업에 크게 지장을 가져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도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적하였다.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서울: 大韓예수敎長老會總會, 1978), 26.

86) 박용규, “초기한국장로교 해외선교,” 『신학지남』 71 (2004), 84.

87) 이에 근거하여 2008년을 제주도 선교 100주년으로 기념하고자 제주도 교단 협의회는 대규모의 기념 행사 및 기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합동측,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측의 교단이 2008년 총회를 제주도에에서 개최하였다.

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음력 3월에 다시 돌아올 때, 예수교를 배우는 첫 한국인들에게 매달 100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런 달콤한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거래를 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⁸⁸⁾

“군수들을 조종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프로테스탄트인 이홍직인데 그는 대신 집을 들보는 사람한테 이 섬에서 추방당했습니다.”⁸⁹⁾

“세계는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어나고 있는 개종의 움직임을 감지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와서 자칫 학살될 뻔 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거의 벌거벗고 있는 빨래터에 설교하러 가거나 그곳을 배회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이 며칠 더 머물러 있었다면, 사람들이 이 일로 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⁹⁰⁾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서술이기는 하나 이러한 서한의 내용을 볼 때, 이기풍의 경우처럼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위치는 아니었지만 개신교인들이 제주도내 내려가 자신의 신앙을 전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노회를 설립한 한국교회는 이와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의를 내리고,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한국인 목회자 7인 중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제주도에 파송한다.⁹¹⁾ 이에 대한 내용은 제 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회록에 기

88) 페네신부의 1899년 7월 21일자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 27.

89) 김원영 신부의 1900년 3월 22일자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 61.

90) 라크루 신부의 1900년 8월 12일자 서한,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 -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3집』, 33.

91) 1907년 6월 20일에 평양 선교부 신학반을 졸업한 7명의 학생 길선주(吉善宙), 방기창(邦基昌), 송인서(宋麟瑞), 한석진(韓錫晉), 이기풍(李基豊), 양전백(梁甸伯), 서경조(徐景祚)를 목사로 임직시키기 위해 서는 노회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하는 4개 장로교 선교회(북장로회, 남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는 본국 교단의 허가를 요청하여 4개 선교회가 하나의 노회를 설립하였다. 설립한 노회는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이는데, 여기서 졸업생들에게 안수례를 통한 목사 임직식을 거행한다. 여기서 탄생한 최초의 한국인 목회자 7명 중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 길선주 목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목사로, 나머지 다섯 명은 전도목사로 임직을 받는다. 제주도는

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⁹²⁾

- “一 제주에 선교스(선교사)를 보내어 전도를 시작할 일
- 二 선교스의 월근과 전도 용비는 각 교회에게 감사헌 마음으로 연보항게 부탁할 일
- 三 연보항 때는 각 교회에서 연보항 편지 보는 주일에 광고항고 그 다음 주일에 연보항 일
- …
- 一 새로 장립항 목사 칠인중 일인을 선교스로 파송할 일
- 二 리기풍씨를 제주 선교스를 보내되 월근은 전도국에서 지출할 일”

이에 따라 이기풍 선교사는 1908년 초 제주도에 도착하게 된다.⁹³⁾ 이기풍이

국내이지만 특성상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해외선교지로 구분되어 전도목사가 아닌 선교사를 파송하였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다른 여섯 명의 목사들은 “전도목사” 또는 “동사무사”의 칭호로 국내 각지로 파송되었는데, 유독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라는 칭호로 국내 각지로 파송되었는데, 유독 이기풍 목사는 “선교사”라는 칭호로 제주도에 파송이 된 것이다. 제주도는 우리 국토의 한 부분이지만 오랫동안 “탐라(耽羅)”라는 별도의 명칭을 유지할 만큼 독특한 지역적, 종교문화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지역이기에 “선교사”라는 특별 칭호가 붙여진 것 같다. 더군다나 신축년 사건과 같이 이전에는 제주에서 발생한 천주교와 제주민중 간의 불화를 개신교가 밝아서 안된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으로 외국인 선교사에게 붙이는 선교사라는 호칭을 명명하여 그 책무와 의의를 단호히 하고자 했을 것이다. 제주성내교회사 편찬위원회, 『제주 성내교회 100년사』 (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성내교회, 2008), 99-100. 이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김형석은 그 때 당시 사람들이 한반도의 육지는 모두 내지로 보고 제주도는 외지로 보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파송했을 것이라 언급한다.

김형석, “초기(1901-1919) 제주도 교회사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4 (1991), 9.
92) 『대한예수교장로회 로회회록』, 16-17.

93) 이기풍의 입도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성안교회가 1984년에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으로 세운 ‘선교기념비’에서 드러나는데 이 기념비에는 “1908년 정월 그는 제주도 산지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 1908년 2월 1일 향교골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 이것이 이 땅의 첫 교회인 제주 성내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하지만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오기 전, 평양, 연동, 승동, 새문안교회를 거치고, 1908년 목포에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광주선교부의 훈련반 강의를 위해 광주로 가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이 있다. 제주기독교 10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제주 기독교 100년사(1908~2008)』 (제주: 제주노회, 2009), 50-52. 그리고 이기풍이 그 훈련반 강의를 마치고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운항 중에 풍랑에 휩쓸려 추자도에 잠시 머물렀던 사실이 있으므로, 제주에 도착한 시기는 2월 초 보다는 2월 말, 혹은 3월 초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성내교회 당회록 서문의 기록과 홍순홍이 이기풍 목사로부터 배운 ‘달 성경학교’ 학습 내용 중 언급된 1908년 2월 1일의 기록을 볼 때 아마 음력 2월 1일(당시의 양력 날짜로는 3월 3일이다)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모슬포교회 100년사 편찬 위원회, 『모슬포교회 100년사』 (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모슬포교회, 2009), 36. 박용규의 제주기독교회사에도 이와 같이 1908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기풍이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였다.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145. 이 책에서는 그 근거로 제주서문비교회당회 “서문”에 제주교회가 1908년 2월부터 시작

입도했던 당시의 상황은 그가 전도를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제주도 자체적인 가난의 문제와 더불어 당시 팽배했던 무속신앙과 문화, 육지인들에게 품고 있던 선입견, 그리고 1901년에 발생하였던 신축교난은 이기풍의 전도활동에 대해 사람들이 극심한 반감을 형성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이기풍을 예수교라는 사교를 전한다 하여 관가에 고발하는 등 제주 지역에서 내쫓으려 하였다.⁹⁴⁾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 본토에서는 이미 기독교 선교가 허락되었고 활발하게 선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때로서 관가에 의관 핍박이나 속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⁹⁵⁾ “언어가 통하지 않아 고통을 느꼈으며, 천주교인 학살 사건이 있던 다음이라 모두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볼 뿐 전도하는 말에 응하려 하지 않고, 더러는 맹렬히 반대하며 핍박했다.”고 이기풍의 딸 이사례가 증언하기도 한다.⁹⁶⁾

위에서 언급했던 데로 당시 제주도에 개신교를 믿는 신자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김재원⁹⁷⁾을 들 수 있는데, 먼저 김재원이 개신교를 접하게 된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사실과, 금성교회 당회록에서 3월 2차 주일부터 금성리(金城里) 양석봉(梁碩鳳)씨 댁에서 회집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박장래의 “이기풍선교사의 제주 선교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재인용하여 들고 있으나, 여기서 박장래는 이기풍 선교사가 제주도에 4월에 도착하였고, 이것이 선교의 출발점이지, 성내교회의 출발점은 아니며, 그러므로 제주도 최초의 교회는 금성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도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호남 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3. 또한 「금성교회 당회록」은 1907년 3월 10일 양석봉가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이사례 권사의 간증에서는 이기풍이 풍랑으로 인해 44일만인 4월 초순에야 제주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은 아마도 당시 목포에 있던 이사례의 가족이 44일 만에 인편으로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가 아마 1908년 4월 초순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서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기풍이 4월 초순에 제주도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94) 외국 선교사의 기록 「THE KOREA MISSION FIELD」를 보면 그 당시 200명 정도의 도민들이 이기풍선교사를 무력으로 축출하려고 했다.

“충분히 준비를 한 후에 이기풍 목사는 1908년 제주에 도착하고 제주도의 가장 큰 도시에서 그의 일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그는 저항에 부딪혔고, 극심한 박해를 견뎌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구 송문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는 군중을 진압하고 목사를 구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도를 했는데, 밤이 되자 아무도 그에게 그들의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자야만 했다.” J. S. Nisbet, “Meet My Friend - Rev. Yi Ki Poong,” Korea Mission Field, vol.23 (Nov. 1928), 229.

95)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제주노회사』(제주: 大韓예수敎長老會 濟州老會, 2000), 26.

96) 이사례, 『순교보』(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991), 47.

97) 제주 성내교회 100년사에서는 이기풍을 제주도로 선교사 파송을 한 연유가 자신이 나름대로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쪽복음을 읽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평신도로서 교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함에 따라 목회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자신을 치료해

연유는 다음과 같다.

“김재원(金在元)장로는 음력으로 1978년 10월 5일 김진철(金進哲)의 외아들로서 이호리에서 태어났다. 살림이 비교적 넉넉했으므로 일찍이 한학을 공부하였고 외아들이었던 만큼 귀동자로 자랐었다. 그런데 중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다. 그러나 가산은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악화되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서울에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풍설에 의하면 외국 의원들이 제중원(濟衆院)이라는 신식 약방을 차려가지고 병을 고치는데 거기만 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 당시 제중원의 의장은 어비슨(O. R. Avison) 박사 였는데, 멀리 제주도에서 중환자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직접 진찰을 하더니 “이젠 늦었소! 별 수 없소!” 하는 것이 아닌가? … 어비슨 박사는 “죽을 건 뻔한데, 죽기 전에 예수나 믿으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수술을 했던 것이다.”⁹⁸⁾

수술을 받은 김재원은 결국 살아났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제주 사람 중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가 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기풍은 곧 김재원을 만났고 그와 협력하여 제주 전도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재원 뿐만 아니라 홍순홍⁹⁹⁾, 김행권¹⁰⁰⁾ 등도 동참하여 활동을 해 나간다. 그들은 향교골에 있는 김행권의 집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열심은 곧 제주도 안에 성내교회가 설립되는데 큰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주었던 어비슨에게 편지하였다고 기술한다. ‘제주도에 목회자를 파송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줄 것과 동시에 전도도 해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하는데, 때마침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독노회를 창립하여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총회 때 어비슨 선교사가 이 편지 내용을 안건으로 붙였다는 것이다. 제주성내교회사 출판위원회, 『제주성내교회 100년사』, 94-96.

98) 전택부, 『토박이 신앙 산맥 2』(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240-241.

99) 홍순홍은 제주 성내에서 이기풍 목사의 전도를 맨 처음 받아들인 사람으로 기록된다. 이기풍 목사는 장터에서 처음 만나 호감을 느낀 그는, 이기풍을 자주 찾아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1909년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기풍 목사는 홍순홍을 “첫 열매”라 부르며 자랑하였다고 전해진다. 홍순홍은 1913년 김재원 다음으로 두 번째 영수가 되었으며, 1917년 4월 5일에는 김재원과 함께 장로 장립을 받았다.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제주: 제주성안교회, 2010), 111-112.

100) 김행권은 제주 성내교회에 예배 처소를 제공한 사람이다. 아마 위에서 서술한 니스벳의 기록에서 송문옥이라는 사람이 김행권을 이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이기풍이 제주도에 들어와 박해당할 때 옆에서 지켜준 인물이며, 힘이 강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로 교인들의 어려운 일, 굶은일을 대신하며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지냈다고 한다. 같은 책, 113-114.

“제주도 성내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에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이기풍이 당지에 래하여 산지포에서 전도할 새 경성에 기거할 시에 수세한 김재원을 봉착하여 협력 전도한 결과 홍순흥, 김행권 등이 귀주함으로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일덕리 중인문내에 초실을 매수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전도인 김홍련, 이선광등이 전도에 노력하니라”¹⁰¹⁾

또한 성내교회는 당시 제주도에 시급했던 교육문제를 절감하고 학교를 세운다.

“1908년(戊申) 제주도 성내교회에서도 남녀소학교를 설립하여 자녀를 교육하니라.”¹⁰²⁾

장로회 사기에 기록된 이 학교는 영흥학교(永興學校)로 1908년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이 학교는 1910년 즈음 이르자 점차 확장되어, “성경공부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수준의 각종 학과목을 가르침으로써 교회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이르게까지 폭 넓게”¹⁰³⁾ 가르쳐나간다.¹⁰⁴⁾ 그리고 성내교회는 교육과 함께 의료 부분에도 관심을 두어 선교병원을 세우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지 이기풍 목사의 부탁으로 광주 기독교병원의 원장 우월순 의사가 1912년 5월 성내교회를 찾아 와서 의료 활동을 베풀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3년 동안 제주도에 병원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 지난 5월에 방문

101) 車載明 편, 『(朝鮮 예수教)長老會史記 上』(京城: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28), 274.

102) 같은 책, 278. 1908년 9월 경성 연동예배당에서 열린 노회의 「로회 회록」은 이미 1908년 원입 교인 9명과 매주 모이는 20여명이 모이는 제주도 내의 교회가 있음을 진술한다. 「예수교장로회대한 로회 데이회 회록」, 7. 이것을 성내교회의 설립이라고 보고 있으나,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의 기록은 성내교회의 설립년도를 1910년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내교회가 1908년 남녀소학교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현재 제주성안교회는 이 1908년의 교육 기록을 근거로 이미 성내교회가 1908년에 세워졌으며, 성립이 1910일수도 있으나, 시작된 것은 이미 1908년이라 주장하고 있다.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108-109.

103) 같은 책, 120.

104) 당시 제주도에 1907년 4월에 개교한 서양식 공립학교인 ‘제주공립보통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모두 일본인 교사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가톨릭 측에서도 제주 여성의 신교육을 위해 1909년 10월 18일에 신성여학교를 설립한다.

하였으며, 나(우월순 의사)는 아침에 2시간씩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밤에는 찬양(예배)를 인도하였다. … 치료받으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들 4사람은 이들을 잠잠케 하였다. … 아침에는 50~7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오후에는 3~4건의 수술을 하였다.”¹⁰⁵⁾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주 교회는 점차 정착하여 나간다. 1908(1907)년부터 1915년 근간에 많은 교회들이 설립되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금성교회(1908(1907)), 제주도 애월면 금성리¹⁰⁶⁾

삼양교회(1908), 제주도 제주읍 삼양리

서문통(성내)교회(1908), 제주읍 삼도리

성읍교회(1908), 제주도 표선읍 성읍리

모슬포교회(1909), 제주도 대정면 모슬포

조천교회(1909), 제주도 조천면 조천리

용수교회(1913), 제주도 한림면 용수리

중문교회(1914), 제주도 중문면 중문리

한림교회(1915), 제주도 한림면

고산교회(1916), 제주도 한림면 고산리”¹⁰⁷⁾

또한 제 5회 독노회(1911년 9월), 창립총회(1912년 9월), 제2회 총회(1913년 9월)에 보고된 내용을 근거로, 제주교회의 정착과정에서 뚜렷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⁰⁸⁾

105) R. M. Wilson, “Medical Report of Kwangju Station,” Korea Mission Field, vol.7 (October 1912), 292-293.

106) 금성교회의 설립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24년 작성된 「금성교회내 주일회록」과 1950년 작성된 「조선예수교 장로회 금성당회록」에 금성교회의 시작이 1907년 3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형석은 이에 대하여 제주도 교회의 설립 연원은 금성, 성내, 조천교회 순으로 형성되었으나 장로가 장립되어야 당회를 조직하고 조직교회로 인정하던 장로교의 법도에 따라 정식교회가 설립된 것은 성내교회가 1917년 4월 5일로 처음이었고, 금성교회는 1928년 9월 26일에야 이덕연이 장로로 장립되므로, 이 때 비로소 당회가 조직되어 조직교회가 되었다고 정리하고 있다. 김형석, “초기 (1901-1919) 제주도 교회사에 관한 고찰,” 10.

107)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163.

기간	1910년 7월~ 1911년 6월	1911년 7월~ 1912년 6월	1912년 7월~ 1913년 6월
교인		세례인 50인	세례인 82인
		학습인 57인	학습인 84인
주일출석 수	160여 명	300여 명	400여 명
직분			피택장로 1인
		조사 1인	조사 1인
		영수 1인	영수 3인
예배처소	예배당 3	예배당 3	예배당 3
	예배처소 2	기도회처소 5	기도회처소 6
학교	재학생 17인	남학도 8인, 여학도 4인, 교사 1인	
학교비용			학교비용 42원 50전
성경공부		사경회 85인 공부 주일아침 120인 공부	
소아회			소아회 시작, 80인
연보 ¹⁰⁹⁾	81원 57전 6리	225원 31전 7리 (조사연보, 주일연보, 학교연보)	570원 95전 (예배당 잡비와 징축비)

[표 1] 1910년부터 1913년까지 제주 선교 현황

그러나 1915년, 이기풍 목사가 질병을 연휴로 육지로 떠나게 되고¹¹⁰⁾ 최대진¹¹¹⁾

108) 이 표는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133. 를 인용한 것이다.

109) ‘연보’(捐補)는 자기 재물을 내어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물질과 재정의 성격을 띤다.

110) 이기풍 목사는 광주로 가서 1년간 휴식을 취한 후 1916년 광주 북문안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그러다 다시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하였으며 1919년 10월부터 순천읍교회(현 순천중앙교회) 담임으로 부임한다. 1920년에는 전남노회 노회장을 역임하였고, 1921년 제 10회 총회장에 선출되었다.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143. 이후 성내교회에는 최대진목사, 김창국목사, 이창규목사, 김정복목사가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1926년 가을 김정복 목사의 사임으로 성내교회는 이기풍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였고 1927년 2월 다시 제주도 돌아가 제6대 담임목사로 재부임한다. 1931년에는 제 2회 제주노회장에 선출되었으나 직후인 1931년 7월, 성내교회를 사임하고 순천노회 벌교교회로 이명을 청원하여 제주를 다시 떠나게 된다.

111) 최대진 목사는 개척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나 제주선교를 위해 지지발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14년 열린 제 4회 전라노회에서 제주도 선교사의 수를 두 명으로 늘리자고

목사가 그 후임으로 부임하였다. 최대진 목사는 이미 1914년 8월 15일 제 4회 전라노회에서 ‘대정지방목사’로 파견된 윤식명 목사와 협력하여 제주 전교활동을 펼치는데, 산북지방¹¹²⁾은 최대진 목사가 맡아 동북으로 조천, 한동, 정의 모든 교회를 담당하였고, 윤식명 목사는 산남지방¹¹³⁾을 맡아 서남으로 수원, 대정, 모슬포, 중문 모든 교회를 담임 시무하였다.

1917년 제주도 최초로 성내교회에서 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된다. 이 때 장로로 장립된 사람은 “1912년 장로 피택을 받은 김재원과, 1915년 12월 장로 피택을 받은 홍순홍”¹¹⁴⁾이었다. 제주도에도 당회가 구성된 장로교회로서의 형식을 갖춘 교회가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점차 성장하던 제주교회는 당시 일제에 맞서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¹¹⁵⁾ 특히 당시 독립회생회에서 비밀리에 진행하였던 군자금 모금운동¹¹⁶⁾이 1919년 7월에 발각되었을 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많은 동지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¹¹⁷⁾ 자신이 군자금 모금의 주동자라고 밝히고 순국한 조봉호가 금성교회 설립에 큰 역할을 담당한 개신교인이었다.¹¹⁸⁾

건의했던 인물로서, 후에 전라노회가 선교비 부족으로 인해 전도목사 2인을 파송하기 어렵게 되자 자비량 선교를 신청하여 자비량 선교사로서 제주 산북 지역 전도활동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고 점차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러 만 5개월을 넘기지 못한채 1916년 8월 제 6회 전라노회에 제주 전도목사 사임서를 제출한다. 제6회 전라노회록(1916년 8월 25일, 전주 동문의 교회), 『제주노회연혁』 (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2008), 20.

112)한라산을 기준으로 북쪽 지역으로 제주, 삼양, 한림 부근 지역을 의미한다.

113)한라산을 기준으로 남쪽 지역으로써 한림, 협재, 서귀포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제주도에서 이르는 산남 산북의 구분과는 조금 다르며 아마도, 전도활동의 편의상 이처럼 구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4)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154.

115) “제주도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산북지방 김창국 목사, 대정지방 윤식명 목사, 동제주지방 임정찬 목사가 교회조직을 이용하여 만세시위 운동을 계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3.1운동사 하)』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626.

116) 당시 중국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군 육성을 위해 자금 5천만원을 국내에 요청하였고 이를 위해 조선독립회생회 김창규가 「임시정부 선전문」, 「해외통신문 제반사항」, 「통신사항」 등 3종의 문서를 가지고 제주에 들어온다. 김창규는 최정식·조봉호화 접촉하여 독립회생회를 제주 지역에 조직해 줄 것과 회원 1인당 2원씩을 군자금으로 모금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抗日獨立運動史』 (제주: 제주도, 1996), 186-187.

117) 김봉욱, 『김만덕전 : 의병항쟁기 및 조봉호전』 (제주: 제주문화, 1990), 139.

118) 조봉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1920년 4월 28일 순국한다. 정부에서는 1963년 대통령 표창 건국공로훈장이 수여되었고,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또한 이후 모슬포교회 광선의숙의 교사를 담당한 강규언이 군산에서 만세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검거되어 대구형무소에서 8개월간 복역하였다. 중문교회의 강문호도 군산에서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1년 6개월 형을 언도받고 대구에서 복역하는데,¹¹⁹⁾ 그는 후에 목사가 되어 제주도 전교활동에 힘쓴 인물이며, 대한예수장로회(통합) 제주 노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¹²⁰⁾

이처럼 시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제주 교회는 점차 발전해 나가는데, 이러한 발전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중요한 예로 ‘제주노회 설립’을 들 수 있다. 1913년 총회가 제주 전도사업을 전라노회에 위임하였으므로 전라노회에 속해 있다가, 1916년 전라노회가 전남·전북노회로 분립됨에 따라 전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던 제주 교회는, 1930년 6월 전남노회의 결의와 그해 9월 제 19회 총회의 승인에 따라 제주 노회로 분립되었다. 1930년 11월 14일 “제주 각 지방에 흩어진 17개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 목사 6명, 장로 7명, 언권 방조회원 3명”¹²¹⁾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노회가 열리는데, 제 1회 노회장으로는 최홍종 목사가, 부노회장에는 김재선 목사가 선출되었고 서기 이도종 목사, 부서기 부상규, 회계 김재원 장로, 부회계로 이덕련이 각각 선출되었다.

제주노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당시 전남노회가 제주선교를 지속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노회는 내심 제주노회를 분립시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었”¹²²⁾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당시 제주도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 여러 지방을 오가야 하는 과정에서 드는 교통비와, 목회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되어 전교 활동에 어려운 제주 교회의 실정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자체적으로 노회를 끌어가기에는 미약한 상태에 있던 제주 교회는 총회와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에 각각 재정 보조와 선교사 1인 파송을

애국장이 수여되었다. 또한 도민들이 뜻을 두어 1977년 건입동 사라봉에 모충사(慕忠祠)를 건립하였고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를 세웠으며, 2012년 11월 제주 애월읍 금성리에 위치한 가족 묘소 부근에도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비’가 설립되어 착공식이 열린 바 있다.

119)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45-46.

120)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168.

121) 같은 책, 208.

122)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353.

요청¹²³⁾하는 등의 협조를 구하며 노회를 운영해나갔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노회는 1930년 3월 10일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전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34년 2월부터 3월까지 성내교회당에서 성경학원을 여는 등 제주도 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나간다. 특히나 육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던 제주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성경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 제주도에 부임한 목회자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제주도 지역민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당시 성경학원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¹²⁴⁾

학년	과목
1년	마태, 신학, 창세기, 구약사기, 찬송가, 주교 조직법
3년	신학, 사사기, 구약사기 에베소, 골로새, 찬송가, 주교 조직법

[표 2] 당시 성경학원 교과과정(1934년 2월 27일 - 3월 21일)

그러나 이러한 제주성경학원의 운영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항상 존재하였는데, 실로 성경학원 건물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형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노회는 1936년 제 25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해 나간다. 특히 이도중 목사와 정순모 목사가 직접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1939년 “순 석재 四十평의 성경학원과 아연제 三十五평의 기숙사를 건축”¹²⁵⁾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제주도 지역 전교를 위해 노력하는 제주 노회의 활동에 이윽고 일제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 침략을 재개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사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여기서 신사참배를 강요”¹²⁶⁾하는데, 한국 전 지역에서 강행된 신사참배 강요가 교회라고 예외를 두지

123) 제주노회 제2회 활요 1. 지역상 관계로 부득이 노회는 조직되었으나 심히 미약함으로 전라 미순회에 선교사 2인을 파송하여 제반 사업을 부조하여 달라고 청원하기로 함 1. 본 노회 존재 관계가 有함으로 총회에 애원하여 년 배 원 금 幾年간 계속 보조토록 하기로 함. 「基督申報」 1931년 7월 22일자.

124) 제주노회 제 5회(1934년 5월 1-4일, 한림교회), 『제주노회연혁』, 62.

125) 「朝鮮예수敎長老會總會 第二十回 會議錄」, 126.

126)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서울: 기독교문사, 1990), 289.

않았듯이 제주 교회에도 이러한 압박이 가해지긴 마찬가지였다. 제주노회는 1938년 열린 제 9회 정기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일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 제9회 임시노회(1938년 6월 18일, 한림교회). 각 지교회의 독립된 청년면려회와 부인조력총회를 해산하고 노회 산하 한 부서에 편입
- 제10회 임시노회(1940년 1월 22일, 성내교회). 국민 총력 련맹회 제주노회 지명을 결성기로 가결
- 제11회 정기노회(1940년 4월 30일~ 5월 3일, 한림교회). 본회를 필한 후 신사참배하기로 가결
- 제11회 임시노회(1940년 11월 30일, 한림교회). 참석자들의 모든 이름이 일본식으로 개명됨. 일본 천황 2600년 봉축식 경성 신도대회에 참석할 대표 선정
- 제12회 제주노회(1941년 4월 29일~ 5월 2일, 고산교회). 노회참석자 전원 일제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국방헌금 모금
- 제12회 임시노회(1941년 11월 13일, 한림교회). 도내 교인들 대상 시국강습회를 열기 위해 평양신학교에 안내서를 배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17일 상모리 광장에서 거행될 비행기 헌납식에 노회장이 참석하기로 가결
- 제13회 제주노회(1942년 4월 28일~5월 1일, 성내교회). 현장에서 국방헌금 20원 50전 모금. 각 교회의 금종을 일치로 국방 헌납키로 가결¹²⁷⁾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예배의식에서도 일본어 사용, 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 천황 사진에 절을 하라고 강요했던 일제는 곧 1943년 5월 각 교단들을 해산시킨다. 그리고 해산된 교단들을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개편하여 통합시킴에 따라, 1943년 6월 10일 제주노회는 해산되고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제주교구’로 새로 편성된다. 일제에 순응하여 행동하였지만 그만큼 감당해야할 손실도 컸다. 심지어 당시 신사참배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던 남장로회¹²⁸⁾에서 제주도 교회를 지원해 주던 것을 중단해 버렸고,

127)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243.

128) 남장로회는 북장로회보다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강경하였다. 남장로회 신사참배 문제는 유일신론과 다신론간의 투쟁이라고 단정하고 여러 회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 이 문제는 본국 교회의 총무

특히 제주성경학교의 원장을 맡는 등 크게 조력하던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타마자(J.V.N Talmage) 선교사도 사임을 청원하였다.

해방되기 직전 1 년간은 약 20만의 관동군이 제주도에 주둔하여 전도를 군사 기지화 한다. 이 때 “서부교회를 비롯하여 한림교회, 모슬포 교회 등 제주도 중심 교회들은 일본군의 주둔소로 둔갑”¹²⁹⁾하는데, 이처럼 점차 압박하여 들어오는 일제의 태도에 결국 교회는 예배당마저 차출당해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교인들도 육지로 피난을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제주도 초대 장로였던 김재원 장로도 전라남도 보성으로 피난길에 올랐으며, 목회자인 임기봉 목사도 목포로 피신하였다. 어쩔 수 없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다. 당시 일제가 일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전부 육지로 소개시킴으로써, 제주 지역에는 강문호 목사와 조남수 목사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낸 제주교회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자 교회의 재건을 위해 힘을 내는데, 특히나 조남수 목사의 역할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조남수 목사는 1942년, 목회를 사임하고 귀농생활을 하고 있던 이도중 목사를 찾아가 함께 제주교회를 섬길 것을 청원하였으며, 고심하던 끝에 이도중 목사는 그 청원을 받아들인다. 제주노회가 이미 해산된 상황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도제직회’를 결성하여 1945년 10월 제 1차로 도 제직회가 모인다. 이 모임에는 40명이 참여하여 다음의 내용을 결의한다.

“1)해방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장소는 서부교회로, 모든 진행은 두 분 목사에게 일임하기로, 2)두 분 목사로 하여금 각 교회를 순방하며 성례를 거행하기로, 3)한림교회 강문호 목사를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각 교회에 교역자 청빙을 두 분

풀턴(C. Darby Fulton)이 1937년 한국을 방문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신사문제에 대해 정의하였다. 첫째, (일본) 정부가 정의하는 종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와 신도(神道) 사이의 어떤 차이도 찾을 수 없다. 셋째, 신사참배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 요소가 많다. 넷째, 투옥과 고문,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아래서 표현되는 한국인들의 의견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G. T. Brown, *Mission to Korea* (Seou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t. of Education, 1984), 154.

129)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253.

목사가 적극 서두르기로, 4)달 성경학교를 계속하여 우선 제직 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¹³⁰⁾

제주 노회가 다시 재건될 때까지 노회의 기능을 대신한 도제직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는데, 1947년 5월에 열린 도제직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합의된 내용을 볼 수 있다.

“1)2년 동안 노력해도 교역자 청빙이 안 되고 당분간 가망이 없다면 이런 현상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 우선 큰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함으로 서부교회와 모슬포교회에 목사를 배치하게 한다. 2)산북 지방은 이도중 목사로, 산남 지방은 조남수 목사로 담당 순시케 한다. 3)이 목사가 가정 형편 상 고산에 거주하면서 순시케 해 달라는 요청은 그대로 허락하기로 한다.”¹³¹⁾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제주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목회자 청빙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제주 교회는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시 제주 전체를 휘감고 있던 좌·우익 대결의 분위기는 곧 전 지역을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가는데, 이러한 틈에서 교회라고 결코 안전할 리는 없었다. 결국 이 사건은 제주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데, 당시 4·3로 인한 희생자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¹³²⁾

130) 趙南洙, 『趙南洙牧師 回顧錄』(서울: 善瓊圖書出版社, 1987), 129-130.

131) 모슬포교회 제직회록(1947년 9월 29일), 『제주노회연혁』, 100.

132)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64.

직분	성명	소속교회	피해상황
목사	이도중	화순	공비에게 납치되어 피살됨
장로	허성재	모슬포	야간에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집사	부양은	김녕	야간에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집사	진시규	중문	노중 공비에게 납치 피살됨
교인	오대호	중문	자택에서 공비에게 납치 피살됨
교인	진학인	중문	노중 공비에게 납치 피살됨
교인	임명선	서귀포	교회당 소각 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오병필	서부	사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오병필 동생	서부	사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최순임	모슬포	승차 운행 도중 공비의 습격으로 피살됨
교인	허영국	모슬포	국군의 오발로 인해 사망함
교인	고창선	모슬포	국군의 오발로 인해 사망함
교인	권찰	삼양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학생	삼양	자택에서 공비에게 피살됨
교인	김승은	두모	승차 운행 도중 공비의 습격으로 피살됨
교인	지성익	대정영락	은신 중 폭도 혐의를 받고 국군에게 피살됨
교인	지성익 동생	대정영락	은신 중 폭도 혐의를 받고 국군에게 피살됨

[표 3] 제주 4·3사건으로 인한 제주교회의 희생자 목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귀포, 협재, 삼양, 조수 세화(사택)교회가 소각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¹³³⁾

일제의 탄압에 의해 무너진 제단을 미처 다시 쌓아올리기도 전에 발생한 4·3사건으로, 제주 교회는 다시 한 번 크게 흔들렸지만 곧 이를 수습해 나간다. 특히 당시 모슬포교회의 조남수 목사는 제주 지역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수선무강연을 해 나갔으며, 신원 보장을 통해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 내기도 하였다. 또한 1947년 다시 제주로 돌아왔던 강문호 목사도 1949년 4월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제 35회 총회에 ‘전도목사 파송청원 건’을 올려 제주교회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1949년 6월에는 “고산교회당에서 노회를 소집하여 4·3사건으로 순교 또는 희생당한 성도들을 위한 추도식”¹³⁴⁾을 진행한다. 또한 제 20회 제주노회에서는 ‘제주도 부흥전도대’¹³⁵⁾를 조직하여 많은 결신자들을 얻기에 이른다. 이는 “1950년 6·25전쟁 이후 피난교인들이 제주도에 입도하여 각 지역에 흩어져 전도하는 활동으로 연결되어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설립되는 계기”¹³⁶⁾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제주 개신교가 제주도 안에서 뿌리내리고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은 시대적인 어려움과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갈등을 항상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며 복음화를 이뤄낸 뜻 깊은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개신교에 귀의하여 제주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 교회가 성장하는 각 과정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한 한 인물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도종이다. 이도종의 생애 자체가 제주 초기교회의 역사이며, 그의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선교지로 설명되던 제주의 교회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재건되는 제주 교회로 전환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33) 4·3사건으로 인한 순교, 희생, 『제주노회연혁』, 101.

134)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66.

135) 부흥전도대는 목사 일곱 명, 전도인 일곱명과 각 교회에서 지원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제주읍 동부에서 성산포(송영호, 최희준 목사), 성산포에서 서귀포(한기춘, 김윤옥 목사), 서귀포에서 고산(조남수, 김영모 목사), 고산에서 제주읍(강문호, 이운학 목사)으로 구분하여 전도활동을 펼쳐나간다.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264-265.

136) 같은 책, 265.

이처럼 제주 교회 발전의 한 가운데 서서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주 교회를 일궈낸 이도종 목사의 목회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제주 교회 형성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장부터는 제주교회가 한국 최초의 선교사 파송으로 시작하여 여러 지역 노회의 도움을 받으며 틀을 잡아가던 전기와, 일제에 의한 압박과 해방 후 연이어 일어난 4·3사건으로 인해 폐허가 된 제주 교회를 제주 출신 목회자들의 의지로 일으켜 가던 후기로 나누고, 이러한 제주교회 형성의 전후 과정을 이도종이라는 인물의 생애와 목회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제3장. 제주 초기교회 형성 전기:

이도종의 성장기와 전기 목회활동(1927-1938)¹³⁷⁾

개신교 신앙이 제주에 전해졌던 당시의 지역 분위기에서, 제주민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제주 교회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제주교회의 교인들도 주위의 우려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을 지켜나갔다. 이도종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도종의 아버지인 이덕련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특히나 열심이였으며, 이도종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이도종의 성장 배경은 점차 이도종이 자라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서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후, 목사가 되어 제주 지역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도종 목사의 성장배경, 학창시절과 더불어 본 논문에서 이도종 목사의 전기 목회활동으로 지정한 김제읍, 제주에서의 초기 목회사역은 그가 앞으로 제주 교회를 담당하여 성장시켜나갈 목회자라는 가능성을 증명해주었던 시기였으며, 희망의 시기였다. 이렇듯 이도종이라는 인물의 가능성과 희망을 동력으로 한 초기 제주 교회의 행보를 이 장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137) 이도종 목사의 전기 목회활동시기를 이도종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던 1927년부터 그가 제주노회장으로 재선출되어 활동하면서 제주교회의 발전을 위한 진취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던 193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3.1. 이도종의 성장기와 학창시절

3.1.1. 이도종의 출생과 성장 배경

이도종은 1892년 9월 13일, 아버지 이덕련과 어머니 박열선 사이에서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873년 대원군의 쇄국정치가 끝나고, 굳게 걸어 닫았던 나라의 문이 열리며, 개화의 물꼬가 트여나가던 때에 성장한 이도종의 아버지 이덕련은 당시 시대에 걸맞게 의식이 트인 개화사상의 담지자였다. 서양에서 개화의 바람을 함께 타고 들어오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러한 그의 의식적인 배경 탓으로 여겨진다.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上)권에 나와 있듯이, 금성교회가 “李德年¹³⁸⁾의 家를 예배 처소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의 의식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처음 기독교에 대해 접하게 된 것은 유학생할 당시 기독교에 대해 듣고 신앙을 키웠던 조봉호¹³⁹⁾에 의한 것으로 흔히 설명되어지고 있다. 조봉호는 1907년 이른 봄, 자신의 고향인 금성리에서 자신의 유학 생활¹⁴⁰⁾에 대해 전하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한다.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조봉호의 친척들과, 이도

138) 여기서 年은 連의 오기이다. 덕련(德連)이라는 이름의 련(連)자의 발음이 ‘연’과 비슷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정교회에 있는 이도종 목사 순교기념비에도 이처럼 덕련(德年)이라 기록되어 있다.

139) 조봉호는 제주도에서 일제시대 당시 독립회생회 군자금 모금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항일 운동인사 대표 인사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다. 제주도문화체육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抗日獨立運動史』, 186. 그는 또한 일찍이 제주도 초기 기독교 정착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서 제주 금성교회와 성내교회 설립에도 그의 공헌이 컸다.

140) 조봉호의 유학생할에 대해서는 흔히 경신과 송실학교에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많은 책에서 그가 송실학교 유학 당시에 기독교를 접하고 방향을 맞아 귀향할 때 기독교에 대해 전했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김봉옥이 저술한 『조봉호전』에서는 그가 원두우(元杜尤)가 설립한 경신학교에서 수학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시작되었으며, 광무 8년(1904)에 부친의 사망으로 귀향할 수 밖에 없었고, 1912년 29세의 나이로 이기풍 목사와 의논하여 평양 송실전문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출륙하였으나, 가정 형편으로 인해 1년 만에 귀향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봉옥, 『김만덕전 : 의병항쟁기 및 조봉호전』, 131-133.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송실학교를 다니고 있던 조봉호의 평양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이도종이 송실학교에 입학했다는 서술은 맞지 않은 것이 된다. 이도종이 조봉호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10년 10월에 송실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이다.

중 형제들을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양석봉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모임은 꾸준히 지속되지 못했던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모임이었다.

1908년 봄, 선교사 이기풍이 제주도에 도착한다. 제주에 도착한 이기풍이 전도를 다니던 초기에, 이도종의 아버지 이덕련도 그를 만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후 이덕련은 이기풍 목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장로회 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 금성리교회가 성립하다 독노회 설립 당시에 파송한 전도목사 이기풍과 매서인 김재원 등의 전도를 인하여 조봉호, 이도종, 김씨 진실, 조운길, 양석봉, 이씨 승효, 이씨 자효, 김씨 도전, 김씨 유승, 좌징수, 이의종이 귀도하여 조봉호가 회집 기도하다가 이덕련 가를 예배처소로 작정하니라”¹⁴¹⁾

이처럼 이덕련은 제주도에 사교, 외래 종교로 비취지고 있던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며, 또한 이덕련의 가족 전체가 “제주 기독교 역사의 초두에 한 가족 거의 전원이 믿음의 식구가 되는 기적”¹⁴²⁾을 이룬다. 이덕련의 친족들은 그의 이러한 변화를 좋지 않게 여겼으나, 이덕련의 결단은 흔들림이 없었다.¹⁴³⁾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덕련은 교회당을 짓는데 많은 헌금을 하는 등, 교회를 위해 힘써 나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점차 집안의 경제가 악화되어, 살던 집을 팔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자 이덕련은 장사를 하기로 결심하고는 ‘상해양행(上海洋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식 물건을 들여와 장사를 시작하였다. 이덕련은 이곳

141) 車載明 편, 『(朝鮮 예수教)長老會史記 上』, 265-266.

142) 김종희, “제주도 1호목사-순교자 이도종,” 68.

143) 이도종 목사의 전기인 『거친 바다의 풍랑을 딛고』을 보면 “이덕련 가족의 기독교 개종은 문중 어른들의 미움과 분노를 샀다. 그들의 박해는 이외로 심했다. 선대로부터 믿었던 유교를 버리고 혹세 무민하는 사교, 서양 종교에 미친 이덕련을 잡아다 설득을 하고 갖은 협박을 가했으나 전혀 해오하는 기미가 없자 구타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국 문중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문중 제사나 각종 행사에 불청객으로 따돌림을 받았다. 예수를 위해 선조들이 숭상하던 유교와 전통을 버린 것이다”라고 서술하는 내용이 있다.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랑을 딛고』(제주: 제주노회, 2010), 38-39. 하지만 제주도의 친족문화를 일컫는 권당문화를 보면 촌락내혼의 혼인망으로 인해 혈연집단의 좁은 문중조직은 약화되어 있으므로 문중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며,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화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455-456 참조.

에서 성경과 찬송가와 같은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도종은 그의 아버지가 상점을 열고 장사를 시작하자, 아버지를 돕기 위해 다니던 서당을 그만두고 점원 일을 하게 된다. 이도종은 여기서 일을 하며 한학, 신식 학문에 대한 책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여러 책들도 함께 접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도종은 기독교와 관련하여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3.1.2. 평양 숭실학교 유학과 협재리 전도인 파송 시절

기독교 신앙과 밀접한 성장기를 보냈던 이도종은 1910년 19살이 되던 해에 이기풍 목사의 추천을 받고 평양 유학길에 오른다. 이도종이 다니게 된 학교는 숭실학교로, 10월부터 시작하는 새 학기에 1학년으로 입학한 그는 그 당시 숭실학교의 교과 체계에 따라 다양한 교과 과목을 배우게 된다.¹⁴⁴⁾

이도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서와 함께 당시의 신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3년간 공부에 매진하다가 유학 생활을 한지 3년째 되던 해인 1913년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도종의 동생인 이의중, 이기종이 정주의 오산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교육에 열심을 다했던 이덕련은 1911년 “제주도에 유배와서 謫居 하고있는 南岡을 만나게 된 인연으로”,¹⁴⁵⁾ 그의 둘째아들 이의중과, 셋째 아들 이기종을 오산학교로 보내게 된다.¹⁴⁶⁾ 세 아들을 모두 유학시킬 수

144) 당시 숭실학교에서는 성경(신약과 구약성서 주요부문)과 어문학(조선어 문법과 한문), 수학(산수 및 대수, 평면 기하), 과학(자연과학 기초, 기초물리, 화학, 동물학 및 식물학, 생리학, 위생학,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도그리기, 천문학), 역사(만국역사, 동양사, 서양사, 특수사), 음악(가창과 음악이론), 미술(회화), 체육(체조)와 같이 다양한 교과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숭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91.

145)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3 (2002), 253.

146) 의중과 기종은 정주 오산학교로 유학하여 학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보내 준 제주 전통 의복인 갈옷을 입고 읍으로 나섰다가 죄수복과 유사한 옷의 색깔로 인해 경찰이 오인하여 연행해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기종은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하였다고 이도종 전기에서 전한다.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랑을 딛고』, 55-56. 의중은 중단없이 계속 매진하지만 오산학교 만세운동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전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李瑄宗 장로는 형으로부터 元山發言의 염서가 왔는데 내용 중 ‘죽든지 살든지 생사를 함께 하려고 한다’는 말이 적혀있었고, 독립운동을 추진하다가 일제에 희생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한다.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없었던 가정형편으로 인해 이도종은 학업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귀향한다.

승실학교를 중퇴하고 제주도로 내려온 이도종은 가정을 살피는 동시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상해양행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1915년이 되던 해에는 이기풍 목사에게서 세례도 받았으며,¹⁴⁷⁾ 19세에 혼인한 김도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장녀 福順과 장남 昌福을 키우며 생활해 나간다. 이처럼 일상을 지내던 이도종에게 시련이 있었다면, 1919년 3월 21일 제주지역에서 조직된 제주 독립희생회¹⁴⁸⁾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군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되어 검거되었던 일이다. 조봉호, 최정식, 김창언, 문창래, 홍기철, 이도종, 문창숙과, 세 명의 목회자 김창국, 윤식명, 임정찬 등 40여 명이 ‘정사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조봉호가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동자라 자처함으로써 결국 이도종은 풀려나기는 했으나, 구금되었던 6개월 동안 자행되었던 고문으로 인해 건강을 잃고, 회복되기까지 몇 달을 누워 보내야 했다.

이도종은 학업을 중단했던 이 시기에도 제주도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그 중 하나가 협재리에 전도인으로 파송되어 전도활동을 했던 일이다. 한림읍에 속해 있던 협재리는 당시 큰 마을이었지만 아직 뚜렷한 전도활동이 없었으며, 따라서 교회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1921년 모슬포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최정숙(崔正淑) 집사가 자비로 협재리에 전도인을 파송하려 하였고, 그 책임자로 이도종이 추천된 것이다. 1921년 2월 11일 협재리로 파송된 그는 주일이 되자 협재리에 있던 몇몇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협재리교회의 시작으로 본다.¹⁴⁹⁾ 당시 권서로 활동하고 있던 이덕련의 아버지도 금성교회에서 영수로 임명¹⁵⁰⁾하므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 1922년 전남노회로부터 파송받은 이경필 목사¹⁵¹⁾가 오기 전까지, 이도종은 전도인으로서 협재리와 협재리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찾아,” 253.

147)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편,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2001), 56.

148) 이미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인 독립희생회의 제주 지부로 조직된 것이며 독립희생회는 독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만세시위가 일어난 후, 독립희생회 회원이자 임시정부의 국내 연락조직이었던 김창규는 군자금 모금을 위해 제주도에 내려와 김창국, 조봉호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곧 제주 독립희생회가 조직되어 군자금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

149) 「협재리 교회 연혁」 참조.

150) 「금성교회 연혁」 참조.

151) 「협재리교회 연혁」 참조.

3.2. 목회자 준비과정과 김제에서의 목회 활동

3.2.1. 조선장로회신학교 시절

위의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도중이 제주에서 전도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은 앞으로 그가 목회자가 될 것을 결심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틀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곧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로 갈 것을 결심한 그는 1922년 2월에 회집한 제9회 전남 노회에서 신학지원자로 신청하여 허락을 받고, 평양 조선장로회신학교에 지원해 합격 하기에 이른다.¹⁵²⁾

1922년 3월, 이도중은 평양 조선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의 신학교 교수 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지적인 교육보다는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 훈련시키는 것이 주된 교육방침이었다. 이는 그가 다니고 있는 평양 조선장로회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¹⁵³⁾

이러한 교육 분위기에서 이도중은 학업에 매진하여 나간다. 또한 이도중은 3년의 교육과정 중 2학년까지 마친 후, 휴학하고 제주로 내려가 목회 경험을 쌓아나간다. 당시 삼양교회가 교역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도중은 그곳으로 가서 1924년에서 그 이듬해인 1925년까지 2년 간 목회를 한 후, 1926년 다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평양길에 오른다.

이도중은 평신 3학년이던 해에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전남노회에서 전북노회로 이명(移名)신청을 한다. 이는 전북 김제 지역에서 목회를 하기 위함인데,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제주에서 7년간 사역하였고, 금성교회에서도 목회

152) 韓國教會史學會 編, 『朝鮮 예수教 長老會史記 下卷』(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68), 305-306.

153) 그 당시 평신의 교육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선교회가 교역 후보생을 정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는 그 의도를 알리지 말 것. 2. 전도인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외국 돈으로 보수를 주지 말 것. 3. 미국 에 보내어 교육시키는 일은 제한할 것. 4. 교역자의 영적인 면에 치중하여 성신인(聖神人)이 되도록 힘 쓸 것. 5.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주입시켜 진리의 기초 위에 확립케 할 것. 6. 젊은 교육 후보생을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키우는 데 여하한 괴로움도 견디도록 훈련할 것. 7. 교역자의 교육 정도는 너무 높이지 말고 일반 교인의 지적 수준보다 약간 높게 할 것.' 장로회신학대학, 『長老會神學大學 70年 史』(서울: 長老會神學大學, 1971), 63.

하며 이도종을 알고 있던 윤식명 목사가 김제읍교회에서 시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도종은 김제읍에 있는 성말, 신평, 봉월교회¹⁵⁴⁾의 전도사로 시무함과 동시에, 수업청원¹⁵⁵⁾을 하여 신학교 수업도 계속 할 수 있었다. 이도종은 이처럼 5년의 시간을 보낸 후, 1926년 12월 22일 평양조선장로회신학교에서 함께 학업 했던 11명의 학생들과 함께 졸업하게 된다.

3.2.2 목사 안수와 김제 목회시작

졸업 전 김제읍에서 시무하고 있던 그는 졸업 후 다시 김제로 내려가, 이듬 해 1927년 1월 12일 제 20회 정기회 때 시취를 치르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으며, 이튿날인 1월 13일 강도사 인허를 받은 후 강도사로서 목회를 이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해 6월 26일에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김제읍교회에서 목사 장립을 받고, 목사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¹⁵⁶⁾ 김제읍교회는 전북노회 산하 74개 교회 중에 교세는 4위에, 예산은 3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상당한 규모를 갖춘 교회였다.¹⁵⁷⁾ 이러한 곳에서 사역을 해 나갔던 이도종은 신학교를 갓 졸업한 경험이 부족한 목사였으나, 기독교청년회와 부인조력회, 성경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해 나갔다. 교회를 이전하여 건축하는 과정에서 분규가 일어나, 김제읍 교회가 김제중앙교회와 김제읍 옥산리 교회로 분립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으나, “1929년 당시 주일예배에 모이는 수가 319명”¹⁵⁸⁾에 이르는

154)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서울: 경건, 2009), 123. 이도종 목사의 전기인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에는 월성, 봉월 두 교회에서 시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92-95.

155) 당시에는 노회가 학기마다 수업 청원을 허락하여야만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므로 이도종도 이러한 수속을 밟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도종이 당시 전남노회에서 전북노회로 이명신청을 하였음에 따라 “리도종 씨의 제3학년 제2학기에 수업 청원은 전남노회에서 재학중이오난 동시에 허락하시오며”라는 기록이 전북노회 회의록에 남아 있다. 『全北老會 會議錄』,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93에서 재인용.

156) 이도종 목사의 강도집 첫 페이지에는 자신의 가족들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도종이 세례 받은 날짜, 평양신학교 졸업연월일, 목사 장립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날짜도 이도종의 강도집에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도종, 『강도집』, 2, in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편, (제주: 제주노회, 2001).

157) 김요나, 『金堤中央敎誨 88年史』(서울: 지혜원, 1998), 46-47.

것을 보면 그가 열심을 다해 목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29년 11월 18일, 이도종은 전북노회 임시회에서 전남노회로 이명신청을 하는데, 이는 그가 김제읍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도종은 김제읍의 어느 집안에 있던 결혼식에 참석하여 주례사를 하던 중, 시국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형사들에게 연행된다. 이미 이도종은 군자금 모금 활동과 관련하여 검속되었던 전력이 있었다. 이도종은 곧 풀려나긴 했으나, 결국 이 일이 연유가 되어 교회에 사의를 표하고 김제에서의 목회를 마감하게 된다.

3.3. 제주 전도목회 시작과 제주 교회 발전을 위한 노력

1929년 11월 하순, 자신의 고향인 제주로 내려간 이도종은 총회 전도부에 요청하여 전도목사로 파송 받는다.¹⁵⁹⁾ 그가 내려간 직후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 “열심 전도함으로 교회가 증진하옵는데 기성교회 一, 기도회 처소 三, 신설 처소 一이옵고, 교인 수는 세례 三二, 학습 三, 원입 四〇여 인”¹⁶⁰⁾으로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도종이 전도목사로서 초기에 활동했던 지역은 산남 지방 동쪽이므로, 그가 시무했던 기성교회는 성읍교회¹⁶¹⁾이며, 기도회 처소와 신설 처소는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서귀포 교회라고 보고 있다.¹⁶²⁾ 이도종은 법환리 교회, 혹은 중문리 교회에서 거취하며 순회전도활동을 해 나간다.

당시 제주교회에는 이도종 목사뿐만 아니라, 제주도 출신 목회자로 1927년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전남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은 김재선 목사가 삼양교회 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전교활동이 이처럼 그 지방 출신의

158) 같은 책, 69.

159)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十九회 회록」, 61.

160)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十九회 회록」, 61.

161) 성읍교회에서 시무했다는 사실은 이도종의 유족이 증언한 것인데,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발견이 어려우며, 그 당시 성읍교회는 2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으므로 전도부 보고의 세례교인 32이라는 숫자는 맞지 않는다고 김요나는 보고 있다.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랑을 딛고』, 123.

162) 서귀포교회80년사 편찬위원회, 『서귀포교회 80년사』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2010), 110.

목회자를 양성해 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제 제주 교회가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도종은 제주 출신 목사로서 제주교회들을 위한 당면 과제로, 독립노회를 창립 하는데 힘을 쓰게 된다. 당시 제주 전역에는 조직교회 6개, 미조직이 11개가 있었으므로 노회 분립을 위한 자격이 충분했다. 또한 전남노회의 “교회가 늘어나면서 제주 지역을 관할할 그 지역 나름의 독자적인 노회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교통의 불편도 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기록을 볼 때, 제주시찰의 요구에 대한 이의 없이 노회 분립 안건을 상회에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¹⁶³⁾ 그리고 그 해 9월, 평양 서문밖교회당에서 열린 제19회 총회에, 전남노회 6명의 총대 중 제주 시찰 총대로 이도종 목사와 김재원 장로가 참석하여 노회 분립 건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총회는 전남노회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제주노회의 분립을 다음과 같이 허락하였다.

“四. 특별형편

1. 제주시찰 구역은 형편에 의하여 금번 로회 결의로 분립 청원을 하오며”¹⁶⁴⁾

“<정치부 보고>

十. 전남로회장의 청원한 제주로회 분립 청원은 허락하되,

一. 명칭 제주로회로,

二. 장소 제주성내교회로,

三. 시일 본년 十一月 내로,

四. 조직회장은 최홍종 시로,

五. 문부는 전남로회에 위임하기로,

六. 재정은 전남노회 청원대로三分지 二는 전남로회의계 三分지 一은 제주로회에

163) 1930년 6월 광주 양림예배당에서 회원 목사 15, 장로 40, 선교사 6, 합계 61인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남노회 제 21회 정기회에서는 노회 분리에 대한 제주시찰의 현의를 받아들여 성사시킨다. 그리고 재산은 3분의 1을 양여받기로 하고, 제주노회가 창립되더라도 재정적 자립이 어려울 터이니 종전과 같이 향후 10년간 계속하기로 하되 매년 10분의 1씩 삭감하도록 하였다. 「基督申報」 1930년 7월 9일자.

164)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第十九회 회록」, 91.

주되 채권 채무가 잇스면 이상과 갖치 하기로,
七. 전남로회 선교사 중 一인은 제주로회에 언권 회원이 되어 방조케 할 일외다.”¹⁶⁵⁾

제주노회 창립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11월 14일(금) 제주 성내예배당에서 열린다.
이 노회의 초록은 기독교신보 1930년 12월 17일자에 실렸는데 다음과 같다.

- “一. 장소: 제주 성내교회당
- 二. 시일: 十一月 十四일 하오 八시 ~ 十七일 하오 一시
- 三. 회원수: 목사 六, 장로 七인, 언권방조회원 선교사 三인, 목사 一인
- 四. 임원선거: 회장 - 최홍중 부회장 - 김재선 서기 - 이도중
부서기 - 부상규 회계 - 김재원 부회계 - 이덕련
- 五. 목사 이동: 이도중 목사- 중문리, 법환리, 서귀포, 효돈 4처 교회 전도목사
김재선 목사- 성읍리, 세화리 2처 교회와 남원리, 표선리, 오조리, 성산포, 김녕
지방 전도목사
- 六. 삼양리, 조천리 2처 교회가 연합하여 목사를 청빙키로 함
- 七. 장로 선택: 4인 허락
- 八. 시찰 구역은 동, 서 2구역으로 하되 동구역은 성내로 서귀포까지, 서구역은
법환리로 내도리까지
- 九. 성경학원 위치는 성내에 치키로 함
- 十. 노회 재산은 재단법인 분립될 시까지 전남노회 재단법인에 보관하여 두기로 함
- 十一. 별신학생은 김재선 씨, 주일학교 강습생은 김영식 씨로 함
- 十二. 규칙은 당분간 내 정기노회 시까지 전남노회 규칙을 준용키로 함
- 十三. 내회 장소는 신우면 금성교회당으로 함”¹⁶⁶⁾

특히 위의 내용에서 노회 구성 임원을 보면 제주 출신 목회자 이도중이 서기에, 김재선 목사가 부회장에, 김재원 장로가 회계에, 이도중의 아버지인 이덕련 장로가 부회계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제주 출신 교인들이 제주

165)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第十九회 회록」, 34.

166) 「基督申報」 1930년 12월 17일자.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남노회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제주노회가 설립되었지만, 제주노회가 딛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1929년 미국 경제공황의 영향이 한국 선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으며, 이에 따른 재정의 압박으로 교회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신사참배 등의 종교적인 갈등이 발생하였고, 1930년을 전후로 제주도에 있던 사회주의 계열로부터 발생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기독교는 상쇄시켜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1년 후, 제주 초대 노회장이었던 최홍종 목사와 제주 교회의 대표적 원로이자 1931년 제 2회 제주노회장으로 선출된 이기풍 목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제주노회는 극히 미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결국 제주노회는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와 총회에 보조를 청원하였고, 선교사 1인과 매 년 백 원씩을 수년간 보조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주 교회는 제주 전역에서 전도대회와 부흥집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부흥해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다음의 연도별로 정리한 표에서 볼 수 있다.¹⁶⁷⁾

연도	목사	장로	당회	교인		주일 학교	교회당
				세례 교인	총계		
1931	6	14	10	527	1,078	25	17
1932	5	15	11	512	1,053	24	24
1933	3	15	11	546	1,266	17	9
1934	6	14	11	665	1,329	26	20
1935	7	13	11	633	1,534	23	21
1936	6	14	11	655	1,566	20	22
1937	4	21	10	581	1,529	21	21
1938	4	13	9	718	1,910	22	23
1939	6	17	9	775	2,105	34	24

[표 4] 1931년부터 1939년까지의 제주교회 교세표

167) 서귀포교회80년사 편찬위원회, 『서귀포교회 80년사』, 116.

제주교회가 이처럼 부흥한 연유에는 당시 제주에 흐르던 영적인 각성과, 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총회와 남장로교 선교부의 역할도 있지만, 당시 제주도에 남아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4~6명의 목회자, 그 중에서도 이도중 목사, 정순모 목사 등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 특히나 이도중 목사는 당시 목회자의 수가 적어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932년 11월 27일부터 한 주간동안 열린 삼양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1933년에는 중문리교회에서 열린 ‘제주도 농촌진흥 전도강연회’의 강사가 되어 순회강연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기독교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도중 목사를 강사로 하고 중문 악대를 영솔한 농촌진흥 순회전도 강연단 일행은 지방 각 기관의 후원을 수(受)하고 좌(左) 1면 10개리 중요 농촌 집단 부락 12개 처에 순회전도 강연회를 개최하는데, 각 리동(里洞)에서 인민회의소, 청년회관, 학교 등을 집회장소로 허락 환영하고 지방 인사들은 남녀노유 총출동하여 인산인해를 일우고, 이 목사의 진정한 동포애 옛 영육공존 양생의 활로를 전개시키는 순복음주의인 사자고함과 여(如)한 진정 열정에서 울러나오는 열렬한 설교에 성신의 뜨거운 불이 같이하여 일반 청중은 불교인, 보천교도, 유교학자를 물론하고 죄를 각성 통회하며...”¹⁶⁸⁾

또한 이도중은 1935년 회년 기념사업으로 실행된 대 전도에서도 표선지역을 담당하여 전도 집회를 이끌어가는 등 제주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 해 나간다.

이 시기 이도중 목사는 계속해서 제주노회의 결의에 의해 “제주노회 동시찰에 속하는 서귀, 효돈, 법환, 중문을 맡아”¹⁶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32년 9월에 열린 제 21회 총회에 제출한 선교부 보고에도 “시무구역 동편 효돈, 서편 서한현 지방, 교인 도합 138인, 직원 도합 12인, 신설교회 1처¹⁷⁰⁾에 교인 40인”¹⁷¹⁾이라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그의 목회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도중의 열심에 중문리교회가 이 목사를 당회장으로 청빙하고자 1934년 1월 한림포교회에서 열린 제4회 제1차 임시노회에 안건을 올렸으나, 노회에서는 중문리

168) 「基督申報」 1933년 11월 29일자.

169) 서귀포교회80년사 편찬위원회, 『서귀포교회 80년사』, 113.

170) 이 신설교회 1처는 남원교회라 여겨진다.

171)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一회 회록」, 16.

교회에 이미 당회장이 있으므로 반려하였다. 또한 한림 지방에서도 이도종 목사를 위와 마찬가지로 당회장으로 청빙하고자 청원하였다가 취소하는 일이 발생한다. 동회의에서 “리도종 목사는 저간 권고 사임 중에 근신이더니 오날부터 시무 회복됨. 시무 회복령을 받은 리도종 목사는 회중에 감무를 흘려 답사하다”¹⁷²⁾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 연유가 무엇인지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 회의에서 이도종 목사는 전도목사로서 1934년 2월 1일부터 동중면 표선리 지방에서 사역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해 열린 5회 한림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도 “농촌부 전도목사로 파송케 하되, 가족은 중문리에 두고 시무”¹⁷³⁾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주노회는 노회구역을 나누어 5인 목사에게 할당 하였는데, 이도종 목사는 표선과 성읍 지역을 맡아 목회 활동을 해 나갔다.

1935년까지 이도종은 총회 파송 전도목사의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재정적인 부분은 총회 농촌부와 제주노회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고”¹⁷⁴⁾ 있었기 때문에, 전도와 농촌의 진흥을 결합시켜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이도종의 전도 활동이 당시 제주 교회의 발전에 큰 유익이 되고 있음을 노회가 인식하고, 1935년부터 단독으로 그의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의한다. 이에 “본로회와 총회농촌부와 경제을 아울러서 동지방에 리도종 목사를 파송 전도이다가 금년부터는 로회 단독 경영으로리 계속 전도하시는 결과 자미을 많이 보오며”¹⁷⁵⁾라고 보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노회가 창립된 후, 이도종 목사는 1회부터 3회까지 서기직을 맡아 노회 임원직을 수행하였다. 또한 4회 노회 때에는 부회장으로 2년 동안 연임하였는데, 그의 아버지인 이덕련도 부회계직으로써 3년을 연임하였으며, 금강산 수양관에서 열린 제20회 총회에는 총대는 아니었으나, 이덕련은 원부 대리 총대로, 이도종은 노회 서기로서 두 부자가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1935년 제6회 노회가 열리던 해에, 당시 44세였던 이도종은 제주노회의 노회장

172) 제주노회 제4회 제 1차 임시노회 (1934년 1월 29일, 한림포교회), 『제주노회연혁』, 60.

173) 제주로회 제5회 (1934년 5월 1-4일, 한림교회), 『제주노회연혁』, 62.

174) 한인수, 『濟州宣敎 百年史』, 125.

175)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四회 회록」, 111-112.

으로 피선되었다. 노회장이 된 그는 특히 제주 교회 신자들에게 성경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한다. 제주읍 교회가 이에 동참하여 성경학원 기숙사 부지 50평과 일금 300원을 기증¹⁷⁶⁾하였으나 당시의 재정상황으로는 전체 교사를 건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제주노회는 성경학교 설립을 위해 설립자금 모집을 허락해주기로 총회에 요청하였고, 총회는 “성경학교 설립위원 정순모시에게 언권 허락하기 가결되어 설명을 듣고 설립자금 모집을 허락”¹⁷⁷⁾하였다.

이에 노회는 성경학교 건축 연보모집위원으로 이도종과 정순모 목사를 선정하여 모금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1937년 1월, 이도종과 정순모는 광고 형식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기독교보에 실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의 은혜와 보호로 교제들이 한 달 동안 경성과 황해도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여러 형제·자매의 도와주신 덕택으로 몸도 평안하고 소기의 성경학원 건축연보도 뜻대로 잘 되었으므로 우선 우리 두 사람은 제주노회를 대표하여 감사함을 마지아니하는 바이며 연하여 아직 다니지 못한 북선, 서선, 영남 방면에는 음력 정초를 지나서 착착 방문하러 하오니 모조록 잘 후원하여주시기를 바라나이다.”¹⁷⁸⁾

이들은 한 달 동안 황해도 지역 일대를 돌며 62개 교회를 방문하였고, 13명의 제직 및 목사들을 만나 926원 94전의 성금을 받아¹⁷⁹⁾ 이월금 284원을 합친 총 금액 1,210 원 94전을 모은다. 그 이후로도 팀을 나누어 1937년 3월부터 6월까지 경성 지방과 함남, 함북, 평북, 평남, 평양, 평성 등 지역의 52개 교회, 20명의 교계 인사들, 한 학교에서 1,640원 70전의 후원금을 거둔다.¹⁸⁰⁾ 이후 1938년 봄, 경성지방을 거쳐 북쪽 지방을 방문한 정순모 목사의 모금활동으로 모인 액수와, 총회의 후원, 전 해 이월금, 통신편, 예금의 이자로 발생한 수입까지 더해서 모인 총액은 3,890원 51전이였다.¹⁸¹⁾ 이처럼 순회 모금 운동을 하여 많은 모금 실적을 올리기는 했으나, 실로

17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五회 회록」, 164.

177)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五회 회록」, 73.

178) 「基督教報」 1937년 1월 19일자.

179) 「基督教報」 1937년 1월 19일자.

180) 「基督教報」 1937년 9월 14일자.

많은 지역을 오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제주노회는 1937년 11월에 열린 노회 임시회에서 전국 교회에 문서를 보내 모금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성내 교회 북편에다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한다.¹⁸²⁾

1938년 이도중은 노회장으로 다시 선출되는데, 이 때 성내교회가 기증한 200평 부지에 순석재 40평의 성경학원 교사와 아연제 35평의 기숙사가 지어진다. 이 성경 학교는 이후 1986년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 제주지역 목회자 양성과 신자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끼친다. 이로써 평신도 교육을 위한 장소가 제주지역 교회에도 확보된 것이다.

181) 제10회 제주노회(1939년 5월 2-5일, 삼양교회) 성경학 건축 보고, 『제주노회연혁』, 78.

182) 제주로회 제8회 제1차 임시회(1937년 11월 30일 하오7시, 제주읍 서문동 레배당), 『제주노회연혁』, 71.

제4장. 제주 초기교회 형성 후기:

이도종의 후기 목회활동과 죽음(1938-1949)¹⁸³⁾

노회 창립, 노회장 피선과 그 활동, 성경학교 건립 등 제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던 이도종이지만, 그의 열심과 헌신도 불안했던 당시의 제주와 제주교회의 상황과 맞물려 암담한 현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일제시대라는 당시의 정황에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그것은 제주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압박이 극명히 드러났던 신사참배 강요와, 이러한 때에 노회장의 위치에 있었던 그의 심경은 당시 교회가 느끼고 있을 절망감을 대변해 주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1945년 나라가 해방 되자 일제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제주는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 교회도 독립의 기쁨을 누리며 재건을 위해 힘써나간다. 하지만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4.3사건은 제주 교회를 더욱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특히 이 사건은 제주출신 1호 목사로 일컬어지는 이도종이 1호 순교자로 기록되게 된 비운의 현장이었다.

본 장은 결국 참담한 상황에서도 제주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 이도종 목사의 후기 목회활동을 다루는 것이다. 이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특히 당시에 일어난 4.3과 같은 사건은 제주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도 좀 더 장을 할애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 과정을 중시하여 다루고 있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기에, 본 논문에서는 4.3사건 이전 제주 사회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제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이를 위로하기 위한 제주교회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다 희생당한 이도종의 마지막이 더욱 값진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183) 이도종 목사의 후기 목회활동시기는 이도종이 노회장으로 있던 당시의 제주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 하였던 1938년부터 해방이후 제주 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그가 4.3사건 발생 후 실종되었다가 발견되었던 194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4.1. 신사참배 결정과 목회 사임

제주도 지역의 전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이도종은 1937년 2월 8일 제7회 제 4차 임시회에서 그가 청빙 받은 고산지방으로 갈 것을 허락받는다. 그러나 1938년 4월 24에서야 “시국 관계로 연기하여 오다가 ... 고산 예배당에서 고산, 용수, 두모, 조수 4 교회가 지방적으로 집합하야”¹⁸⁴⁾ 위임식을 치렀다.

이도종은 1939년 5월까지 고산교회와 그 인근 교회들을 맡아 돌보았다. 그는 고산교회에서도 그가 가진 목회자로서의 역량을 어김없이 발휘하였다. 그의 부임 직후인 7월의 고산교회 교세는 세례교인 46명, 학습교인 17명, 원입교인 55명, 주일 낮 예배 평균 참석자 수는 145인이었으나,¹⁸⁵⁾ 그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1939년 3월의 통계를 보면 세례교인 62명, 학습교인 18명, 원입교인 70명 등으로 나타나 있고, 주일 낮 예배의 장년 평균 참석자수는 200인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⁸⁶⁾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례교인	학습교인	원입교인	낮 예배 참석자
1937년	46	17	55	145
1939년	62	18	70	200

[표 5] 이도종 목사의 부임 이후 고산교회의 성장세

위의 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고산교회가 이도종의 노력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던 때에, 그는 고산교회를 사임한다. “본 교회가 지방연합에서 분리하여 단독 자립함에 의하여 회장(=이도종)이 시무권을 5월 2일 삼양교회에서 개최되는 정기노회에 사면하기로 가결”¹⁸⁷⁾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 10회 정기 노회에서 “리도종 목사의 서귀, 법환, 중문 3교회 당회장 사면과 동 씨의 고산, 두모, 양 교회 시무 사면 청원 건은 허락”¹⁸⁸⁾된다. 고산교회의 후임 목회자는 양동혁으로 결정되었

184) 제 9회 제주노회(1938년 4월 26-28일, 성내교회), 『제주노회연혁』, 75.

185) 「고산교회 당회록」 1937년 7월 9일자.

186) 「고산교회 당회록」 1939년 3월 31일자.

187) 「고산교회 당회록」 1939년 3월 31일자.

으며 이도종은 다시 전도목사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처럼 갑작스럽게 사임한 이유로 가장 주된 것은, 1938년 4월 성내교회에서 회집한 제9회 정기노회에서 일어난 일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938년 4월 26일에서부터 28일까지 성내교회에서 열린 제 9회 정기노회는 제주 노회와 이도종 목사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긴 회의였다. 그 때 이도종은 제주 노회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었는데, 그 정기회에서 신사참배 건이 통과하여 제주노회가 호남 지역에서 세 번째로 신사참배를 결의한 노회가 되었던 것이다.

제 9회 노회 정기회에서의 신사참배 과정은 노회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종래 신사 참배는 허배 우상으로 인식하고 굳게 항의하여 오던 바 금번 시대에 처하여 당국으로서 신사 참배는 종교가 아니오 국민의 의무라고 루루히 훈시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스스로 고민을 당할 필요가 없이 국법에 순종하자는 문제가 결의된 후에 경찰서 고등계 주임이 승석하여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설명을 직접 듣고 회원 일동은 의문을 일소하다 ... 신사참배키로 결의한 통지를 총회장에게 보내기로 하다”¹⁸⁹⁾

또한 이에 대해 기독교보는 노회록 활요에 “신사참배는 국민의 의무요 종교가 아니라는 훈시가 유(有)함에도 불구하고 고집·항의는 국민상 의무가 아니라는 양해 하에 당국의 지시대로 하기로 결의하다”¹⁹⁰⁾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 제주노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자세한 사안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도종이 고산교회를 사임하게 된 연유도 결국 이와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나서다 구금된 경험도 있는데다가, 시국 강연으로 검거된 일도 있던 그가 노회장으로 있던 때에 신사참배가 가결된 것에 대한 자숙의 의미일 수도 있다.

1938년 2월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래, 같은 해 9월 제27회 장로회

188) 제10회 제주노회(1939년 5월 2-5일, 삼양교회), 『제주노회연혁』, 77.

189) 제9회 제주노회(1938년 4월 26-28일, 성내교회), 『제주노회연혁』, 72.

190) 「基督教報」 1938년 5월 17일자.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전국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한 상황이었으나,¹⁹¹⁾ 일제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하기 위해 각지 경찰서에 총회 총대로 선정된 각 노회 대표들에게 신사참배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¹⁹²⁾ 이뿐만이 아니었다. 총회 전에 이미 총대들을 포섭하여 신사참배안의 “제안과 동의 재청자까지 선정해두고, 초대 선교사들을 경찰서에 초치하여 이에 관여하지 말도록 요구”¹⁹³⁾한 것이다. 결국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 하는데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등(我等)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술선(勸行)하고 추이(追而) 국민정신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銃後) 황국 신민으로써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함”¹⁹⁴⁾

이러한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관련하여 박용규는 “이도종은 그 치욕의 제27차 총회에 참석하여 신사참배를 결정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감당했다”¹⁹⁵⁾라고 그의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1927년 총회록>에는 각 노회의 보고도 나타나지 않는다. ... 제주노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¹⁹⁶⁾라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총회 회록 99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26개 노회의 상황보고가 기재되어 있고 제주노회의 상황보고만이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주노회의 두 총대 이도종목사와 김계홍 장로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⁹⁷⁾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191) 金良善, 『韓國改新敎史研究』(서울: 기독교문사, 1980), 187.

192) 당시 일제는 “첫째, 총회에 출석하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할 것, 둘째,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을 지킬 것, 셋째, 앞의 두 가지를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출석하지 말 것 중 택일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는 사람은 검속투옥할 것”을 각지 경찰서에 지시한다. 같은 책.

193)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294.

194) 「朝鮮耶穌敎長老會總會 第二十七回 會議錄」, 9.

195)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419.

196) 같은 책, 420

197) 제 27회 총회에 결석한 자는 모두 네 명으로 제주노회의 이도종 목사와 김계홍 장로, 경남노회의 양성봉 장로와 김상재 장로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주노회의 총대였던 이도종이 당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데에 자신의 의견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어진다.

서귀, 법환, 중문 3개 교회 당회장과, 고산, 두모교회에서의 시무를 사임한 뒤 이도종은 용수교회로 옮겨간다.¹⁹⁸⁾ 그러나 어떤 사역지든 신사참배의 강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또한 일제는 예배의식에서까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동방요배강요, 예배시 일본어 사용, 일본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일, 천황 사진에 절하는 일, 가정마다 가미다나를 벽에다 설치하여 위하게 하는 일 등”¹⁹⁹⁾을 하도록 지시 하였다. 1942년에 이르러서는 “집회를 주일 낮과 밤에만 국한시키고 삼일 저녁과 오일 저녁 모임을 폐지”²⁰⁰⁾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도종은 1942년 용수교회에서 교역 2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²⁰¹⁾한 그 해에 용수교회에서의 목회도 사임하여 “노회 및 교회와 상관을 끊고 귀농생활”²⁰²⁾을 하였다.

4.2. 해방과 교회 재건 활동

일제의 강요에 순응한 결과, 겨우 잠시의 명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약소한 득이라 본다면, 이와 반대로 제주노회가 잃은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야말로 강대했다. 그 동안 제주지역의 전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던 미국 남장로교의 후원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 남장로교 광주선교부 소속 타마자 목사가 사임을 청원함과 동시에 부인조력회에서 크게 활동을 하던 그의 부인 타애리사의 조력이 끊긴 것도 그 중 하나였다.

1943년에 이르러서는 제주노회마저 일제에 의해 해산되고 만다. 1943년 5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해체되면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통리 개편되고, 이에 1943년 6월 10일 “제주노회가 해산되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제주교구로

198) 제11회 제주노회(1940년 4월 30일-5월 3일, 한림교회), 『제주노회연혁』, 81.

199)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57.

200) 같은 책, 58.

201) 제13회 제주노회(1942년 4월 28-15일, 성내교회) 용수 당회 보고, 『제주노회연혁』, 92.

202) 趙南洙, 『趙南洙 牧師 回顧錄』(서울: 善瓊圖書出版社, 1987), 127.

개편”²⁰³⁾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도 일제는 계속해서 예배에 간섭하고, 목사들을 ‘요시찰인’으로 두어 활동을 감시하므로 자유로운 전교와 목회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군수 물자를 위한 각종 공출과 공납에 이어 예배당마저 일본군의 막사와 창고로 사용되면서 교회는 제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런 저런 핑계로 소개시키다 못해 후에 일본말 설교와 기도찬송을 못하는 자는 목사자격이 없다고 단정 무자격자라고 모두 강제 축출”²⁰⁴⁾하여, 제주 전 지역을 한림 교회의 강문호 목사와 서귀포 교회의 조남수 목사 단 2명의 목회자가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계속되는 탄압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매일같이 고등계 형사가 찾아와서 50세 미만은 모두 소개하게 되었으니 소개해야 한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주일날에는 예배 시간 정각을 지켜 나와서 강대상 정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일본어로 기도와 설교를 하는가 여부와 또 기도와 설교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고 축도 후에 인사하고 가면서 또 언제 소개하겠느냐고 한마디 하고서 돌아갔다.”²⁰⁵⁾

이와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림에서 동쪽은 강문호 목사, 서쪽은 조남수 목사가 맡아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으나, 강문호 목사가 시무하고 있던 한림교회가 1945년 7월 6일 미군 공군기의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강문호 목사의 여동생 강연아와 한림교회 교인 어린이 5명, 부인 4명 합 8명이 공습으로 사망했으며, 이 때 강문호 목사도 부상을 당한다.²⁰⁶⁾

203)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58.

204) 조남수, 『43 진상』 (제주: 관광제주, 1988), 6.

205) 趙南洙, 『趙南洙 牧師 回顧錄』, 123-128.

206)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까지 조남수 목사의 회고록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제주 교회가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언급의 사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강문호 목사는 한림교회가 폭격당한 후, 자원하여 육지로 소개된 것으로 조남수 목사에 의해 회고되고 있다. 그러나 강문호 목사의 거취에 대해 그의 유족들은 강문호 목사가 한림교회가 폭격된 이후에도 임시예배처소를 장원동으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의 재건을 위해 계속해서 한림에 머물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강문호 목사의 아들 강지윤 장로의 증언 - 한림교회 시무중 특별사건」. 또한 『濟洲宣敎70年史』에 수록되어 있는 제주 노회 역대 임원 명단에도 강문호 목사가 노회장, 부노회장직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문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康文昊, 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159-161.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김인주는 그 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조남수 목사 회고록의 가치가 매우 소중한 것은 하나 회고록만으로는 당시 교회의 일들을 구성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으며,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에

더 이상의 여력이 없을 무렵 갑작스럽게 해방이 왔다. 이에 전국적으로 한국 교회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고, 제주교회도 마찬가지였다. 24개의 교회를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조남수 목사는 제주교회를 위해 은퇴한 이도종 목사를 찾아가 설득을 하고, 이에 이도종 목사가 승낙하여 제주교회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힘써 나간다. 이 당시의 상황은 조남수 목사가 남긴 회고록에 언급되어 있다.

“나는 생각하기를 해방된 오늘에 있어서야 나와 주지 않을까, 더욱이 목사라곤 그분과 나만이 있는 실정인데 내가 찾아가서 애원한다면 선배 목사의 입장에서 냉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택을 찾았다. ‘24개 교회 문제를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나와서 교회도 맡아주시고 저를 지도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고 애원하였다. 결국 승낙을 얻어 함께 기도한 후 즉석에서 제주도를 양분하여 산북 쪽은 이 목사가, 산남 쪽은 내가 맡기로 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²⁰⁷⁾

이렇게 해서 산북 지역은 이도종 목사가 맡고, 산남 지역은 조남수 목사가 맡기로 결정하여 교회 재건 활동을 해 나간다.

이를 위해 1045년 10월 1차로 도 제직회가 모이는데, 이는 이 두 사람의 사역만으로는 공적인 공신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회자 2인으로는 노회를 열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성된 ‘도제직회’ 1차 모임에서, 참석한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내린다.

- “1) 해방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장소는 서부교회로, 모든 진행은 두 분 목사에게 일임하기로
- 2) 두 분 목사로 하여금 각 교회를 순방하며 성례를 거행하기로
- 3) 한림교회 강문호 목사를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각 교회에 교역자 청빙을 두 분 목사가 적극 서두르기로
- 4) 달 성격학교를 계속하여 우선 제직 훈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1946년 1월부터 성경학교 개강)”²⁰⁸⁾

근접한 서술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제주기독신문」 2012년 11월 24일자.

207) 趙南洙, 『趙南洙 牧師 回顧錄』, 128.

208) 같은 책, 129.

강문호 목사도 제주도로 돌아와서 “1945년 11월 21~22일 한림교회의 문명옥 장로 자택에서 제 16회 정기노회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을 숙의”²⁰⁹⁾한다. 강문호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선임되어, 1946년 6월 12일 장로교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남부총회’를 조직하고 해방 이전 제 31회 총회를 이은 제 32회 총회를 열었을 때 제주 노회장으로 참석하기도 한다. 1946년 4월 목포에 있던 임기봉 목사도 제주도로 돌아와 서부교회를 맡아 목회하므로, 위의 4명의 목사가 제주 교회를 이끌어 간다. 다행인 것은 강문호 목사가 “1947년 전후(戰後) 최초로 열린 남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제주도 주재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²¹⁰⁾함에 따라 타마자 목사가 협력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타마자 목사와 그의 아들 타요한(John Talmage)목사는 제주도에 와서 사경회를 인도하고, 그 이후에도 수시로 왕래하면서 제주 교회를 도와 함께 사역하게 된다.

제주의 목회자들은 제주도 교회의 재건을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전도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가하였으며, 제주 부인 조력회와 청년 면려회도 각각 1947년 2월 28일, 1948년 6월 경 재조직 되어 함께 힘써나간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생긴 제주도의 많은 변화는 짧은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불안감이 지속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윽고 제주도 최대의 아픔으로 기억될 사건이 발생한다.

4.3. 제주 4·3사건과 이도종의 죽음

4.3.1. 제주 4·3사건 당시의 상황

209) 제주 기독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기독교100년사 (1908~2008)』 (서울: 콤팩출판사, 2009), 217.

210)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260.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은 제주도민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쳐 왔다. 제주가 가진 이러한 특수성을 선교적 요충지로 보았던 선교사들의 희망어린 메시지들도 있지만, 이 지역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주목받고 있었다. 제주도는 북쪽 목포와는 142km, 북동쪽 부산과는 286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일본 규슈와 쓰시마섬, 서로는 중국 본토 상하이, 남으로는 동지나해를 사이에 두고 오키나와와 타이완과 마주하고 있다.²¹¹⁾ 이처럼 극동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제주 모슬포 지역에 비행장을 만들고 해군 항공대를 설치하는 등, 전쟁을 위한 폭격 기지로 이용하였고, 1945년 초에 이르러서는 일본 본토를 사수하기 위해 섬 전체를 요새화 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에 주목한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었다. ‘조선 제주도가 장차 서부 태평양지구에 있어서의 지브롤터(Gibraltar: 지중해의 전략요충지)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1946년 10월 21일 AP통신의 뉴욕 발 기사로 타전된 바 있다.²¹²⁾ 결국 이러한 제주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일본군의 최후 방어선지로 사용하고자 기지화 되면서 철저히 이용당한다.

그러나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였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전쟁으로 인해 제주도 전 지역이 초토화되었을 수도 있었던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²¹³⁾

이윽고 일본 등지로 나가 있던 도민 약 6만 명²¹⁴⁾정도가 귀국함으로써, 22만 명 정도였던 당시 인구가 28만 명가량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인구 변동은 제주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 인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크나큰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학교를 세우고 자치활동을 하는 등, 제주도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211)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서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57.

212) 『漢城日報』 1946년 10월 22일자.

213) 그러나 이 때 건설되었던 한라산의 산악 기지와 일본군이 비축해 놓았던 무기는 무장 유격대에 의해 일부 사용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43 사건과도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이다.

214) 『東亞日報』 1946년 12월 26일자; 『濟州新報』 1947년 2월 10일 자에는 ‘8만 명’으로 기록.

되므로, 도내에서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더하여, 당시 전국을 휘감고 있던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제주도를 비껴가지 않았으며, 결국 4·3사건이라는 아픔의 역사를 제주민들이 간직하도록 만든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중에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강력한 토끼몰이식 수색작전과 '삼광(三光)', '삼진(三盡)'작전이라는 대량 학살 작전이 전개되면서, 제주도는 점차 피로 '불게 물든 섬'이 되어갔다. 당시 인명 피해상황이 엄청났던 관계로 정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론될 뿐이다.²¹⁵⁾

그 전 상황을 살펴보자면 당시 전국적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지부적 성격을 띠는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9월 10일 결성된다.²¹⁶⁾ 그리고 중앙의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 창건을 선언²¹⁷⁾한 이후부터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방조직은 '인민위원회'로 불리게 된다. 초기의 제주 읍면 인민위원회²¹⁸⁾ 위원장들은 지역 원로들이 추대됨으로서 대체로 이념과는 무관했다. 그리고 행정기능보다는 치안활동에 주력했다.²¹⁹⁾ 뿐만 아니라 농사법에 대한 교육, 학습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 마을마다 야학을 통해 문맹퇴치운동, 학교 설립

215) 정부 측이 제시한 자료만 해도 한국편람(1956년)에는 4만 명이, 1960년 국회의원 김성숙이 제출한 제주도 양민 학살 건의안에는 5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고, 1963년 제주도 당국이 발행한 제주도 제 8호에는 80,06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8.

216) 해방 직후부터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 치안을 확보하고 현존 시설 등을 보존, 관리하는 임무와, 근본적으로는 독립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도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국준비위원회(이하 '건준')가 결성되는데, 곧 이 조직의 지부 성격을 띤 단체가 145개소에 결성되었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75.

217) 같은 글, 76.

218)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첫째,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자치기구였다는 점, 둘째, 항일투쟁 경험자들이 주도했다는 점, 셋째, 온건한 정책을 추구했다는 점, 넷째, 미군정 중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다섯째, 존속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는 점, 여섯째, 중앙이나 전남 인민위 조직과도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어 독자성이 강했다는 점 등이다. 같은 글, 73.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건준(建準)이래 양심적인 반일체 투쟁의 선봉이었던 지도층으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 분립된 한독, 독촉국민회 등의 우익단체와도 격렬한 대립이 없이 무난히 자주적으로 도내를 지도하고 있”었다. 『東亞日報』 1946년 12월 21일자.

219) 행정기관을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읍·면사무소의 인적 구성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76.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²²⁰⁾ 인민위원회의 역량은 대중성을 띠고 지속되어 나갔고, 온건하면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다.²²¹⁾ 그러나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도제의 실시와,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식에 좌파 세력이 주도한 시위에서 군정 경찰이 발포한 사건을 기폭으로 하여 제주도 인민위원회화 미군정은 참여한 대립 관계에 이르게 된다.

1947년 3월 1일 오전 11시,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가량의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28주년 3·1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린다. 이 날 오후 2시 쯤 행사가 끝난 직후 가두 시위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마경관이 탄 말에 한 어린이가 채이면서 소란이 발생한다. 그 과정에서 기마경관을 쫓아 군중들이 몰려들었는데, 당시 관덕정 주변 경계를 서고 있던 응원경찰대²²²⁾는 이들이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발포한다. 이 발포로 인해 민간인 6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한다.²²³⁾ 결국 이 날의 발포가 위협 수준을 벗어난 과잉반응으로 판명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이 3.1절 발포 사건으로 인해 제주 사회는 크게 동요한다. 특히나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당국이 민심을 수습하기 보다는, 이 사건을 ‘경찰서 습격 사건’으로 규정하며 발포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려 하여 비난 받는다. 당시 도지사였던 박경훈도 “관직에 있는 나로서 무어라고 비판을 가할 수는 없으나 발포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위 행렬이 경찰서 앞을 지낸 다음이었든 것과 총탄의 피해자는 시위군중이 아니고 관람 군중이었든 것은 사실”²²⁴⁾이라고 밝히고 있으니, 이 사건 안에 잠재된 제주도민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읽어낸 남로당이 주도하여 ‘전도 총파업’이 발생하게

220) 같은 글, 77.

221) 1945년 9월 9일 실시된 미군정으로 인해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관리들이 재등용하였다는 사실과, 무리한 곡물 수집정책으로 마찰을 겪긴 하였지만 그래도 협력 관계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222) 2월 23일 충남·충북 경찰청 소속 각 50명씩 100명으로 편성된 응원경찰대가 제주로 들어왔다. 『漢城日報』 1947년 3월 4일자.

223) 사망자의 신원은 허두용(許斗鎔, 15세, 제주북교 6년), 박재옥(朴才玉, 21세, 여), 오문수(吳文壽, 34세), 김태진(金泰珍, 38세), 양무봉(梁戊鳳, 49세), 송덕수(宋德洙, 49)세로 밝혀졌다.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저, 『濟州道誌 第2卷』, 72. 이처럼 사망자 중에는 국민학생과 젓먹이를 안고 있던 20대 여인 등을 포함되어 있었다.

224) 『獨立新報』 1947년 4월 5일자.

된다. 1947년 발생한 3·10 총파업은 한국에서 유례가 없던 민·관 총파업이었다. 이 파업은 3·1 발포사건에 대응하는 항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움직임을 남로당 제주위원회가 배후에서 주도하여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발생의 대응책은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아닌, 좌익 세력을 색출하여 척결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에 내려온 조병옥 경무부장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파업 중지를 촉구하였으며, 지역 순시를 하며 ‘제주 사람들은 사상적으로 불온하며, 건국에 저해가 되면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는데,²²⁵⁾ 이러한 연설 내용을 볼 때 경찰 수뇌부가 제주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대응 방식에 대해 암시할 수 있다.

제주도 총파업은 점차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경찰 당국은 3·1절 기념행사를 주도한 김두훈·고창두 등 제주 민전 간부들을 구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파업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검거하여 조사하기 시작한다. 3월 15일부터 시작된 파업단 관련자 검거는 이틀 새에 200명에 다다랐으며, 3월 말에는 300여명, 4월 10일께는 500명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²²⁶⁾ 1947년 3·1절 발포사건 이후 1948년 ‘4·3’발발 직전까지 1년 동안 총 2,500명이 검속됐다. 그리고 취조 과정에서 심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직장을 이탈하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하였다.

당시 총파업 사태 때 제주 출신 경찰들이 동참함으로써 군정 당국이 제주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이 좋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총파업으로 직장을 이탈한 경찰관이나, 사표를 제출했던 경찰관들이 파면되었으므로, 그 자리는 육지 경찰로 충원된다. 이 시기에 서북청년회 소속 단원들이 제주 경찰로 들어오게 된다. 또한 당시 제주도 군정 수뇌부가 전면 교체되며 외부 출신 우익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는데, 여기서 특히 제주도지사로 부임한 유해진은 당시 제주도에 할당된 곡물 수집량²²⁷⁾을 채우고자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들과 술한 충돌을 일으켰으며, 그의 지나친 극우적 행동으로 인해 미군정청의 특별감사를 받아 민심 수습용으로 해임안이 건의 되지만, 승인되지

225) 金亨中(88세, 제주시 이도 1동, 당시 제주도청 공무원, 2002년 9.13 채록) 증언, 제주 43사건진상 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122에서 재인용.

226) 『濟州新報』 1947년 4월 12일자.

227) 당시 미군정은 1946년에 이어 1947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흉년에 시달리고 있던 생산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곡물 수집량을 책정 할당하여 도민의 반발을 샀다.

않는다.

실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미군정·경찰·육지출신 관료·서청에 대한 불만은 점점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 도민들의 분노를 가중시킨 것은 육지출신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테러와 만행”²²⁸⁾이었다. “4·3 발발 직후에 ‘항쟁에 가담하라’는 인민 유격대의 호소문에도 제외될 정도”²²⁹⁾로, 그들의 만행은 4·3사건을 발생 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를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²³⁰⁾라고 부르며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 또한 경찰의 폭력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모든 조직들이 제주 감찰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여론”²³¹⁾이라 미군정에 보고될 정도로 극심하였다.

또한 1946년 8월 1일, 도제 승격에 따라 도민의 부담이 심해진 상황에서, 1946년 제주지역의 보리농사 대흉작과 더불어 다른 지방에서도 쌀을 도입할 수 없도록 만든 미군정의 미곡정책 실패로 인해 도민들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미군정의 곡물 수집정책은 이 시기에 뿌려진 뼈라에 가장 많이 거론된 내용이 ‘보리공출 문제’일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반미의식을 일으켰고,²³²⁾ 이와 같은 과정을 해결하고자 육지부에서 과격한 관료들의 행태에는 미군정마저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파면을 건의할 정도였다.

이후 1948년에 이르러 남한에서는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5월 10일 선거를 준비하는데, 좌익계에서는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며, 제주도에 있던 세력도 마찬가지로 선거 방해를 위해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과 각 오름에 봉화가 오르는 것을 기해 인민자위대가 경찰관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하면서 발생한 이 봉기는, 계속 이어져 10여일 만에 그 피해가 “가옥 소실 400호, 양민 사망 292명, 양민 중경상 98명, 납치 525명”²³³⁾에 이를 정도였다.

228)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출판사, 2008), 70.

229) 같은 책, 71.

230) 주한미육군사령부의 1947년 11월 25일 보고에서 서북청년단 제주도 위원장인 안철이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이며, 자신은 이러한 주장을 방첩대에 입증해 보일 작정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No. 693, 1947. 11. 25. 보고,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금성문화사, 2003), 48-49.

231) No. 698, 1947. 12. 2. 보고,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49-50.

232)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73.

이렇게 시작된 4·3사건은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빨치산인 오원권이 생포될 때까지 전개 되었다. 만 9년 동안 장기화 된 이 사건은 제주도의 유사 이래 최대 사건으로 기록되며, 수많은 희생과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제주도의 상황을 제주교회도 피해갈 수 없었다. 1949년 4월,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열린 제 35회 총회에 제주노회장인 강문호 목사가 참석하여, 4·3사건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주도는 개벽 이래 처음 보는 민족상쟁의 처참한 상태에 빠져 사상자는 양민이 一五二二명, 반도가 수만명, 가옥손실은 三만四천六백十一동, 이재자 八만六천七백五十七명, 학교소실은 초등학교 一백七十五교, 중등학교 十一교, 교회관계 피해는 피살자 十五명 이의중²³⁴목사는 작년 六月 十六日 교회로 가던 도중에 납치된 후 종적이 없어 오며 허생재 장노는 중학생에게 살해를 당하였고 서귀포교회 임씨는 예배당 소제를 하던 중 폭도에게 피해를 당하였고 교회건물 피해는 서귀포, 협방²³⁵, 삼양, 조수 사처 예배당이 소실되고 서귀포, 세화, 이처 목사 댁이 소실되었고 교인가옥 소실은 서귀포 一, 중문 一, 금성 三, 협방 六, 삼양 十五, 제주읍 一, 외도 三, 남원 三, 이상합 三十三호이읍고 농작물 형편은 전 경작지의 五분의 一에 불과하였으며 총성이 끝칠 사이 없으므로 민중은 공포에 싸여 실로 생지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당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반도진압에 주력함과 동시에 이재민 구호에 힘쓰고 있고 친구 양 선교사단체에서는 구호물품을 가지고 가서 분급하기도 하며 진상을 조사하는 등의 활동이 있으나 같이 동포된 우리 민족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이나 단체로써 여기에 대한 여하한 동태도 없음은 실로 유감 천만사외다. 민족의 동맥이 되어야 할 우리 총회는 급속한 시일 내에 위문단을 특파하여 진상을 조사 하시며 조국의 평화 수립과 아울러 동포의 구령을 위하여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옵고 또 총회로서 중앙정부에 종군목사제도 설치를 건의하여 주시옵기 자에 청원하오니 조량하시옵소서”²³⁶

총회는 이에 따라 위문단 파견을 결의하였으며, 총회 파송 위문단으로 총회장

233)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연표 II』, 51.

234) 여기서 이의중은 이도중 목사를 말하는 것이다.

235) 협재를 가리킨다.

236)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 三十五회 회의록」, 67-68.

최재화 목사, 서기 유희준 목사가 제주를 방문하여 각 교회를 순회하며 교인들을 위로한다.

4.3.2. 이도종의 죽음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제주교회는 종전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인 신앙훈련에만 치중해야 했던 당시 교인들을 위로하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에서 발생한 4·3 사건은, 제주의 복음화를 위한 목회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와 아픔을 양산해낸다. 당시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서울에 있는 일립동신회가 전도비를 보내고 “이도종 목사를 전도목사로 선임하고 인성(대정)과 화순 두 교회에 파송”²³⁷⁾ 하므로, 당시 고산리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도종 목사는 자전거를 타고 이 지역들을 돌며,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의 집을 심방 다니는 등 목회활동에 치중하였다.

1948년 6월, 화순지역으로 수요일예배를 가던 길에 이도종은 조남수 목사의 사택을 들렀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는데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목사님, 요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앞으로 화순, 인성에 가실 적에는 오늘과 같이 꼭 들르셔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시다가 가시도록 합시다.”하고 은근히 호소하듯 권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야, 이 사람아! 공비들도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종을 감히 어찌 한단 말인가? 그런 걱정일랑 말게, 하지만 종종 들립세“하면서 신앙으로 자신만만으로 담대하셨다. 그날도 많은 일화를 털어놓고 가셨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이야”²³⁸⁾

1948년 6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대정골로 향하던 이도종이 대정읍 무릉 2리 인향동 부근, 속칭 ‘고린 다리’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공비들이 나와 길을 막았다. 당시 공비들의 인식에 목사는 ‘양놈의 사상을 전파하는 예수쟁이’, ‘미 제국주의의 스파이’였으므로, 그러한 혐의로 취조를 당한 이도종 목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237)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랑을 딛고』, 215.

238) 조남수, 『4·3 진상』, 74.

전하는 기독교 목사'라고 신분을 밝힌 후, 자신들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살려 주겠다는 회유를 당하지만 “나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하나님 편이다. 나 살자고 하나님께 거짓 기도를 드릴 수 없다”²³⁹⁾고 말한 뒤 순교했다고 전해진다. 조남수 목사는 이 일화에 대해, 사건이 있는 후 1년이 지나 잡힌 한 공비의 실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6월 13일 오후에 신평리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李牧師를 납치하여 공비들의 소굴에 끌고가서 여러 가지 심문을 하였다는 것이다.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여러 가지 심문에도 순순히 응하더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의 유창한 설교와 권면에 10여명 공비들이 숙연하여 졌다는 것이다. 그의 人格과 늙름한 모습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존대했다 하며 上司의 지시에 따라 사형장으로 갈 때에도 본부를 떠나서는 공손하게 모시고 갔다는 것이다. 형장에도 순순히 들어가면서(파놓은 구덩이) 자네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잘못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시종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저기 내 가방을 달라고 하고서는 성경찬송과 회중시계를 땅에다 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이것을 자네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 자네들도 예수 믿고 후일 하늘나라에서 만나보자고 하시고는 두 팔을 들어 기도를 올리더라는 것이다. 본부에서 조사관이 온다는 소식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이야기다. … 그날이 바로 6월 19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²⁴⁰⁾

위의 증언처럼 이도종이 집을 떠난 뒤부터 몇 주가 지나도 그의 행방이 묘연하여

239) 「한국기독교공보」 2008년 3월 26일자.

240) 趙南洙, 『真相』(서울: 선경도서출판사, 1990), 93. 전택부도 그의 책 토박이 신앙산맥에서 이 일화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목사가 하루는 맑은 심방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 일주일이 되어도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군경 합동으로 사로잡은 공비의 자백에서 이 목사의 죽음과 그 광경을 알게 되었다. 또 목사 장립식에 기념으로 받아 차고 다니던 시계가 시중에 나돌게 되고 그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산속에서 발견되었다. 그 공비의 자백에 의하면 10여 명의 공비가 산길에서 그를 사로잡고 모욕과 횡난을 하고 죽이려고 덤뻐다. 이때 그가 자기는 목사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 예수 믿고 바른 길로 가라고 권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그들이 모욕과 폭행을 더하매 이 목사가 그 유난히 빛나는 눈을 부릅뜨고 “이 무법한 자들아, 하나님의 종을 몰라보고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느냐?”고 노기를 띠고 질호하더니 다시 부드러운 소리로 “예수 믿어 좋은 청년들이 되라”고 훈계하였다고 한다. 조금 후에 다른 공비 대여섯 명이 나타나 “잠깐 봅시다”하며 이 목사를 데리고 술밭 속으로 가서 땅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이다. 이때 그는 이미 체념하듯이 합장을 하고 기도를 올리더라는 것이다.”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2』(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249.

찾고자 수색하였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때에 군경 합동 작전에 의해 생포된 공비의 증언으로 이도종 목사의 죽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어 그가 “목사 장립식에서 기념으로 받아 차고 다니던 시계가 시중에 나돌게 되고 그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산 속에서 발견”²⁴¹⁾되었다.

이도종 목사가 마지막으로 시무했던 대정교회, 화순교회와 이도종이 거주하고 있던 고산지역의 고산교회 세 교회의 합동장으로, 고산리 3구 칠전동 북쪽 500미터 지점의 ‘불레낭 동산’에 장지를 마련하여 장례를 치렀다. 그 후 대정교회 교인들이 산방산에서 돌을 가져다가 “교회 마당에 그의 순교 신앙을 기리는 순교비를 세웠”²⁴²⁾는데, 그 비석의 비문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仁成 和順 西 교회 전도목사로 시무 중 一九四八年 五月 十三日 敎會방문 차에 고린다리에서 공비의 마수에 쓰러져 순교의 거룩한 죽음을 죽었으니 公의 순교의 피는 지금도 소리쳐 悔改하라고 우리의 고막울임”²⁴³⁾

이처럼 제주교회 교인들에게 순교의 거룩한 삶을 산 인물로 기억되는 이도종 목사는 제주 신앙인의 표본이자 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도종의 삶은 제주 초기 교회 역사, 특히나 그 형성과정을 여실히 드러내 줄 수 있을 만큼 제주 교회와 함께 해 나간 생애였으며, 그의 목회자로서의 사명감과 신념 또한 제주와 같이 개신교 신앙이 접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해 나가는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만큼 값진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41)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2』, 249.

242) 「한국기독교공보」 2008년 3월 26일자.

243) 「대정교회 이도종 목사 순교비 비문」

제5장. 제주 초기교회 형성기: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활동의 특징

본 장에서는 이도종의 목회자로서의 생애와 목회활동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점을 짚어 나가면서, 그가 제주민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사상 또는 이도종이 목회를 하면서 견지했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도종은 제주 교회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복음을 받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믿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르침들은 목회자로서 이도종이 익혀온 개신교의 사상이기도 하나, 그가 제주에서 살아갔던 삶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얻어낸 것이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본 장에서는 그가 감당했던 역할이 이도종이었기에 가능했으며,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지금까지도 과급되어 제주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말해보고자 한다. 제주민이라는 이도종의 정체성,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졌던 제주에서의 사역, 4·3사건과 관련한 죽음은 제주에 개신교가 형성되던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전히 선교지로 비춰지고 있는 현재에도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삶이자 사역이었다.

본장을 서술하는데 있어, 먼저 이도종의 목회사상에 대해서는 그가 자신의 설교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놓은 강도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다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도종의 생애와 사상이 주는 영향력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제주도에 선교사로써 파송된 이기풍 목사의 사역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성격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5.1. 이도종의 목회 사상

5.1.1. 이도종의 참된 그리스도인 양육을 위한 가르침

이도종이 지녔던 신앙과 더불어 그가 목회자로서 제주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나갔던 삶의 과정은 그가 점차적으로 확고한 목회관점을 정립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된 많은 사상들을 제주민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알 수 있다.

이도종은 강도집²⁴⁴⁾을 만들어 그의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는데, 이 설교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이도종 목사의 목회사상과, 그와 연결된 가르침에서 볼 수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도종 목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친다. 이도종 목사가 설교를 하며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이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기 교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직은 유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였다. 그는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 성경의 근거를 들어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격의 설교를 그의 설교 중 ‘그리스도의 4대 은혜’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혜, 의, 평화, 속죄(영생)를 은혜로 받은 자들이다.²⁴⁵⁾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의 전 사건²⁴⁶⁾을 거치며 우리 인간에게 행하시고자 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안수하며, 죽음을 대사하는 것, 그리고 부활과 더불어 나를 부르는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 이도종은 ‘그리스도의 손’²⁴⁷⁾이라는 주제로 그리

244) 이도종은 하드 커버 양장으로 된 노트에 <강도록(講道錄)>이라는 제목과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여 사용한다. 이 노트 안에는 이도종 가족의 생년월일과 세례일, 그의 신학교 입학과 목사 장립, 강도사 인허일이 기록되어 있으며 주된 내용은 그의 설교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245) 이도종, “基督之四大恩,” 『강도집』, 14, in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 이도종 목사기념사업회 편, (제주: 제주노회, 2001).

246) 이도종은 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5대 사건으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들고 있다. 이도종, “基督之再臨,” 『강도집』, 54.

스도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설교하며,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속과 부르심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도종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천국민’이었다. 이도종은 이러한 천국민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서 ‘신자의 삶의 자세와 의무’에 대한 설교를 행했던 본문이 다수 보인다.

이도종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⁴⁸⁾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말하는데, 그것을 위해 신앙인들은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

또한 신자가 된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도종은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그것은 기도와 정결, 헌금하는 것, 사랑에 차별두지 않는 것, 자혜운반 즉, 자선과 은혜를 전달하는 복음 전도에 힘을 쏟는 것이다.²⁴⁹⁾ 그리고 이러한 것을 현세적인 용어를 들어 3대 의무로 규정하여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생산의 의무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유지를 위한 헌금, 직분자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⁵⁰⁾

그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이고 모험적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혁명적인 삶, 모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신앙인이라면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는 이타적 생활과 멈추지 않는 기도를 생활화 하여야 하며, 신도는 순도, 즉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따르는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²⁵¹⁾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심리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의인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²⁵²⁾

247) 여기서 그리스도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의 손, 안수의 손, 죽음을 대사하는 손, 부활의 손, 나를 부르는 손’이다. 이도종, “基督之手,” 『강도집』, 13.

248) 이도종, “蕩子之路,” 『강도집』, 22.

249) 이도종, “信者之手,” 『강도집』, 29.

250) 이도종, “天國民之三大義務,” 『강도집』, 34-35.

251) 이도종, “匪翁之信仰生活,” 『강도집』, 174-176.

이도종의 강도집을 보면 그의 메시지는 신자들 전체를 향한 것이기도 하나, 각 계층을 위하여 그들에게 알맞은 설교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제시하는데, 먼저 여자를 위해서는 집을 떠나거나 나가서 살지 말 것과, 빈궁을 참아 인내할 것을 권고하였고, 남자를 위해서는 충직하여야 하고,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하며, 순순히 천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다.²⁵³⁾ 또한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서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²⁵⁴⁾ 또한 강도집에서 이도종이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우세한 세력가들을 대상으로도 설교를 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예로, 그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자각, 겸손, 성실’로 들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것을 부자들에게 권하고 있다.²⁵⁵⁾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삶이란 새로운 삶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새로워야 하며, 활력소도 새로워야 하고, 담력과 권능, 직분도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새 부대, 즉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애와 덕성, 관용, 후덕, 정직, 인내, 명칭, 인격인 것이다.²⁵⁶⁾ 이러한 삶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땅에서의 천국 건설이며, 교회에서 베푸는 의이다.²⁵⁷⁾ 이러한 의는 특히 자선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선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이 세상에서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도종의 사상에서 우리는 이도종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교회상’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좋은 교회 건설은 이 땅에서의 천국건설과 마찬가지로이다.²⁵⁸⁾ 이와 연결하여 이도종은 이 땅에서의 올바른 교회건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이도종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회는 하나 된 교회이다.

252) 이도종, “順從上帝,” 『강도집』, 23.

253) 이에 대해 이도종 목사는 기독교 공산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교하기도 한다. 이도종, “貧者之福音,” 『강도집』, 102.

254) 이도종, “참아서 競走하라,” 『강도집』, 108-109.

255) 이도종, “나하만 就生路,” 『강도집』, 128.

256) 이도종, “新袋新酒,” 『강도집』, 73.

257) 이도종, “先來其國及其義号,” 『강도집』, 24-25.

258) 이도종, “先來其國及其義号,” 『강도집』, 24-25.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교회가 신자를 개인적인 완전케 이룰 수 있도록 해주며, 서로에게 해를 주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단결하여 하나 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성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²⁵⁹⁾

하나 된 교회에서 세례 받고, 중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을 자격으로 갖춘 교회원들은 교회가 가진 3대 사명, 즉 예배, 교육, 전도에 힘써야 한다.²⁶⁰⁾ 여기서 이도종은 특히 교회의 안수집사, 장로, 교회 교사들이 직분자로서 더욱 보충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중에서도 교육을 매우 중요시했던 이도종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단순한 자격이 아닌 ‘완전자격’이 요구됨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어야 하며, 회개하는 자여야 하고, 성경을 완전히 믿는 자여야 한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며, 또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힘써 나갈 때 우리의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로 이 땅위에 건설되는 것이다.

5.1.2. 이도종의 제주라는 배경과 관련한 가르침

이도종이 활동했던 제주 지역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기에, 이 지역에 대해 그는 이미 어떠한 목회자보다도 뚜렷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전이해는 이도종의 목회에 적용되어 제주민들에게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도종 목사가 자신의 배경과 관련하여 익혀나갔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위에서 언급한 목회사상의 경우처럼 그의 강도집에서 또한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중 몇 가지 특징을 여기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강도집에서 우리는, 이도종이 제주의 척박한 환경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자들을 특히 배려하였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삶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259) 여기서 이도종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7대 방안으로 겸손, 온유, 인내, 서로 사랑, 용서, 화평, 연합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도종, “合一者教會,” 『강도집』, 12.

260) 이도종, “教會意義,” 『강도집』, 246-247.

이도종의 강도집 설교 중 가장 첫 번째 설교는 ‘이상적 농업’²⁶¹⁾에 관한 것이다. 이도종은 설교에서 농업을 강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농사와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과 관련한 설교는 그 당시 이도종 목사가 고산으로 터를 옮겨와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러한 터전에서 당시 사람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설교이며, 당시의 시대적이고 환경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을 배려한 설교라 여겨진다. 이도종은 지금의 때를 목을 땅을 기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우리가 이전의 농사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며,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버리고, 현재의 의로써 경작할 때 성공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설교에서 이도종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제주에 만연해 있던 토착신앙 내지는 우상숭배에 대하여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도종의 설교에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제주도에서 신앙인으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다. 사람들의 심성을 지배하고 있는 토속신앙과, 유교적 질서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켤당에서의 거센 핍박과 축출까지도 감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종은 신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였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투쟁과 혁명적인 삶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여야 한다.²⁶²⁾ 그렇지만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²⁶³⁾ 투쟁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여호와(耶和華)의 영적 전쟁이다.²⁶⁴⁾

이도종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신은 고난의 생활을 겪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가 비난을 하여도 사신은 스스

261) 이도종, “理想的農業,” 『강도집』, 10.

262) 이도종, “勝利之原理,” 『강도집』, 180-182.

263) 이도종, “感謝,” 『강도집』, 183-184.

264) 이도종, “耶和華代我戰爭,” 『강도집』, 115-116.

로를 지키는 자위적 생활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권위적 생활을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생활에는 영광도 있기 때문이다.²⁶⁵⁾

이러한 이도종의 가르침들과 함께 그의 목회사상에서 주요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도종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관점이다.

‘여자가 많은 섬’인 제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한 것이었다.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부역과 병역, 해상포물, 이민족의 침탈 등으로 남성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성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나아야 했다. 이도종은 이렇듯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여성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였으며, 이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설교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그는 기독교와 부녀의 위대성을 말하며, 현인군자 모두 현모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 한다.²⁶⁶⁾ 그렇기에 이도종은 여자의 지위를 만백성의 어머니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여성 인물과, 이도종이 살던 당시의 세계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많은 여성들을 볼 때,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역할과 지위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이도종은 그 당시부터 여목사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 기독교인 전체의 7할이 여자이므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 여성 목사가 역량을 발휘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²⁶⁷⁾

이도종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 동적 종교, 박애적 종교, 인종 평등적 종교였다.²⁶⁸⁾ 이도종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곧 그가 제주민들을 위한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자 한 메시지였으며, 동시에 제주의 신앙인들이 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건설적인 목표였다. 어쩌면 이도종이 개신교에 입교하게 되었던 근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265) 이도종, “基督之使臣生活,” 『강도집』, 216-217.

266) 이도종, “基督教와 婦女の 偉大性,” 『강도집』, 330.

267) 이도종, “女子,” 『강도집』, 226-227.

268) 이도종, “我何以為基督教人乎,” 『강도집』, 156-157.

사상은 이도종의 목회자로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가치였으며, 그의 목회 전반에 흐르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쩌면 기독교의 보편적인 가치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제주민들에게는 배척해야 할 외세의 정신이라 여겨졌을 수도 있으나, 이도종이 이해하기에는 제주라는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메시지였으며, 그들이 실천해 나가야 할 지향점이었다. 이러한 기독교적 정신이 이도종이라는 제주민 목회자의 신념과 노력에 더욱 힘입어 확산되어 나감으로써 당시 어려웠던 제주 개신교를 점차 성장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도종 목사의 목회활동이 주는 영향력과 그 의의에 대해 긍정의 눈으로 다시금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5.2. 이도종의 목회활동이 미치는 영향력

5.2.1. 제주 출신 지역민 목회자

이도종은 제주 금성리 출신으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생을 마감하였던 인물이다. 이도종의 유년 시절 제주의 분위기는 가톨릭과 제주민들의 갈등에서 발생한 신축교안이 일어났던 때로, 당시 제주민들이 외지인들을 보는 인식 안에는 그야말로 냉대와 증오가 가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지인들이 제주도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제주민들이 쉽사리 따르고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반대하고, 방해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초기 선교사 이기풍의 활동 당시 그들의 행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제주민들이 이기풍을 배척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이와 반대로 이기풍이 제주의 문화와 풍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겪은 어려움도 상당하였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주도에 와서 제일 먼저 부딪힌 문제는 언어의 장벽이었다. ...

길에만 나가면 청년들이 ‘귀신 닮았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놀렸다. 이 말은 ‘참 예쁘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마치 옴쟁이를 만나서 행여나 옴이 오를까봐 도망치는 사람처럼 손을 흔들며 “설러버려 설러버려 야가기 끊어 지겐”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 말은 ‘그만두어라 그만두어라 내 목이 달아난다’라는 뜻이다.”²⁶⁹⁾

“아버지는 각 집에 모셔 놓은 ‘구렁이 때려잡기 운동’을 전개하다가 두들겨 맞아서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때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²⁷⁰⁾

어쩌면 이러한 해석은 이사례가 “해녀들은 매우 건강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간 간단하게 바닷가에서 해산을 하는 일도 종종 있다”²⁷¹⁾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었다거나, “대가족 제도 때문인지 옛날 제주도에서는 한가운데에다 밥을 담은 큰 양푼을 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떠먹었다고 한다”²⁷²⁾고 증언함으로써 제주도 해녀들이 지닌 삶의 고충에 대한 이해나 핵가족 중심인 가족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처럼, 실로 이기풍도 제주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리란 사실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함이 행동으로 표현되었을 때 표출될 수 있는 내지인들과의 갈등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기풍이 입도한 지 여섯 달 만에 한성신문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이기풍이 제주도의 풍속에 대해 적어 한성신문에 소개함으로써, 당시 말뚱으로 불을 때는 풍습, 쌀을 안 씻고 밥을 짓는 풍습 등이 미개한 것처럼 비춰져, 제주민들이 “제주도를 악선전한 이기풍이란 놈을 5월 5일을 기하여 때려죽인다.”²⁷³⁾는 벽보를 붙이고 이기풍의 집으로 쳐들어갔던 사건이다. 제주도의 지대가 현무암으로 뒤덮여 있다 보니 물이 다 스며들어 식수가 부족했던 것과, 또한 같은 이유로 빨감으로 쓸 수

269)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95.

270) 같은 책, 93.

271) 같은 책, 97.

272) 같은 책, 98.

273) 같은 책.

있는 나무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말을 키우는 지역답게 말뚝을 이용하여 불을 피워야 했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자신의 이해로 글을 써 보냈기에 결국 도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이도종은 이러한 제주도 문화와 풍습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으며, 제사 문제를 제외한 다른 제주민의 풍속과는 부딪히는 일이 없었다. 이도종 자체가 제주도의 문화와 풍습을 습득하며 자라난 제주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도종은 자신이 제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양으로 유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고향 제주로 내려와 목회를 함으로써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 나간다. 평양 송실학교를 다니다 부득이하게 내려왔던 1921년 2월에도 협재리에 전도인으로 파송되어, 1922년 전남노회가 파송한 이경필 지방 목사와 원용혁 전도인이 협재교회에 올 때까지 전도 활동을 펼쳐 나갔으며²⁷⁴⁾,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시기에도 휴학하고 제주에 내려와 당시 목회자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제주 삼양교회에 부임하여 목회를 해 나갔던 것이다.

연고가 없을뿐더러 마치 외국과도 같은 지역인 제주섬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감당하고, 결실을 맺어나간 이기풍 선교사의 헌신이 참으로 값진 것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약조건에서도 열심을 다해 제주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한 이기풍 선교사의 선교사역은 제주지역 개신교 전파의 물꼬를 텃다. 하지만 제주도처럼 배타적이고, 민간 신앙에 치중하며, 외래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제주 출신 목회자로서 제주 지역 선교의 결실인 이도종 목사의 신앙과 목회활동이 제주도 지역 전교를 위한 큰 힘으로 작용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5.2.2. 평생을 제주에서 사역한 목회자

당시 육지에서 제주로 이동해 온 목회자들은 제주도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 나갔다가보다는 때가 되면 다시 육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목회자가 교체되는 일이 빈번하였다. 이기풍 목사와 같은 경우도 1908년 제주도로

274) 「협재리교회 연혁」

파송되어 성내교회를 설립하고 사역을 이끌어가다가, 제주도의 풍토에 적응을 못한 나머지 병을 얻어 1915년 전라노회에 병가를 청원한다.

“제주 전도목사 이기풍은 성음이 부족하게 되므로 1개년 육지에서 쉬게 하되 그 동안은 최대진을 전도목사로 제주에 시무하게 하고 이기풍의 섬에 관한 사(事)는 광주 지방 시찰에 위임하고...”²⁷⁵⁾

그 이후 이기풍은 “1918년 광주 북문밖교회의 초대 목사로 부임한 뒤, 다시 1920년 순천 중앙교회의 초대 목사로 시무”²⁷⁶⁾하고, 전남 고흥으로 옮겨 전남 고흥읍 교회에서 시무하였다.²⁷⁷⁾ 그러다가 1926년 제주 성내교회에서 김정복 목사의 사임 직후 “이기풍 목사를 모시기 위해 육지의 도시 못지않은 높은 사례비까지 책정”²⁷⁸⁾해놓고 담임교사 청빙을 교섭한다. 그 이전인 1920년에도 위임목사로 청빙하였으나 순천읍교회로 가게 되어 응하지 못했던 이기풍 목사는 결국 이러한 노력에 감명을 받아 고심 끝에 청빙에 응하고, 1927년 2월 다시 제주로 돌아가 성내교회에 재부임한다. 제주를 떠난 지 12년 만의 일이다. 제주로 돌아와 기도훈련, 성경교육, 전도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당회를 보강하며, 사회봉사에 성심을 다하는 등 제주교회 목회를 위해 열심을 가하였던 그는 1931년 순천노회 별교교회로 이명을 청원²⁷⁹⁾하여 1931년 7월 제주도를 떠나게 되었다.

이처럼, 실로 육지에서 내도해 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주에서 목회활동을 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풍토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 계속되는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 교회가 처하는 재정적인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그야말로 시험이었다. 위와 같은 연유로 육지에서 파송되어 온 목회자들은 제주 목회를 사임하고 다시 육지로 되돌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1914년 전라노회에서 제주 신임

275) 韓國教會史學會 編, 『朝鮮 예수教 長老會史記 下卷』, 167.

276) 이사례, 『이기풍』, 117.

277) 「基督申報」 1927년 3월 2일자.

278)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193.

279)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210.

선교사로 택정되어 보내진 윤식명 목사도 7년간 시무하고 전북 전주군 조촌면 용흥리 교회로 이동하였으며,²⁸⁰⁾ 1915년 9월 제주도 전도목사로 부임한 최대진 목사도 성내교회 제 2대 담임목사로서 목회사역을 하고, 함께 자비량 선교사로서 산북지역 전도에 힘을 쓰다 1917년 5월, 전라노회에 제주 전도목사 사임서를 제출한다. 이 이후로도 제주 개신교 100년 역사에 “육지 출신 목사(선교사)로서 제주에서 종신한 사람이 없다.”²⁸¹⁾는 사실은, 그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육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대립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을 해 나갔으나, 제주민들이 겪던 고통을 끌어안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갔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도종의 경우는 다르다. 이도종은 학업으로 유학 중에도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전도인으로서 사역을 해 나갔으며, 이로 인해 협재리 교회의 설립과, 삼양 교회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목회자이다. 신학교를 졸업 후 김제읍 지역에서 목회사역을 하던 중에도 잠시 귀향하여, 교회가 없는 애월 지역에서 전도 강연을 펼쳐 이 지역의 교회 개척을 위해 도움을 주었으며, 1929년 하순, 제주도에 내려온 이후부터 1948년 6월 56세의 나이로 죽기 직전까지, 제주 교회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하면서, 10개 교회를 개척하고 21개 교회를 섬”²⁸²⁾기며 제주민을 위한 사역을 펼쳐나간다. 육지부 목회자의 사역지 이동은 제주-육지간으로 그 이동 범위가 컸기 때문에 육지로 이동한 후에는 다시 연결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제주 지역 출신 목회자들은 제주-제주 지역 간 이동으로 지속적으로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위치였다. 그렇기에 이도종은 도중에 목회를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원로 목사로서 지역의 목회자들을 지도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조남수 목사가 일선에 복귀하여 제주교회의 재건을 위해 함께 나서 줄 것을 권유하였을 때, 쉽게 응하고, 다시 사역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제주민들이 육지인들에 대해 ‘이 지역에서 잠시 머물다 갈 생각으로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라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공식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볼 때, 목사로서 제주에

280) 「基督申報」 1922년 1월 11일자.

281)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34.

282) 김종희, “제주도 1호목사-순교자 이도종,” 69.

파송된 이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심이 작용하여 제주민의 복음화를 위한 이들의 변함없는 노력이 변함 있는 노력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다. 사명감으로 어려운 각오를 하고 바다를 건너와 산과 오름을 넘어 다니며 전교를 해 왔던 그들의 노력에 제주민들이 감사를 표한다고 할 때, 이러한 연유가 제주민이 아닌 사람이 제주로 와서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라면 이 또한 감동할 만한 사연이나, 우리와는 다른 그들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또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물론 당연한 것이라 말한다면, 그렇기에 제주사람으로 제주지역에서 전교활동을 하였으며, 제주민이기에 사임을 하였어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평생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도종 목사의 사역이 값지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말할 수 있다.

5.2.3. 제주 4·3사건 당시 희생당한 목회자

제주 4·3은 제주민들에게 최대의 아픔이자 비극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희생된 어느 지역이나 가정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전 지역의 범위에서 회자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어느 집을 가 봐도 대부분 4·3사태에 죽은 원혼이 있지. 그 내력을 들어 보면, 애매하고 억울한 죽음이 대부분이라 산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래쪽도 아닌 사람들, 중간에서 도망 다니다가 죽은 사람, 자기 목숨 살기 위해 올라갔다 죽은 사람,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죽은 사람, 산에서 활약하다가 죽은 사람, 어떤 집에 가드라도 4·3내력이 나오지”²⁸³⁾

증언자료집에 나오는 이러한 증언처럼, 결국 4·3사건은 전 제주민의 전의식을 사로잡고 있으며, 4·3사건 당시 첫알오름의 희생자들이 묻힌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²⁸⁴⁾라는 무덤의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은 그들만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283)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89), 4.

284) 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이 묻힌 묘라는 뜻이다. 조상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갔던

희생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사실 1948년 그 당시, 제주도에 남아있는 목사는 별로 없었다. 이기풍 목사도 이미 1931년 제주를 떠난 상황이었으며, 남아 있던 사역자들도 일제시대에 육지로 소개되어 사역지를 떠날 수밖에 없던 형편이었으나,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제주 지역으로 들어온 목회자들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나마 강문호 목사가 피난을 갔다가 교회의 재건을 위해 다시 들어와 노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임기봉 목사도 도내하였으나 “1948년 목포 산정교회의 청빙을 받고 성내교회를 사임하고 목포로 나와”²⁸⁵⁾있었다.

이렇듯 당시의 제주교회는 1947년 5월에 열린 도제직회에서 “2년 동안 노력해도 교역자 청빙이 안 되고 당분간 가망이 없”²⁸⁶⁾음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제주 지역 전체를 산남과 산북으로 나누어 이도종 목사와 조남수 목사가 담당하여 순시해야할 만큼 열악하였다. 이처럼 소수의 목회자들만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주 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교회뿐만이 아닌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조선 독립 기원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가결하여”²⁸⁷⁾ 강사로 나서는 등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제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를 가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제주민들에게 목사 ‘이도종’의 죽음은 그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희생이었다. 이도종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숨기 보다는, 그가 섬기고 있는 제주민들을 위해 길을 나서다 죽음을 맞은 것이다. 초대 성직자이자 제주교회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이도종이라는 목회자를 잃은 아픔이 제주민들에게도 같은 아픔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제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이도종의 영향력 또한 그와 같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이도종의 마지막 모습, 즉 모욕과 횡난에도 불구하고 “이 무법한 자들아, 하나님의 종을 몰라보고 감히 누구를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르느냐?고 노기를 띠고 질호”²⁸⁸⁾하고 예수 믿어 좋은 청년들이 되기를 충고하였다는

사람들은 모두 한 자손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이름이다. 이영권, 『제주역사기행』, 348.

285)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 고려글방, 1992), 237.

286) 趙南洙, 『趙南洙牧師 回顧錄』, 130.

287) 모슬포교회 제직회록 (1947년 9월 29일), 『제주노회연혁』, 100.

288) 김춘배, 『한국기독교 수난사화』 (서울: 성문학사, 1969), 169.

사실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하였다는 공비의 자백은 어떠한 순간에도 당당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죽음 앞에서 기도으로써 담담히 나아갈 수 있다는 순교자의 정신이기에 개신교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나, 당시 그가 극심했던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와, 베풀었던 관용의 자세가, 특히 이러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맞서야 했던 제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도종이 목사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죽음은 순교로 기억됨과 동시에 제주민들을 전교할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제6장. 결론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 초기 교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제주 교회 역사 인물인 이도종의 생애와 사역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지리적으로 척박하고, 외세의 침입이 잦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이어나갔으며, 또한 그들의 역사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에서 나온 피해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제주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크나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바라보는 지금까지의 인식과 연구는 복음을 전하러 갔던 한 인물에만 중점을 두고, 제주 지역의 사람들을 수동적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제주 교회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기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의식구조에서 나오는 배타성으로 기독교를 재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나, 실로 자신들이 외부라 규정한 곳을 선망하며, 구별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주민들의 양자성은 이해하기엔 어렵지만 그들의 특성인 것이다. 그러한 그들에게 선교지로의 대상성만을 강조하고,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전제부터 육지인들이 제주민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제주민들도 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와는 다른 것이라 규정짓는 그들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체감하고 있는 ‘제주기독교의 낮은 복음화율’이라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제주 교회의 역사도 어느 덧 100년을 넘어섰다. 진부한 표현일지도 모르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에 따르면, 이러한 시간은 제주와 제주교회가 10번 이상의 변화를 겪어야 했을 기간이다. 하지만 제주민들이 제주교회를 보는 인식은 1908년 이기풍이 입도했을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 보면 그 주변의 것은 모두 흐릿하게 비춰지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제주교회의 역사를 말할 때 이기풍 목사에게 특히나 더 강한 조명을 비춤으로써 제주 교회를 섬에 정착시킨 수많은 노력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되는 과오를

범했다. 흔히 씨를 심어 그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고 수확이라는 기쁨을 이야기하나, 제주교회의 경우 제주교회에 심겨진 이기풍이라는 씨앗만을 보려고 한 나머지, 그 토양이 계속 파헤쳐져 단단히 굳어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역사는 아직까지도 그 씨앗만을 바라보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맺힌 이도종과 같은 열매마저도 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이는 제주 교회를 위해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자 애썼던 초기 선교사들의 노력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명을 좀 더 넓게 비춰, 당시의 상황에서도 교회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인물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들인 그것을 전하기 위해 상황을 뛰어 넘었던 자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기에 할 수 있었던 역할에 대해 인정해주는 과정이 지금의 제주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도종의 생애와 그의 목회활동은 제주 교회에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이도종 또한 제주민으로서의 양자성을 가진 인물이라 평할 수 있겠다. 이도종의 가정 환경 자체가 개화적이었다. 그의 아버지인 이덕련은 조봉호가 소개하는 서양 종교 의식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그 모임에 참여하였으며, 이기풍의 전도로 인해 예수를 믿을 것을 고백한 이후로는 그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던 삶의 방식도 과감하게 깰 수 있을 정도로 열려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이도종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당시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았던 유학 결심을 하고 평양길을 두 번이나 향했으며, 목회 초기에는 자신의 고향이 아닌 김제읍에 정착하여 무리 없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다시 향한 곳은 제주였으며, 그는 자신의 지역민들을 전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외지인들이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제주의 중심부인 '제주읍'에 거점을 잡고 '성내'에 교회를 설립한 것도 전략적으로 볼 때는 매우 탁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도종과 같은 경우 협재, 법환, 고산과 같은 지역을 위주로 전교해 나갔다. 이는 제주 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고심의 표현이었을 것이며, 또한 이도종이 가진 배경을 놓고 볼 때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제주 지역에서 풍습과 민간 신앙이 강하여 전교가 어려운 지역은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역이다.

지역 환경을 볼 때에도 척박함의 정도가 더하므로, 교회가 말하는 신앙에 대해 지역 민들이 받아들이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며, 목회자들의 생활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종은 그런 지역으로 나서 전교를 해 나갔으며, 그 지역이 부흥했을 때,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다시 목회지를 이동하여 전교활동을 해 나갔다.

초기 제주 교회 형성과정에서 이도종이 펼친 이러한 사역이, 이제 정착의 단계를 거친 현재 제주교회에 시사점을 준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도종의 생애와 목회사역의 의의는,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과 그 내력 자체가 ‘제주가 소외되지 않은 제주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복음의 전파란 그 지역의 삶과 역사, 문화, 정서 이 모두와 함께 얽혀져 나가야 하는 것이나, 실제로 아직 제주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독자적으로 나가다 못해 걸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연유는 제주를 살아내는 주체인 제주민을 소외시킨 나머지 제주를 주변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신들만의 삶과 역사, 문화, 정서를 새로이 정립하여 소통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심지어 제주 교회 자체가 하나의 켤당인 것처럼 비춰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기독교라는 신앙공동체가 갖는 특성이 이 사회의 정체와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²⁸⁹⁾는 점을 증명해내는 것이며, 결국은 제주 교회가 스스로를 자신들만의 공동체로 고립시켜 사회와 어울리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제주교회의 존재를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 제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주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대상을 주체로 삼아 그들과 대화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공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첫 걸음이 바로 제주민들의 문화와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제주민이 가지고 있는 ‘켤당 문화’도 이미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제주 주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살아있는 힘으로 간주”²⁹⁰⁾되고 있는 이상, 그러한 문화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결집력을 이끌어 내어 제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89) 안주훈, 『기독교만평과 두루마리』(제주: 제주기독신문, 1995), 77.

290) 한국일, “제주켤당문화와 제주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30 (2007), 387.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모두 삼촌과 조카라 부르며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러한 문화는 제주 교회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분명해 질 때 더욱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제주의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불교와 유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러한 종교들이 제주민이 가지고 있는 민간신앙에 어떻게 다가갔는가 하는 질문과 그 해답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유교라는 지배이데올로기로,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근대화를 이유로 아무리 탄압을 가해도 쉬이 사라지지 않았던 민간신앙의 요소들을 단순히 ‘미신’이라 치부하여 외면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주민을 미신에 빠져있는 대상으로 치부하여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것이다. 즉, 제주민들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지속해 나갔던 민간신앙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들여다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제주민들이 그러한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종교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종교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책임유기인 것이다.

교회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주도로 유입해 들어온 이주민²⁹¹⁾들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심성과 문화를 안고 살아가는 본토인과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중대의 전초 단계로서 요구되는 토착화 과정도 필요하다.²⁹²⁾ 즉, 이러한 것을 제주 교회는 당면 과제로 삼고 나아가야 하며, 곧 이를 뛰어넘어 현재 제주도가 당면해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제주 교회의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함께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291) 실제로 제주도에서 본토출신이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인 실정이다. 박영환, “제주도 교회를 다녀와서,” 『활천』 399 (1982), 73.

292) 서정민은 이러한 토착화 과정을 위해 일부 토착선교에 관심을 지닌 선교자들이나 그들의 활동성과, 특히 제주도 방언 성서의 간행 등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다.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90. 그 실례로 현재 제주향토문화 연구소에서는 제주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등 각종 전통 유산에 대한 보존, 전승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할 뿐 아니라 특히 제주 기독교 복음화를 위한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주 방언성경』을 발간하였다. 이 방언성경은 마가복음을 제주어로 번역한 것이다. 제주향토문화연구소, 『제주방언성경』 (서울: 보이스사, 1981), 142.

둘째, 이도중 목사는 제주를 자신이 평생을 사역할 목회지로 생각하였으며, 제주 전교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김제읍에서 300명이 넘는 김제중앙교회의 목사로 성공적인 목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 이도중 목사는, 기회만 된다면 육지로 나가 안정된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도중 목사의 행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도 내에서도 자신이 개척하여 시무하던 교회가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열악한 지역으로 옮겨 가 그 곳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는 등 제주 전체의 전교를 위해 노력하여 나갔던 것이다. 일체로부터의 핍박으로 사역을 그만두었던 때에도 이도중은 제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주 지역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육지부로 피신하였던 제주 출신 목회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도중은 일선에서는 후퇴하였으나 고산 지역에 거주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인들과 함께 공존하였고, 실제로 원로가 없던 제주 지역에서 교회의 원로로서의 역할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는 척박한 땅이며, 폐쇄적인 곳이며, 뒤쳐져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할 수 없는, 기회만 된다면 떠나고 싶은 땅으로 여겨지고 있던 것은, 이미 먼 역사에서부터 증명되고 있다. ‘말이 보내져야 하는 땅’으로 인식되던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연복정에 올라 왕이 계신 서울을 바라보며 눈물짓던 유배인들의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제주민들의 마음은 눈물을 넘어선 상처였을 것이다. 제주민들이 그들이 지칭하는 육지인들에게 자신들의 것을 쉽게 내어놓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폐쇄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도 ‘어차피 떠날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화라는 목적성에 더하여,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일체성을 필두로 한 사명감이라 할 수 있다.

이도중 목사의 사역을 놓고 보았을 때, 그가 제주교회의 목사로서 중점을 두고 해나갔던 일은 제주 노회와 성경학교를 설립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곧 제주 교회가 자립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었기에 특히나 중요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제주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제주 사회에서도 중요한 일이었다. 실제로 이를 위해 가톨릭과 같은 경우는 제주의 중산간

지역을 개간하여 이시돌 목장을 만들어 제주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병원과 경로당, 유치원을 세우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신성여학교²⁹³⁾를 설립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해 나갔다. 사실 초기 선교 역사에서 제주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정도는 가톨릭이 더 심했다. 가톨릭 세력에 맞서 제주민들은 1901년 제주항쟁까지 일으켰으며, ‘천주교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설까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제주민들이 생각하는 가톨릭을 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이는 가톨릭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주 지역민들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교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실제로 위와 비슷한 사례로 내보일 만한 것이 없다. 제주 전교가 시작될 당시에 학교 설립이나, 병원 설립과 같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문제는 지속적이지 않았다. 실로 당시의 형편으로 볼 때 힘에 부치는 일이었으나, 이 지역이 평생 몸담아야 할, 가능성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했다면 육지부에서 한창 이루어지고 있던 학교와 병원 설립이 제주라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이다. 도리어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에서 제주도에 미션스쿨을 세우는 일을 추진하였으나 제주 교회의 반대로 무산”²⁹⁴⁾되었다는 언급을 볼 때, ‘제주에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도리어 던져보아야 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제주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와 아픔을 함께 극복하려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도종 목사는 제주가 겪은 4·3이라는 아픔 가운데서 희생된 인물이다. 결국 이도종의 생애 마지막은 제주의 아픔과 함께 한 것이었다. 그러한 이도종의 희생은 또한 제주 교회가 처한 아픔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대하는 제주 교회의 입장은 제주의 입장과는 달라 보인다. 실례로 박용규는 '제주기독교 100년의 회고와 전망,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4·3사건에 대해 "교회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간단하게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더하여 “이 시대 제주 기독교는 참으로 지혜로웠다.

293) 이러한 신성여학교의 설립은 천주교신교육운동의 가장 큰 결실이라 여겨지고 있다. 안영후, “개화기 천주교의 제주도 신교육 운동,” 『한국교육논단』 10 (2011), 156. 신성여학교는 현재 신성여자중고등학교로 이어져 제주 여성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294)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36.

기독교는 우익의 입장이었지만 우익 단체에 가담하고 직접 좌익과 투쟁하는 선봉에 서지 않았다.”²⁹⁵⁾고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운교회 이선교 목사가 2008년에 열린 강연회에서 4.3 희생자들을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하여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실 제주도민에게 '악몽의 그림자'라는 악명을 얻을 정도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²⁹⁶⁾은 개신교 청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던 단체였다. 그렇기에 제주에서 복음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유는 4·3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가해자 중 핵심 세력에 개신교인들이 포함된 우익단체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교회는 그 이후로도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²⁹⁷⁾음을 상기해야 한다. 실제로 그 이후에 전교활동을 위해 내도해 온 사람들은 반공을 기치로 내건 우익세력이었으며, 이것이 제주선교의 결정적인 한계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²⁹⁸⁾ 사실 제주 교회는 박용규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우익 단체에 가담하여 학살을 자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식으로는 제주 교회가 당시 입었던 피해와 희생의 의미마저 퇴색되도록 만들 것이다. 당시의 피해상황 중 집계된 희생당한 사람 수를 30,000이라 본다면, 그와 비교하여 집계된 제주교회의 희생인 명 수는 17이었다. 제주 목사 이도종의 죽음을 포함한 이러한 교인들의 사망이 그다지 큰 피해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도 4·3의 발생은 제주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한을 심겨주었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간 그 여파가 연좌제라는 방식으로 이어져, 제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고 이러한 영향은 앞으로도 집단적 무의식의 실체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²⁹⁹⁾으로

295) 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신학지남』 295 (2008), 234.

296) 이러한 서북청년단은 그 발족을 영락교회 청년회가 4·3제주항쟁 평정 등 '반공건국, 멸공건국, 승공건국'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한 것으로 언급된다.

297) 김건수, “21세기 제주도 선교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52.

298) 제주지방 50년사 출판위원회, 『제주지방 50년사』 (서울: KMC, 2005), 38.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4·3사건 그 당시의 사태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천주교와 불교 등의 종교³⁰⁰⁾가 제주도에서 20년 동안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자기 반성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인한 하나의 결과라고도 본다. 이에 더하여 제주 교회는 제주의 “고통을 끌어안지도 못했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³⁰¹⁾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결국 제주교회는 당시의 사건으로 인한 극심했던 교회의 피해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위해 행했던 ‘자수 선무 활동’ 과 같은 모습 등 좋은 기억들만을 품고 가기 보다는 제주민들의 상처를 품어내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현재 제주가 역사 안에서 입은 상처와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가지고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제주교회가 함께 나선다면, 지금까지 제주민이 가지고 있던 제주 교회의 이미지는 얼마든지 쇄신될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위와 같은 피해상황 비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30,000명의 희생이라는 아픔만큼 17명의 아픔이 큰 것은, 그 17명의 희생이 30,000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생을 제주민들도 인식하여 제주 교회의 손실, 즉 이도종 목사라는 인물이 희생당함으로써 생겨난 공백이 제주민들에게도 같은 공백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데에는, 제주 교회의 앞으로의 역사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삼재의 섬 제주는 이제 삼보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제주는 또 다른 삼보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민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공동체성’, 그리고 ‘화해와 회복’일 것이다. 이제 제주민의 역사와 함께 걸어갈 제주교회는 제주가 간직해온 세 가지의 보물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도종 목사가 추구하던 생애와 목회활동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299) 김향원,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23.

300) 서성환 목사는 그의 책에서 가톨릭 교회는 해마다 4·3 추모미사를 드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열었으며, 불교 또한 천도제를 올리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독교는 그러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임문철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교과서 포럼의 ‘대안교과서’의 4·3 사건 서술이 문제시되자, ‘이 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태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는 왜곡’에 대해 그 내용을 폐기하고, 4·3영령과 유가족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던 예가 있다.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40.

301) 같은 책, 34.

참고문헌

1. 史料

1) 총회록, 독노회록, 당회록, 연혁

- 「예수교장로회 대한로회 데이회 회록」
- 「예수교장로회 조선로회 데오회 회록」
-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데일회 회록」
-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데이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데十九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데二十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데二十一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데二十二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三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四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五회 회록」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二十六회 회록」
- 「朝鮮耶穌教長老會總會 第二十七回 會議錄」
-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二十八回 會議錄」
-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二十九回 會議錄」
-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第三十回 會議錄」
- 「朝鮮耶穌教長老會總會 第三十一回 會議錄」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 三十五회 회의록」
- 「고산교회 당회록」
- 「금성교회 주일회록」
- 「금성교회 연혁」

「협재리 교회 연혁」

2) 신문 · 정기간행물

「한국기독교공보」

「基督教報」

「基督申報」

「獨立新報」

「東亞日報」

「濟州新報」

「漢城日報」

「제주기독교신문」

The Korea Mission Field

3) 자료집

濟州道 編. 『濟州史資料叢書 I』. 제주: 濟州道, 1998.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제주노회 연혁 출판위원회. 『제주노회연혁』. 제주: 한국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2008.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교구 연보 I』.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제3권 (3.1운동사 하)』. 서울: 독립유공자

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7-미국자료편 1』. 서울: 금성문화사, 2003.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1)-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3집』.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초기 성직자들의 서한(2)-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 4집』. 제주: 천주교 제주교구, 1997.

서귀포시 공보실 편. 『제주계록』. 제주: 서귀포시, 1995.

4) 설교

이도종. 『강도집』. in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사상』,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편. 제주: 제주노회, 2001.

2. 도서 및 논문

1) 단행본

康文昊·文泰善. 『濟洲宣敎70年史』. 서울: 大韓예수敎長老會總會, 1978.

김봉옥. 『제주통사』. 서울: 도서출판 세림, 2000.

김수진. 『호남선교 100년과 그 사역자들』. 서울: 고려글방, 1992.

金良善. 『韓國改新敎史研究』. 서울: 기독교문사, 1980.

김요나. 『거친 바다의 풍량을 딛고』. 제주: 제주노회, 2010.

_____. 『金堤中央敎誨 88年史』. 서울: 지혜원, 1998.

김춘배. 『한국기독교 수난사화』. 서울: 성문학사, 1969.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달레, 샤를르/安應烈·崔爽祐 譯註. 『韓國天主敎會史 下』. 왜관읍: 분도出版社, 1980.

모슬포교회 100년사 편찬 위원회. 『모슬포교회 100년사』. 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 모슬포교회, 2009.

박용규. 『제주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 서귀포교회80년사 편찬위원회. 『서귀포교회 80년사』.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2010.
- 서성환. 『제주 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승실대학교100년사편찬위원회. 『승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승실』. 서울: 승실대학교출판부, 1997.
- 신행철. 『제주사회론』. 서울: 한울, 1993.
- 양정심. 『제주 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서울: 선인출판사, 2008.
- 柳洪烈. 『(增補) 한국 천주교회사 下』.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1.
- 이도종목사기념사업회 편. 『제주 제1호 목사 이도종의 생애와 순교』. 제주: 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2001.
- 이사례. 『이기풍』. 서울: 기독교문사, 2008.
- 이영권. 『제주 역사 기행』. 서울: 한겨레 신문사, 2004.
- 이원진. 『역주 탐라지』. 서울: 푸른역사, 2002.
- 장로회 신학대학. 『長老會神學大學 70年史』. 서울: 長老會神學大學, 1971.
- 전택부. 『토박이 신앙 산맥 2』.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2.
- 제주기독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제주기독교100년사 (1908~2008)』. 서울: 콤파출판사, 2009.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편저. 『濟州道誌 第2卷』. 제주: 제주도, 2006.
- 제주 4·3 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89.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연표 Ⅱ』. 제주: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2005.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천주교회 100년사』. 제주: 천주교제주교구, 2001.
- _____. 『1901년 신축교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제주: 천주교제주교구, 1997.
- 제주성내교회사 편찬위원회. 『제주 성내교회 100년사』. 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성내교회, 2008.
- 제주성안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회 첫 선교지 살리는 공동체 100년 제주

- 성안교회 100년사 1908~2008』. 제주: 제주성안교회, 2010.
- 제주도문화체육과제주도지편찬위원회. 『濟州抗日獨立運動史』. 제주: 제주도, 1996.
- 趙南洙. 『眞相』. 서울: 선경도서출판사, 1990.
- _____. 『4·3 진상』. 제주: 관광제주, 1988.
- _____. 『趙南洙 牧師 回顧錄』. 서울: 善瓊圖書出版社, 1987.
- 지명숙·왈라벤, B. C. A. 『보물섬은 어디에 :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 車載明 편. 『(朝鮮 예수教)長老會史記 上』. 京城: 朝鮮예수教長老會總會, 1928.
-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I』. 서울: 기독교문사, 1990.
- 韓國教會史學會 編. 『朝鮮 예수教 長老會史記 下卷』.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68.
- 한인수. 『濟州宣敎百年史』. 서울: 경건, 2009.
-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과주: 집문당, 2005.
- Brown, G. T. *Mission to Korea*. Seou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t. of Education, 1984.
- Gutzlaff, Charles. *Journal of the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with Notice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臺北: 成文出版社, 1840-1900.
- Rhodes, Harry A.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v. 1, 1884~1934*.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1984.

2) 정기간행물 및 논문

- 김동진·방경식·장희순. “제주도 ‘신구간’ 이사풍속의 주거문화 의식구조 분석.” 『주거환경』 6 (2008): 25-43.
- 김종희. “제주도 1호목사-순교자 이도중.” 『새가정사』 56 (2009): 68-71.
- 김형석. “제주교회사의 유적을 찾아.” 『한국기독교와 역사』 3 (1994): 241-258.

- 박영환. “제주도 교회를 다녀와서.” 「활천」 399 (1982): 69-74.
- 박용규. “제주선교 100년 그 역사와 의미.” 「신학지남」 295 (2008): 204-241.
- _____. “초기한국장로교 해외선교.” 「신학지남」 71 (2004): 83-108.
- 박재환.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 9 (1977): 607-635.
- 朴贊植. “한말 천주교회의 제주교안 인식-뒤통문서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181-217.
- 서정민. “기독교 선교가 제주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신학논단」 28 (2000): 173-191.
- 안영후. “개화기 천주교의 제주도 신교육 운동.” 「한국교육논단」 10 (2011): 151-168.
-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의 유래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8 (2006): 173-208.
-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제주도연구」 22 (2002): 17-36.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 (1998): 199-218.
- 주강현. “16~19세기의 동아시아 해양세계와 서구인의 제주도 인식.” 제2회 글로벌제주상공인대회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타자가 본 제주도’ 국제심포지엄: 제1부, 주변국가에서 본 제주도, 2010년 09월 17일(금)~19일(일). 12-21.
- 진성기. “제주도 무속과 당신앙.” 「한국문화인류학」 17 (1985): 175-184.
- 최병길·권귀숙·강상덕·김현돈·한석지·박찬식.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濟州島研究」 15 (1998): 113-151.
- 하순애. “제주도 민간신앙의 변화와 사회적 의미.” 「濟州道研究」 20 (2001): 135-169.
- 한국일. “제주 권당문화와 제주선교: 에큐메니칼 선교 관점에서.” 「장신논단」 30 (2007): 375-413.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연구.” 「탐라문화」 15 (1995): 1-74.

3) 학위 논문

김견수. “21세기 제주도 선교전략 및 전망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장래. “이기풍 선교사의 제주도 초기 활동에 관한 연구.”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이아브라함병옥. “선교문화방법론으로 본 이기풍의 선교평가.”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부록

교세 총계표

연도	목사	장로	당회	교인			교회당	예배 처소
				세례 교인	총계	출석교 인수		
1908	1	-	-	-	-	20여	3	-
1909	1	-	-					
1910	1	-	-					
1911	1	-	-		160		3	2
1912	1	-	-	58	410		3	5
1913	1	-	-	82		400여	3	6
1914	2	-	-					
1915	2	-	-			250여	3	5
1916	2	-	-					
1917	3	2	1					

[표 6] 제주 전교 초기(1908-1917년)의 교세 총계표

제주 전교 초기에는 제주 전도상황에 대한 총회 전도국의 보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지만 1913년 제주 전도사업이 전라노회로 위임된 후에는 구체적인 총계를 알 수 있는 사안이 자세히 명시되지 않고 있다. 1917년 전라노회가 전남노회와 전북노회로 분립된 후 구성된 ‘전라남북노회 연합협의회’에 의해 두 노회가 협동하여 진행하던 제주 전도사업은 곧 황해노회의 선교 동참으로 인해 세 노회에서 분담하여 이끌어 가게 된다. 위의 1917년에 활동하던 목회자는 윤식명, 김창국, 임정찬 목사로 각각 전남 노회, 전북 노회, 황해 노회의 지원을 받는 파송 목사로서 제주에서의 목회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연도	목사	장로	당회	교인			교회당	예배 처소
				세례 교인	총계	출석교 인수(평 균)		
1931	6	14	10	527	1,078	951	17	
1932	5	15	11	512	1,053	1,013	24	
1933	3	15	11	546	1,266	991	9	
1934	6	14	11	665	1,329	1,067	20	
1935	7	13	11	633	1,534	1,335	21	
1936	6	14	11	655	1,566	1,365	22	
1937	4	14	10	581	1,529	1,393	21	
1938	4	13	9	718	1,910	1,836	22	
1939	5	14	8	775	2,049	1,970	23	
1940	6	17	9		2,105	1,951	24	
1941	7	17	9	893	2,096	1,901	24	
1942	6	18	9		1,606	1,578	24	

[표 7] 제주노회 설립 이후(1931-1942년까지)의 교세 총계표

1930년 제주노회가 조직되면서 1931년부터의 제주도의 전교활동에 대한 노회 보고가 총회록의 총회 총계표에도 기록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재된 사항은 위와 같다. 1942년까지의 기록만이 자세히 남아있는 연유는 점차 심해진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인해 1943년 5월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제주노회도 1943년 6월 10일에 해산되어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제주교구로 개편된다.

ABSTRACT

A Study on the Forming Process of an Early Jeju Church -Focusing on the Life and Pastoral Works of Dojong Lee-

Ko, Min Hee

Department of Church History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ddressed the formation of an early Jeju church with illuminating Dojong Lee, who made an appearance from Jeju's Church history, as the central figure, and it also examined the 'Jeju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eju Islander.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Jeju area, a distinc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s an island, and all the derivative factors; culture, traditional belief, community-ship, and natural exclusiveness had made the Jeju Island to be regarded as difficult terrain for a mission. There had been, despite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however, missionary interests and attempts toward the Jeju Island, as a result in 1907, the Independent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passed the resolution, in tandem of its foundation, for a dispatch of missionary to Jeju Island. KiPoong Lee arrived Jeju Island in 1908, as abided by the decision, and he set about mission works with JaeWon Kim, BongHo Cho who had already been converted to the protestant at the main

land. The Jeju church had gradually grown with this effort in basis.

This study specially focused particularly on Dojong Lee for investigating the forming process of an early Jeju church. Not only his symbolism as the first pastor among the Jeju native(Jeju Islander),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in his life and the pastoral trace shows that early history of the Jeju church is interlinked with the personal history of Dojong Lee.

On handling the forming process of an early Jeju Church pivoting on Dojong Lee's pastoral activities, this thesis gave a detailed account on two points. As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 of Dojong Lee's life and pastoral works as the Jeju native pastor. He lived a life with the pious identity as the native Jeju islanders, his mission works on foundation of the Jeju Presbytery and the bible school shows his consideration what was the most urgent issues both in JeJu and the Jeju church. The whole heading process of the issue shows the independent identity and mechanism of Jeju islander believer. Dojong lee's sacrifice during the Jeju 4.3 incident signifies the Jeju believer's distinguishable attitude; constancy and steadfastness, thus, life and mission work of Dojong Lee as native Jeju Islander is a subject of great significance on the forming process of an early Jeju church.

As second, the whole study has inspected the messages that life and mission work of Dojong Lee give to the churches and people of Jeju Island. Dojong Lee had believed that all the believers in Jeju is the 'people of heaven' who received the grace and love of God, thus they were the people who should live as a true Christian. The only problem, however, in realization of this dream was the mutual wrong awareness between the church and the people of Jeju. Jeju church had considered belief, custom, and the culture of Jeju as stubbornness, local identity of exclusiveness, and a savage cultural orientation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On the contrary to this, the Jeju

islanders have kept the negative awareness on the Jeju church. They has recognized the church where tried to eradicate the custom of Jeju and transplant the external elements to their land, and they has also aware the church as an assailant of the Jeju 4.3 Insident. The natives of Jeju Island and the Jeju Church, however, share the common history that undergoing the scars of Jeju together and dealing jointly with the crisis. Dojong Lee, as a Jeju native pastor, accordingly, has the great implications in this respect of understanding the Jeju islanders and their church.

Key words : Early Jeju church, Jeju islanders, Communityship, Exclusiveness, Jeju 4-3 incident